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5

협동연구 2007-02-5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

신윤정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연구책임자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홍식(전북대학교 교수)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필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 간 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근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이행할 인프라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책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저출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의 정부 정책이 주로 인구 억제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 요인과 직결되는 바, 지역 사회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 자원의 특수성에 따라 어떠한 자원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파악하고, 이 자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특화시켜 그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부모 및 양육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출산·양육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 사회 특성 별로 민간비영리자원, 민간영리자원, 비공식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정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해 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박사, 충북대학교 최은영 교수께 감사드리고, 또한 원내에서 검독을 맡아주신 김미숙 박사와 박세경 박사께 감사인사를 전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3
요 약	15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8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0
제2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체계화	42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조	43
제2절 지역사회자원의 개념과 유형	47
제3절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정의	68
제4절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83
제3장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93
제1절 분야별 선행 연구 결과	93
제2절 선행 자료 분석 및 사전 인터뷰	103
제3절 일본의 지역사회자원 활용 사례	117
제4장 지역사회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126
제1절 조사 개요	126

제2절 지역사회 수요자 욕구 분석 결과	137
제3절 지역사회자원 실태 분석 결과	185
제5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223
제1절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223
제2절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239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253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분야 세부사업	264
[부록 2]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결과표 ·	269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터넷 조사 결과	283
[부록 4]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수요자 욕구 조사 설문지 ···	289

표 목 차

〈표 2- 1〉 지역사회자원 목록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행해야 할 조사	54
〈표 2- 2〉 민간복지시설 자원동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자원의 종류 및 특성	57
〈표 2- 3〉 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	58
〈표 2- 4〉 공급주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유형	60
〈표 2- 5〉 자원의 속성에 따른 유형	63
〈표 2- 6〉 자본의 분류에 따른 자원 유형화	63
〈표 2- 7〉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유형 ..	64
〈표 2- 8〉 주민서비스종합안내에서의 지역사회자원 목록틀(예시)	67
〈표 2- 9〉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67
〈표 2-10〉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공공자원	71
〈표 2-11〉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비영리자원	73
〈표 2-12〉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영리자원	77
〈표 2-13〉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비공식자원	78
〈표 2-14〉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자원	80
〈표 2-15〉 표적 시장(Target Marketing) 이론의 적용	89
〈표 3- 1〉 보육시설 현황(2006)	95
〈표 3- 2〉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2006)	96
〈표 3- 3〉 특수보육시설 일반현황	96
〈표 3- 4〉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과 실제 맡기는 곳: 0~2세	104

〈표 3- 5〉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과 실제 맡기는 곳: 3세~초등학교 미만	105
〈표 3- 6〉 인구 특성별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 사전 인터뷰 결과	111
〈표 3- 7〉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정도에 대한 견해	112
〈표 3- 8〉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참여 지역사회 자원	113
〈표 3- 9〉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여부	114
〈표 3-10〉 지역사회자원대상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적, 2005~2006	115
〈표 3-11〉 주요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례	116
〈표 3-12〉 일본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의 중점 시책	118
〈표 3-13〉 지역사회 독자적 모델 사업 내용	125
〈표 4-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서비스	127
〈표 4- 2〉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사회 자원	127
〈표 4- 3〉 조사 지역 선정에 사용한 기혼가임여성 통계 자료	128
〈표 4- 4〉 조사 대상 지역의 인구 특성	129
〈표 4- 5〉 재정 자립도	129
〈표 4- 6〉 조사 대상 지역의 자녀수·취업유무별 기혼 여성 수	130
〈표 4- 7〉 지역별 수요자 조사 대상 적용 비율	131
〈표 4- 8〉 지역별 수요자 조사 대상 수	131
〈표 4- 9〉 수요자 욕구 조사 개요	134
〈표 4-10〉 자원 조사 개요	136
〈표 4-11〉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138
〈표 4-12〉 산후조리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주로 받은 곳	139

〈표 4-13〉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영유아 보육	140
〈표 4-14〉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141
〈표 4-15〉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142
〈표 4-16〉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143
〈표 4-17〉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44
〈표 4-18〉 정보를 제공 받은 곳	145
〈표 4-19〉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	148
〈표 4-20〉 서비스를 주로 받은 병원·산후조리원, 육아지원시설, 학원의 위치	149
〈표 4-21〉 서비스 제공 기관 까지 이동시간	150
〈표 4-22〉 병원·산후 조리원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151
〈표 4-23〉 서비스 비용 부담	153
〈표 4-24〉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비용 부담	154
〈표 4-25〉 본인 및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비용 부담	154
〈표 4-26〉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156
〈표 4-27〉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57
〈표 4-28〉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158
〈표 4-29〉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	159
〈표 4-30〉 지역사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	161
〈표 4-31〉 실제 받은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의 일치성	168
〈표 4-32〉 취학 전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보모고용	175
〈표 4-33〉 취학 전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접양육 대 보육시설	177

〈표 4-34〉 취학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보모고용	181
〈표 4-35〉 취학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접양육 대 시설이용	182
〈표 4-36〉 지역별 시설 개소수	189
〈표 4-37〉 인터넷 조사 결과: 육아지원시설	194
〈표 4-38〉 인터넷 조사 결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197
〈표 4-39〉 인터넷 조사 결과: 청소년 단체	199
〈표 4-40〉 인터넷 조사 결과: 여성단체	203
〈표 4-41〉 심층면접결과: 어린이집	207
〈표 4-42〉 심층면접결과: 방과후 교실	211
〈표 4-43〉 심층면접결과: 청소년지원센터	214
〈표 4-44〉 심층면접조사 결과: 사회복지관	218
〈표 4-45〉 심층면접조사결과: 여성단체	221
〈표 5- 1〉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224
〈표 5- 2〉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영유아 보육 서비스 ·	229
〈표 5- 3〉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서비스	232
〈표 5- 4〉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236
〈표 5- 5〉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238
〈표 5- 6〉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241
〈표 5- 7〉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영유아 보육 서비스 ·	244

〈표 5- 8〉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	249
〈표 5- 9〉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	251
〈표 5-10〉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253

그림목차

[그림 2-1] 속성별 사회복지실천 자원	62
[그림 3-1]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의 개념도	97
[그림 3-2] 탁아소와 인접한 지원센터	122
[그림 3-3] 센터에 오는 아이들과 탁아소에 오는 아이들 함께 활동 ..	123
[그림 4-1] 성동구 mapping 분석	191
[그림 4-2] 하동군 mapping 분석	191
[그림 4-3] 강릉시 mapping 분석	192

Abstract

Study on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related to child birth and re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 for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in order to create environment which promote fertility and help childc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services when women are pregnant and give birth, childcare, counselling for family matters, and vocational education. Focused on these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how to utilize community resources such as non-profit resources, profit resources, and informal resources.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conducted case study for the three regions; Sundong-gu Seoul, Gangneung Gangwon-do, and Hadong Gyeongsangnam-do. This study interviewed 250 women for each regions in order to find out what women need and want for the services. Also this study search internet site and visit several institutions in order to figure out the situation of resources. The main finding are followings.

In order to satisfy women's needs related to pregnant and child bi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with moderate prices. For the rural area,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accessibility. For the childcare the main problem was cost, quality, and accessibility. Most women living in urban area prefer reliability and expertise, but women living in rural area prefer accessibility.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after-school study room from deprivation by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The low utilization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family counselling is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misunderstanding for the counselling. Comparing to women living in Sundong-gu Seoul and Hadong Gyeongsangnam-do, many women living in Gangneung Gangwon-do attends vocational education. The reason is that relatively many institutions for vocational education are in Gangneung.

Base on this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 The services for pregnant and child birth which is provided by informal sector should be provided by formal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reduce childcare cos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extra-education. However,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t is important to deregulation for diverse childcare services. For after school ca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rvices which provide care and education simultaneously. The number of after school study rooms and children center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children living in low income family. It is important to promote counselling services,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via reliable people such as principal of kindergarten, doctors in clinics, and public servant.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it necessary to make easy to enter in to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do this, th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cooperated with local enterprise. The education provided by mail, broadcast, and internet should solve the problem of accessibility.

요 약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5~1.7대 수준에서 유지하여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었으며, 이후에도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8로 이제까지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게 되었음.
-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이해 하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세부추진과제는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의 다섯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자가 인구 계층별로 상이한 욕구를 갖고 있는 까닭에 정부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이외의 민간자원 및 비공식자원 등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출산·양육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과제 달성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자원 체계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이를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서비스를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 대상 서비스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 (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영유아 (학령전 아동)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함.
-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 양육 관련 지역 사회자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민간비영리자원(육아지원시설,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상담기관), 민간영리자원(육아지원시설, 각종 학원, 산후조리원), 비공식자원(부녀회, 종교단체, 친인척등)으로 함.

- 제4장에서는 지역사례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자원 활용 현황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사회 자원 실태를 파악함.
- 제5장에서는 지역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가 가져다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함. 이를 토대로 각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출산·양육 관련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안을 서비스 유형별로 제시함.

제 2 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체계화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조

- 정부는 2005년 5월 18일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 2006년에 3대 분야에서 12개 부처의 236개 세부사업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함.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 핵심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세부 추진 사업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동 세부추진사업은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세부추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공공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자원의 확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양육 관련 세부추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출산·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자원의 동원은 불가피함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그 문제 속성 상 지역사회 수준에서 대면관계적 요소나 개별화에 입각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공공자원으로는 접근이 어려움
 -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되는 자원들은 현재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다수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중복과 누락을 막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자원투입을 기할 수 있음.
 - 자원의 양적 추가, 질적 다양성의 담보,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의 과급효과를 통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문화 정착에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임.

2. 지역사회자원의 개념과 유형

- 지역사회자원(community resource)은 그 자체로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 이론적 개념은 아님. 학계에서는 자원이 소재한 위치로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자원이라는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함.
- 지역사회자원은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 혹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적·비물질적 투입요소의 총체라 할 수 있음. 그 구체적 모습은 그 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

- 지역사회자원을 유형화하는 대표적 기준은 대상자의 욕구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공급주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자원의 질적 속성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 일반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자원의 분류는 공급체계 혹은 주체의 속성에 따른 분류가 일반화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공급체계의 속성에 따라 공공,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민간비공식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함. 이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음.

3.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복지다원주의는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시켜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비영리부문 등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복지다원주의를 통하여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중요시 다루어 오지 않았던 시장, 비공식, 비영리 부문 등에 대한 관심과 분권화, 참여에 대한 통찰을 배워야 할 것이며,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의 잔여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표적 시장 이론의 주요 골자는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자를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증진과 효용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것임.
- 공공적인 영역에서 표적 시장 이론의 적용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제 3 장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 분야별 선행 연구 결과

-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91)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오늘날 재택근무, 야간근무, 주 5일제 등 부모들의 취업형태와 근무시간이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등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부모들의 취업형태 변화로 인하여 보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프로그램, 보육기관 수요 증가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은 공공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 민간영리 및 비영리 자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영유아 모성 보건 증진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 및 취업연속성 증대를 위해 정부의 공공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함.
 -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동시성, 복합성,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자원개발, 관리·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상담클리닉, 여성상담센터, 부녀회, 친목회, 가족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동 학대·방임과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됨.

2. 선행 자료 분석 및 사전 인터뷰

-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분석 결과, 0~2세 영유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본인이 직접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것을 원하고 있었음.
 - 취업 여성의 경우, 본인 다음으로 친척보다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친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전업 주부의 경우, 본인 다음으로 친척보다는 육아지원시설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업 주부들이 시간을 취업 주부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취업 주부의 경우, 야간에 아이를 본인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친척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야간에 육아지원시설 및 가정 보육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야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인력이 전무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됨.

- 3세부터 초등학교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 모두 맡기기에 적절한 곳으로 육아지원시설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호함.
 -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 모두 본인 다음으로는 친척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 보다 친척에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음.
 - 육아 지원 시설은 보육시간에 제약이 있어, 보육 시간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약한 친척을 취업 주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취업 여성의 경우, 야간에 육아지원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야간에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부족으로 추측됨.
- 동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 설정을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면접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0~6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19명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여성들을 중산층 전업주부(4명), 중산층 직업여성(4명), 저소득층 전업주부(4명), 저소득층 직업여성(3명) 네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
 - 면접 결과, 직업유무별(취업주부/전업주부), 자녀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로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됨
 - 심층 면접을 통해 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서비스 중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받고자 원하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파악함.
 - 모성보호/신생아건강분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육아인프라확충분야: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분야: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일가정양립분야: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84.6%가 지역사회자원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소극적 참여 58.9%, 매우 소극적 참여 25.7%)를 밝힘
-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업에의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37.1%, 복지시설 19.9%, 언론기관 7.7%, 여성단체 4.5% 순서로 나타남.
- 지역사회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비율은 1.7%에 불과
- 지역사회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평균 1.5회, 2006년도에 평균 1.9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위해 2007년 5월 21일부터 24일 동안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함.
 - 방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할인 우대 카드 발급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지역의 여성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역 소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정부의 예산 부족, 지역사회단체의 비전문성, 지역사회단체의 성격과 정부정책 방향과의 불일치성 등을 지적함.
 - 지역사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저출산 관련 지방 정부의 예산 증대,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단체 상호간의 협력 증대, 지역사

회단체 및 기구들의 전문성 확보, 시민들의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이 지적됨.

제 4 장 지역사회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 동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상 조사 대상 지역사회자원으로 공공자원 보다는 민간 자원 위주로 함 (민간비영리자원, 민간영리자원, 비공식자원).
- 본 연구에서는 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제3장에서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서비스들을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함.
 - 이러한 서비스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영유아 (학령전 아동)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섯 가지 서비스를 포함함.
 -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 양육 관련 지역 사회자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민간비영리자원(육아지원시설,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상담기관), 민간영리자원(육아지원시설, 각종 학원, 산후조리원), 비공식자원(부녀회, 종교단체, 친인척등)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

로 대도시에서는 서울 성동구, 중소도시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농촌에서는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함.

- 수요자 조사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0~30대 기혼 여성으로 하였으며 조사 규모는 각 지역 당 250명으로 총 750명을 조사함.
- 조사 대상 지역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전화번호부 (성동구 (2004~2005), 강릉시(2002~2003), 하동군(2002~2003)),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 (2007), 지자체 해당 부서의 자료,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현황(2006) 자료를 활용함.
- 수요자 욕구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정보제공,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용부담, 서비스 질,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수요자 욕구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2일 동안 훈련된 조사원이 각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 하도록 하였음.
- 자원 현황 조사는 양적분석 방법과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함.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지역에서 시설의 개소수 및 위치 등 자원의 물리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시설의 프로그램, 주요 활동,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함.

2. 지역사회 수요자 욕구 분석 결과

가. 서비스 이용 현황

- 세 지역 모두 여성들이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친인척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산후 조리 서비스였음.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에는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하동군의 경우 비공식자원인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미취학 자녀의 낮 시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육아지원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하동군에 비해 영유아 보육을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음.
-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은 70% 이상이 학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하동군의 경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은 세 지역 모두 거의 대부분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비공식자원을 활용한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은 세 지역 모두 소수에 불과하였음.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세 지역 모두 취업 여성의 경우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주변에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보다 탐색적인 정보 취득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었음.
 - 하지만,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도시 지역 보다 낮아, 탐색적인 정보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 지역 모두 주로 같은 읍면동 혹은 같은 시군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하동군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와 비교하여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강릉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읍면동을 벗어난 시군구에 위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음.

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

-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대부분 본인이나 친인척 등 비공식자원이나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민간영리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음.
 - 다섯 가지 종류의 서비스는 모두 고위험 탐색재로서,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을 선택할 때 그 품질 수준이 개인에게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됨.
-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신뢰성, 전문성,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에서는 전문성이 접근성 보다 만족하는 더 큰 이유였던 반면, 하동군은 전문성 보다는 접근성이 만족하는 더 큰 이유였음.
-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본인 부담 감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릉시의 경우는 대도시와 비교하여 정보 제공 강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하동군에서는 기관수의 확충을 원하는 경우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았음.

다.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와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이웃 등 비전문적인 비공식자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우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영유아 보육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서비스를 받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은 본인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라. 아동 양육 지원 이용 형태에 관한 다변량 분석

- 기술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항로지분석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요인들이 가구의 자녀양육행태를 결정하는지 분석하였음. 주요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연령, 자녀수, 거주 지역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상이하였음.
- 둘째, 자녀양육형태에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다른 양육형태에 비해 긍정적이었음.
- 셋째, 주요 분석 변수들을 보면 취학 전 아동양육에서 주요 분석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에 있어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사적자원(또는 보모고용)을 이용하는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도출되었음.

3. 지역사회 자원 실태 분석 결과

가. 조사 지역별 개소수 및 위치 분석 결과

- 공공보육시설은 모든 지역에 있어 특정 지역에 쏠림 없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개소수 측면에서 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었음.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개소수나 위치 분포면에서 공공 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한편, 강릉시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역시 중심부에 모여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하동군의 경우 면 지역당 한 개소 정도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 만큼 심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음.
-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학원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동센터나 공부방은 각 1동에 1개소씩 정도 분포하고 있었음. 강릉시의 경우, 학원, 아동센터, 공부방이 중심지에 몰려 있었음. 하동군의 경우, 지역적 쏠림 현상이 강릉시 보다는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모두 세 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성동구는 지역사회 부녀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단체도 전체 성동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릉시의 경우, 다양한 여성단체 및 부녀회 조직이 있었으나 역시 중심지에 몰려 있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동군의 경우도 여성단체, 부녀회, 아동·청소년 단체들이 하동읍에 몰려 있어 외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나. 인터넷 조사 결과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규 보육 시간 외에 특기 교육과 종일반 수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특기교육의 내용과 비용은 정부의 지침 없이 보육시설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층 취업 여성이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기에 적절한 자원으로 판단되었지만, 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서비스의 질과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아직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많이 대두될 경우 여성 단체들도 출산·양육 관련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라. 심층 면접 조사 결과

-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시간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제도상의 문제와 보육 수요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었음.
 - 엄격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시설 이전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서비스 제공 대상 정원 수의 증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저소득층

- 에게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 부모와의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이 끝나고 학원에 다니는 아동수가 상당수 있어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면접 대상 방과후 공부방 세 곳은 모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역적 환경과 원장의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음.
- 낙후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 ○아동센터는 아동 비율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50% 비율로 받고 있었음. 이로써 센터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아동센터가 저소득층만 가는 곳이라는 낙인 효과를 면할 수 있었음.
 -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 ○공부방은 저소득층 아동들도 수요가 넘쳐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일반 아동을 받을 여유가 없었으며, 학원과 같은 수준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아동의 부모들도 이용을 원하지 않고 있었음.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동군의 공부방은 위기 아동이 상당수 있어 센터가 문제 있는 아동들만 가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 일반 가정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음.
- 청소년 지원 센터의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의 프로그램 자체도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가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도시와 농촌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문제보다 노인 혹은 장애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노인 혹은 장애인 프로그램 보다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격증 강좌가 취업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모셔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음.
 - 복지관에서 가족 상담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기자가 많아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
-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자 여성단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관련 캠페인, 홍보, 교육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단체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자원봉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 하동군의 경우 주민들이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소가 읍에 위치하고 있어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접근도가 낮았음.

제 5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1.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 여성들의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기관이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용문제, 서비스의 질 문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지적되었음.
 -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접근성 문제 보다는 보육 비용 문제와 서비스 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릉시의 경우는 보육 비용과 서비스 질 문제와 더불어 접근성도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동군의 경우는 농번기 때 발생하는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를 성동구와 강릉시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적하여 교육의 질에 가장 많은 중요도를 두고 있었고 하동군은 신뢰성 이외 접근성을 지적하였음.
 -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접근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지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강릉시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외에도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이 문제시 되고 있었음.
 - 하동군의 경우 자녀들이 농번기에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러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었음.
- 방과후 공부방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에 대한 상담과 부모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방과후 교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 접근성,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사회 복지관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강릉시와 하동군의 경우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이 쉽게 상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강릉시에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여성이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 이유는 강릉시가 중소 도시로서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은 시군구 내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2.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현재 비공식적인 자원에 의해 주로 제공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대도시의 경우 민간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으므로 병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가 지역 사회 병원 협회에 의뢰하여 모성 보호 캠페인 사

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영리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자원을 이용해야 할 것임.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마을 부녀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촌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도시 유형의 사업과 농촌 유형의 사업을 혼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여성단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 보육시설이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서비스 비용, 서비스의 질, 접근성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도시의 경우,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각종 여성 단체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동 육아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의 계절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앗이 형태로 이웃 사람을 자원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는 교육비용, 보육 및 교육의 통합 서비스 부재, 이동에 따른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대도시의 경우 보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 교실, 지역사회 복지관 및 청소년 센터 등을 통하여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보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소도시에서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하되 점조직 형태로 각 지역 마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촌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을 활용한 품앗이 형태로 농번기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의 양적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점 조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어 전공, 피아노 전공, 무용 및 체육 전공 대학생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상담 시설로의 연계, 밀착적인 사례 관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상담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바, 그 원인은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지적되었음.
- 상담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보육시설의 원장, 아동센터의 원장, 병원 및 보건소의 의사,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신뢰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통해 상담 서비

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상담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 가는 상담 서비스 및 차량 운행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격증을 갖춘 여성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교육 시설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방송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5-1.7대 수준에서 유지하여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합계 출산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하여 이제까지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게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령화,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지속발전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경제·사회 안전망이 미흡하여 고령화의 충격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이해 하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 사업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세부추진과제는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의 다섯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자가 서로 다른 상이한 욕구를 갖고 있는 까닭에 정부가 지역사회 협력 없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서구 선진국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급 주체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다원주의 개념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이외의 민간자원 및 비공식자원 등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출산·양육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자원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비영리자원과 비공식자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복지 다원주의의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표적시장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와 자원을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수요자 욕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자료인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로서 일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서비스를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민간비영리자원, 민간영리자원, 비공식자원을 연구 대상 지역사회 자원으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사례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자원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자원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각각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서울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하였다. 수요자 조사는 자녀가 있는 20~3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현황(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정보제공,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용 부담, 서비스질,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자원 실태 조사는 본 연구대상 지역사회자원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개소수와 위치 등 물리적인 현황을 조사지역별로 파악하였으며,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및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연구진의 직접 시설 방문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역 사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가 가져다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출산·양육 관련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안을 서비스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제 2 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체계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자원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중점 과제 중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들을 본 연구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기초로서 활용하기로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를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며, 각 세부 추진 사업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산·양육과 관련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2010년까지 저출산정책은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이러한 세부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들은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러한 욕구를 어떠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세부추진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각 계층별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어떠한 자원을 연계시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구조를 고찰하고,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을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서구 복지국가에서 대두된 복지다원주의의 개념을 통해 모색해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제 1 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되어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의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정책과 공공자원의 투입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18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 3대 분야에서 12개 부처의 236개 세부사업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고 이것이 결혼 연령 및 출산 기피 등 다시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결되어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결혼 연령이 상승되고 결혼 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등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을 출산·양육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풀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계획의 시각이다. 이러한 기본

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향후 5년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인프라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혼 연령을 상승시키고 유배우출산율을 감소시켜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고용·소득 불안정, 결혼·출산·양육 관련 가계 부담의 과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의 과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성역할 분담 및 남녀 평등의식 미흡,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부재, 인프라 요인으로는 육아 서비스 취약, 보건학적 요인으로는 출산 건강 수준 저하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중점 추진 과제로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분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 3개 부문이 제시되고 있고, 2007년도에 10개 부처에서 총 3조 443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는바, 기본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분야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적 사회 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의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는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사업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세부 사업 들은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각 세부 사업의 추진 계획, 추진 일정, 소관 부처를 제시하였다(부록 1] 참조).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추진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은 정책의 배경이 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산아제한 등 출산억제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펴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은 몇몇 제도적인 급여나 감면 등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내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사회 특히 민간자원은 출산장려의 문제에 대한 대처나 자원투입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여건 속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 특히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집단별로 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독자적으로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사업에 적지 않은 금액의 물적자원이 공공인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투입이 되지만, 상기 사업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인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총량의 부족이다. 많은 금액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출산·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자원의 동원은 불가피하다.

둘째, 자원의 질적 속성과 관련된 이유이다. 공공자원과 달리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은 융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물적 자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유연하다.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그 문제 속성 상 지역사회 수준에서 대면관계적 요소나 개별화에 입각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공공자원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셋째, 연계(networking) 활성화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되는 공공 민간의 서비스 전달체계나 프로그램, 잠재적 인적 자원들은 현재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수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중복과 누락을 막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자원투입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양적 추가, 질적 다양성의 담보,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의 파급효과를 통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문화 정착에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도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 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자원의 확보와 함께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김미숙 외, 2002)이 핵심이라 하겠다.

제 2 절 지역사회자원의 개념과 유형

1.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에서는 지역사회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강조된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은 그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주민복지통합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체계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획과 집행의 중요성도 과거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수당, 혹은 공공부조와 같은 보장제도는 대개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운영되지만 사회서비스는 인적 자원의 활용 등 연성서비스(soft service)로서 유연성과 융통성이 가미되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활동이 강조된다.

이는 과거와 달라진 국민의 복지욕구와 관련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등장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사회보장제도 이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논의는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자원의 부족에 따른 추가적 자원발굴 및 동원이라는 것과 자원의 분리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의 강조가 그것이다.

첫째로 자원의 추가적 동원이라는 측면은 특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특히 국가의 공공재원이 가지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자원은 욕구에 비해 불충분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의 방법으로서 지역사회자원 특히 그 중에서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서 정부의 불충분한 역할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혹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 보다는 민간에 책임을 넘기는 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공 특히 중앙정부의 자원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의 자원이 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지며 총량적인 배분의 문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혹은 자원과 지역사회수준에서 투입되는, 특히 민간의 자원과 서비스는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위기 혹은 욕구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고도화되어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단지 정부가 양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나 융통성, 혹은 전문적 인력을 대처할 수는 없다.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자원 특히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로 지역사회의 자원 특히 민간자원 활용을 강조한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연계와 네트워킹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시설이나 단일한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도 사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참여정부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과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주민생활통합지원체계 등의 활동도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 한다는 점에 상당한 강조가 두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킹이나 조절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재정에 의한 운영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자원 확보 전략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김상균 외, 1991; 김영중, 1994; 김미숙 외, 2002; 문현정, 2002)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추가적 자원 동원 전략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자원연계와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맥락에서의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관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출산·양육지원 지역사회자원이라는 초점도 과거 사회복지조직의 지역사회자원 동원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자원을 적절히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그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개입단위나 체계수준으로 보아 실천가의 기술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 지역사회 ‘자원’의 개념은 면밀하게 분석된다기보다는 활용해야 할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범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측면과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최일섭·류진석, 1996). 이러한 기준에서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공간적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속한 인구유동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지역 혹은 공간개념 이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특정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권력이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도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스(Ross, 1967: 석재은 1999, 재인용)는 지리적 속성의 개념과 대조되는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라고 명하고 이는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community) 개념은 지역성(locality)에 기반한 공동체 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능성(function)과 목적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사람들의 집단, 기관, 조직체)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지역사회는 한편으로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의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감, 문화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목적성과 기능성을 내포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한편, 사회복지 개입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사회문제의 장인 동시에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는 한편으로는 변화의 직접 대상인 ‘표적체계(target system)’로서 그 자체가 목적적 개념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변화매개체(change agent)’로서의 수단적 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맥락에서 지역사회는 사회문제로서의 지역사회, 변화의 수단으로서의 지역사회, 봉사의 장으로서의 지역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Cox, 1987; 석재은, 1999 재인용). 즉, 지역사회는 변화될 필요가 있는 문제, 욕구, 이슈 등을 내재하고 있는 환경이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권력의 분배 등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수단,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나아가 지역사회는 공통적 신념, 규범, 가치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정한 공간을 갖는 장이기도 하다.

3. 자원과 지역사회자원

자원(resource)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정의에 기초하기보다는 상식적 수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욕구(needs)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이 두드러지는 욕망(wants), 경제적 측면의 수요를 기초로 하는 수요(demands)에 비하여 비개인적, 비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속성을 ‘욕구(needs)’라 보고 여러 사회적 서비스나 사회복지활동이 충족시켜야 할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자원이란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복지활동에 투입되는 제반 요소들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input)요소가 아니라 산출(output)된 서비스나 활동 자체를 자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욕구와 자원의 연계’에 대한 논의나 표현이 많아지는 것들이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자원(community resource)은 그 자체로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 이론적 개념은 아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주이다. 자원의 소재나 영역으로서 지역사회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 하겠다.

자원의 소재나 영역을 근접한 영역으로 국한 혹은 특정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자원은 ‘지역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논의에서는 지역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접성으로 규정되는 ‘지리적 속성’과 사회적·심리적 측면의 ‘기능적 속성’의 두 측면이 지역사회 개념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된다. 물론 강조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초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되는 지역사회 개념은 그 범위가 반드시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읍면동 등 기초 이하단위의 작은 지역사회범주와 광역 단위 정도의 큰 지역사회범주가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지역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논의에서 지역사회개념은 대체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범주에 입각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사회자원 개념을 강조하는 경우는 대개 정부(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외의 자원 활용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직체가 시설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방성(openness)을 강조하는 경우에 부각되는 범주이기도 한다. 연구에서 지역사회자원의 개념이 분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보다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 혹은 자원(resource)이라는 개념이 분석 혹은 정의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리고 자원이 소재한 위치로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자원이라는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사회적 자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시설, 설비, 자금이나 물자,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식과 기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김수영, 2003).

사회복지조직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변화나 유지를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이 활동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적·인적 요소의 총체를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을 욕구(needs)와

자원(resource)의 연결을 요체로 하여 파악하곤 한다.

전광현(2004)은 핀커스(Pincus, A.)와 미나한(Minahan, A.)을 인용하며 사회복지실천은 사람과 자원 시스템과의 연결이나 상호작용에 초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 자원 시스템이란 ① 가족이나 친구들로 대표될 수 있는 자연 자원 시스템, ② 회원조직 혹은 공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적 자원 시스템, ③ 행정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제도적 자원 시스템 등이라고 했다.

지역사회자원(community resource)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규정되거나 분석되어 온 경우는 적다.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개편 역사가 짧다는 점, 두 번째, 자원의 동원에 대해서 당위적이고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에 대해 시설 중심으로 사고하는 관행이 많았다는 점 등이 관련될 수 있다.

지역사회자원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어떻게 조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접근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김영종(1994)은 지역사회자원이란 지역성을 가지는 사회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자원으로 보았고 주로 민간자원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자원은 미분화된 속성이 강하여 ‘지역사회자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¹⁾ 특히 재정자원, 인적자원, 클라이언트자원이라는 세 가지가 초점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정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접근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사의 유형에 포괄적 사정(comprehensive assessment) 친숙한 본질사정

1) 이에 대해 최근의 상황에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양 등 분권화가 본격화되어 있어 정부의 재원 역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권한 및 활동과 밀접한 관련된다.

(assessment of a familiarization nature), 문제가 중심이 된 사정(problem-oriented assessment), 하위체계사정(subsystem assessment)에 중요한 요소로 자원사정(resource assessment)과 협조사정(collaborative assessment)을 추가하고 있다(Hardcastle, Wenocur & powers, 1997; 지은구, 2003에서 재인용). 여기서 자원사정은 지역사정의 한 부분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중심으로 사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원할 자원의 양만을 파악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Whitworth 등은 힘, 전문적 기술, 자금, 서비스라는 네 분야의 지역사회자원을 사정해야 한다고 보았다(지은구, 2003).

이와 유사하게 Kettner 등은 지역사회의 자원목록을 개발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행해야 하는 조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Kettner, Monet, & Martin, 1990).

〈표 2-1〉 지역사회자원 목록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행해야 할 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활용가능한가? · 어떤 서비스가 가장 잘 이용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비스의 질, 직원들의 태도 등 · 전문용어를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이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개별사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면 자원목록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
|---|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매우 폭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김종일(2004)은 Ganz의 견해를 인용하며 돈이나 물질과 같은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은 사용을 통해 소모되는 반면,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은 관계나, 헌신, 이해 등의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특히 사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자원을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적 요소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온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다 거시적 범위의 일반환경(*general environment*)과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는 작업환경(*task environment*)의 구분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 자원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내 자원환경과 외부의 자원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한다(김영중, 1994).

또한 자원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억압당한 계층과 함께 일하는 실천(소위 사회행동 *Social Action* 모형)에서는 자원분배구조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 아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김종일, 2004).

결국 지역사회자원은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 혹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적·비물질적 투입요소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 구체적 모습은 그 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4.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지역사회자원은 여러 가지로 그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들 속에서도 논의의 초점과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자원을 유형화하는 대표적 기준은 대상자의 욕구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공급주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자원의 질적 속성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전광현, 2004). 이 중에서도 실제에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자원 유형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기준들도 혼합되어 사용되곤 한다.

가. 공급주체에 따른 자원의 유형화 논의

먼저,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분류한 논의들이 있다. 김상균 외(1991), 권선진(1994), 황성철(2000), 문

현정(2002), 신준섭·최은미(2004), 노연희(2004) 등의 자원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복지시설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자원동원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논의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김미숙·김은정(2005)의 경우 지역환경요인, 조직요인, 후원개발요인이 자원동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자원동원이라는 결과적 종속변수는 후원자수, 후원액, 후원물품으로 조작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직된 정부보조금은 상수화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후원과 관련된 물적 자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 속에서 자원이 몇 가지로 유형화되고 있다. Gronbjerg(1992)가 사회복지자원을 정부보조금, 후원금품, 이용료로 세분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의 세분화가 가능하다(김미숙·김은정, 2005)

이들의 논의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은 공공과 민간의 분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자원은 다시 일방적인 무상의 이전이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얻어지는 쌍방의 유상교환인가에 따라 다시 후원금과 이용료로 구분되고 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자원의 분류는 이처럼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원의 보유 혹은 공급의 주체라는 기준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급주체에 의한 자원의 분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과 민간으로 크게 구별하는 것이지만 공식성을 기준으로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의 구별도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의 ‘공식성’도 역시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공식성과 관련되므로 공급주체의 성격에 의한 자원의 분류에 해당한다.

〈표 2-2〉 민간복지시설 자원동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자원의 종류 및 특성

구분	공공자원		민간자원	
	정부보조금	후원금품	후원금품	이용료
개념	· 조세에 의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원	· 개인, 기업, 기관들로부터 받는 자원	· 개인, 기업, 기관들로부터 받는 자원	· 조직이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자원
제공자	· 정부 - 고객과 클라이언트 분리	· 민간인, 단체 - 고객과 클라이언트 분리	· 민간인, 단체 - 고객과 클라이언트 분리	· 서비스 수급자
장점	· 안정성	· 융통성	· 융통성	· 클라이언트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 가능
단점	· 관리의 복잡성 - 과도한 문서, 보고의무, 복잡한 회계절차 · 낮은 융통성 · 충분한 비용이 제공되지 않아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 · 제공시기 비적절성	· 절대 풀(pool)이 넓지 않음 · 낮은 예측가능성 ·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인건비+관리비) · 낮은 안정성 · 자원확보활동과 서비스 전달활동의 분리	· 절대 풀(pool)이 넓지 않음 · 낮은 예측가능성 ·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인건비+관리비) · 낮은 안정성 · 자원확보활동과 서비스 전달활동의 분리	· 낮은 안정성 · 낮은 성장가능성 · 클라이언트가 저소득층 빈곤층인 경우 이용료 수거 곤란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전달과정과는 무관하게 진행 가능	· 후원자의 취향과 욕구에 민감해지면 본래 사명 약화(사회서비스 희생)	· 후원자의 취향과 욕구에 민감해지면 본래 사명 약화(사회서비스 희생)	· 조직의 목표인 클라이언트 만족에 주력 가능
비고	· 가장 많이 기대 받고 있는 자원	· 기부문화나 기부의 장려 요인(면세제도 개선) 등의 전제 필요	· 기부문화나 기부의 장려 요인(면세제도 개선) 등의 전제 필요	· 질높은 서비스 인력의 확보와 효율적 통제가 중요 ·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장 낮게 선호하는 자원 · 실제로 이용료 고객의 감소

자료: 김미숙·김은정,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5에서 재인용.

공식적 자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그 전달체계나 자원으로서 사회적이고 절차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개 법령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이에겐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나 조직, 민간영리단체나 조직에 의한 것이 포함된다. 비공식적인 것은 가족 구성원, 친지나 이웃, 자조집단 등에 의한 것이 포함된다.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적인 자원 간의 구분은 실제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의 공식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을 파악할 경우 서비스 공급체계는 그 자체로 사회적 자원이 되곤 한다. 이 경우 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공급체계에는 공공형 공급조직과 인가형 공급조직이 포함되고 비공식적 공급체계에는 시장형 공급조직과 참여형 공급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3〉 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

구분	공식적 공급체계		비공식적 공급체계	
	공공형 공급조직	인가형 공급조직	시장형 공급조직	참여형(자발형) 공급조직
해당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등	기업	개인 및 임의단체

김범수와 신원우는 사회자원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비공식자원체계, 공식자원체계, 사회자원체계로 구분하고 있다(김범수, 신원우, 2005). 비공식 자원체계는 정서적 지지나 애정, 충고, 정보제공, 금전 대여, 보육, 서비스 안내, 행정업무대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 동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공식자원체계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공식협의체나 회원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회체계와 교섭하도록 돕는다. 공식자원체계에는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보호협회 등이 있다. 사회자원체계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관기관으로 병원이나 학교, 경찰서, 법원, 공공도서관, 시청, 사회복지관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민간, 공식-비공식으로의 분류는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함께 혼용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공공자원에 비해서는 민간자원이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크고, 공식자원에 비해서는 비공식자원이 더 융통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

문에 공공자원을 공식자원, 민간자원을 비공식자원으로 혼용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공공자원은 공식성이 강하므로 거의 전적으로 공식자원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자원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민간의 공식부문 내에서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이라는 두 가지의 구분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급주체에 따라 이렇게 분류한다면 지역사회자원은 공식부문(공공부문),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비공식부문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²⁾

이와 같이 공공-민간, 공식-비공식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그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박태영(200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역사회복지에서의 공식자원, 공공재원 또는 공공 이외의 영역에서 직접 생산된 자원을 이용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공식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자원과 비공식자원을 거의 동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유형분류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지혼합(welfare mix)의 복잡성과 관련된다. 공공과 민간, 혹은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이 사회전체적으로 혹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도 서로 혼재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나 심지어는 동일한 조직주체 내에서도 서로 혼합되어 제공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민간이 설립한 조직에 대해 운영재원을 거의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혹은 정부가 시설을 설립한 후 민간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조직이나 자원을 민간으로 볼 것인가 공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지자원의 분류방식이지만 민간영리부문의 경우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기업은 대표적인 민간영리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오히려 복지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규나 관련 절차에 명시된 공식성이 약하므로 기업을 비공식 공급체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표 2-4〉 공급주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유형

구분	비공식 자원	민간영리자원	민간비영리자원	공공자원 ³⁾
제공주체	가족 친지 이웃	영리목적의 개인, 단체, 기업	영리추구목적이 배제된 자발적 단체나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자발적 생산자원	자발적 생산자원	공식자원 자발적 생산자원	공식자원
속성	인적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공식성	비공식	비공식	공식+비공식	공식

자료: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3.

대체적으로 공식 자원은 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사회주민의 정형화된 욕구에 대처하게 되므로 가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자원 혹은 비공식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복지주체의 다원화, 복지혼합, 연계 등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나. 속성, 대상욕구, 기타 기준에 의한 자원의 유형화 논의

자원의 유형에 대해 분류하는 기준은 공급주체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김범수와 신원우는 사이포린(1987)의 견해를 인용하여 사회자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으로 자원의 본질이나 원천 및 유형 등에 따라 ①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 ②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 ③실제적 자원과 잠재적 자원, ④목적 달성을 위해

3) 공공자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이는 지방화의 경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 전혀 다른 절차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지역사회자원으로 전국적인 수준이기 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므로 공공자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범수·신원우, 2005).

실제 자원의 분류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준은 공급주체의 특성에 의한 것 이외에 자원의 속성에 의한 것, 자원이 대응하려는 대상욕구(수요)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자원의 속성에 의한 분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전, 물자, 시설, 설비, 제도가 물적 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인적 자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애정, 정보, 지위 등이 해당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는 현금급여 중심의 화폐적 욕구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비화폐적 욕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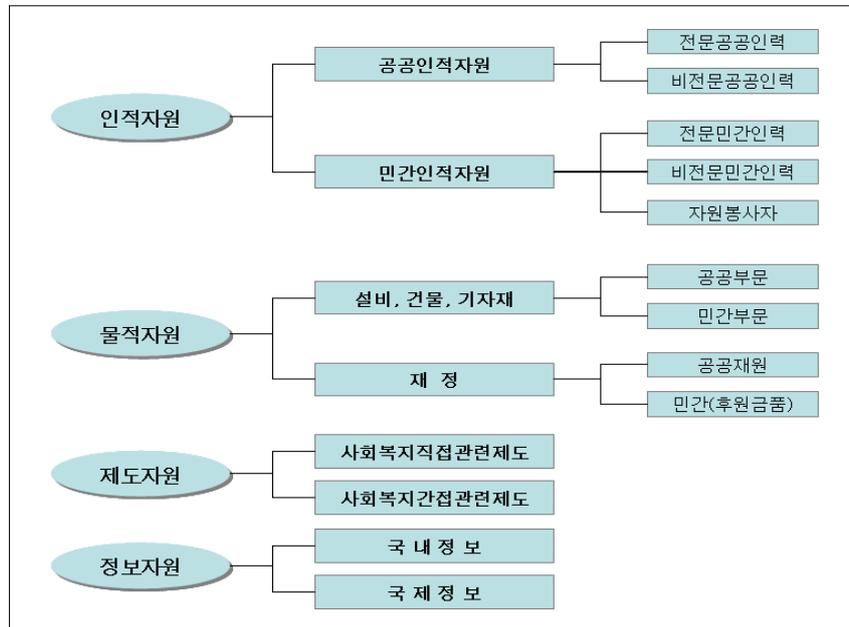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속성에 따라 현금자원과 현물자원으로의 분류도 활용된다. 이는 자원의 형태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현금과 현물은 대개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적 측면에서 구별되므로 자원이라는 용어보다는 현금급여, 현물급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⁴⁾ 현물형태의 자원은 다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으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은 거의 모두 현물자원의 비물질적 자원에 해당한다. 비물질적 자원에는 인적자원의 활용 이외에도 제도나 정보,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태영(2003)은 사회복지실천의 자원을 속성별로 나누어 인적자원, 물적자원, 제도자원, 정보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적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

4) 자원이라는 용어가 서비스를 위해 투입되는 애초의 원료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투입을 통해 산출되어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제공되는 급여 형태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원의 속성과 형태는 다르게 파악되곤 한다. 원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적-물적 자원의 범주가 더 적절하고 전달될 급여의 형태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현물의 구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자원이라는 용어를 어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원료적 측면에서 투입될 인적-물적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이지만 서비스 수혜자 중심으로 조망할 경우에는 급여 형태로서 자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적자원과 민간인적자원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인적자원은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공공인력자원과 공공복지 실천을 위한 지원자원인 비전문공공인력으로 구성된다. 민간인적자원은 전문민간인력, 비전문인력,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물적자원은 사회복지실천에 활용되어지는 설비, 건물, 기자재와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재정으로 구성된다. 설비, 건물, 기자재의 경우 공공에서 확보하여 제공되어지는 것과 민간에서 확보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재정은 공공에 의한 재원과 민간에서 유입되는 후원금, 후원물품으로 나누어진다. 제도자원은 사회복지직접관련제도와 사회복지간접관련제도로 구성되며, 정보자원은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로 나눌 수 있다(박태영, 2003). 이러한 분류를 편의상 도식화해보면 다음 [그림2-1]과 같다.

[그림 2-1] 속성별 사회복지실천 자원



자료: 박태영(2003).

이와 같은 자원의 속성에 관한 여러 분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자원 속성에 따른 지역사회자원은 현금자원, 현물자원(물자와 비물질적 내용 포함), 인적자원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유형화에서는 현물자원과 인적자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표 2-5〉 자원의 속성에 따른 유형

구분 (물적/인적)	물적 자원		인적자원	
구분 (현금/현물)	화폐적 자원 (현금자원)	현물자원		
구분 (물질/비물질)	물질적 자원		비물질적 자원	
내용	금전	현물 (의식주 등 물자)	제도, 정보	서비스 (지식, care 등)
종합적 유형구분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다른 한편으로 자원의 개념을 관계망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본이라는 유사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홍현미라(2006)는 사회자본과 물적자본, 인적자본이라는 분류를 활용하고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이 역시 자원의 속성에 따른 자원의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6〉 자본의 분류에 따른 자원 유형화

구분	사회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본출처	사회관계 속에 내재	관찰가능한 물질적 자본	개인의 습득된 기술이나 가치
실체성	비실체적 존재	실체적 존재	반실체적 존재
형태	사회관계망	토지, 설비, 공장 등	학력, 기술, 자격 등
특성	공공재적 성격	사적소유의 성격	사적소유의 성격
생산성	생산적임	생산적임	생산적임

자료: 홍현미라(2006).

자원을 자원이 대응하려는 대상 객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때는 사회복지 자원이나 서비스는 그 욕구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 요구별로 모두 분류가 가능하다. 인간생활 상의 모든 욕구가 관련될 수 있어 ①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 ②취업의 기회를 찾는 욕구, ③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유지, ④교육·문화·오락의 기회를 추구하는 욕구, ⑤거주 장소에 대한 욕구, ⑥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해가는 욕구, ⑦공정이나 안전을 구하는 욕구, ⑧기타 생활상의 욕구 등 충족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으로 각기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각종 지역사회복지자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으로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자원의 매핑(mapping)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활동상에서 지역의 자원을 일차적으로는 욕구 분야별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와 영역을 중심으로 욕구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원을 나열하고 있다.

〈표 2-7〉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 유형

구분	내부집중형 : 내장된 복지기능에 주목	외부연계형 : 기능적 지역사회에 주목
지역사회의 자원적 여건이 부족함	상부상조의 재생형 (저소득층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통한 자원동원형 (임대아파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자원적 여건이 풍족함	시민역량의 자원화 형 (중산층 지역사회)	외부자원망의 활용형 (상권 지역사회)

자료: 홍현미라(2006).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통합지원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영역의 자원을 매뉴얼화하고 자원

목록을 전산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역시 자원을 일단 대상 욕구별로 우선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개 대상 표적이 되는 욕구별로 자원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해당 영역의 자원 내에서 다시 자원을 공급주체 특성별(혹은 자원속성별)로 하위 유형화하는 단계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민생활통합지원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과약의 방식이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입 원천보다는 수혜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산출형태로서 자원을 파악하곤 한다는 점이다. 복지자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서비스의 구성요소가 되는 원천으로서만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자원이 가공된 산출의 서비스 형태로서 자원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의 유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홍현미라, 2006).

다.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공급주체, 자원의 속성, 대상욕구 등의 기준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은 각기 여러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과 방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유형화하는 것은 공급체계에 따른 유형화이다.

현재 지역사회자원은 우선 대상욕구 별로 독립되어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출산·양육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회적 욕구영역의 지역사회자원과 일부 중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는 다른 시도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을 취하곤 한다.

지역사회자원을 유형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는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주민서비스종합안내서 제작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군구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에게 개별적·상시적·직접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의 자원 목록을 모두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2007). 해당 영역을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의 8대 서비스로 하여 이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망라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며 시군구별로 관내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전체를 목록화하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개요를 담고 있다. 이 주민서비스 종합안내는 본 보고서의 연구처럼 출산·양육 지원과 같은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관련 영역의 자원을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대상별 코드’와 ‘표준서비스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색인 등 활용과 그 정보접근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대상별 코드는 저소득,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일반주민 등 7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표준서비스 분류체계는 ①복지 - 법정급여지원, 의료비지원, 결연후원, 급식지원, 가사간병지원, 상담치료, 재활지원, 생활지원, 안부서비스, 주단기보호, 컴퓨터서비스, 지역아동보호, 시설입소지원, 특수보육, 자원봉사, 기타지원, ②보건 - 건강관리지원, 검진서비스, 방문보건, 정신보건, 출산지원, 예방접종, ③고용 - 일자리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및상담, ④주거 - 주거안정지원, 주거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⑤체육 - 청소년아동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⑥교육 - 평생교육,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청소년교육, 아동학습지원, ⑦문화 - 문화행사전시, 일반문화활동, 노인문화활동, 장애인문화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아동문화활동, ⑧관광 - 관광안내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원 종합안내는 다음 <표 2-8>과 같은 틀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의 지역사회자원 파악은 공급주체, 자원속성, 대상유구 별로 유형 모두에 걸친 종합적 파악 시도이고 분류코드 등

전산상에서의 관리와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시도이다. 하지만 분류체계의 내용이 영역별로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비공식 민간자원 등의 누락문제가 있는 등 다소 정형화된 점들을 보이고 있다.

〈표 2-8〉 주민서비스종합안내에서의 지역사회자원 목록틀(예시)

제공 기관	8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문의처		
	구분	서비스내용	사업명	서비스량 정원	현원	신청대상 (자격)	모집방법 (신청기간)	대상별 코드	담당자 (전화)	홈페이지
○○시 xx과	복지	생계비지원						저소득		
	복지	장학금지원						아동청소년		
	보건	방문간호						노인		
	보건	민간의료						노인		
	복지	간병지원						노인		

자료: 행정자치부(2007).

실제로 다소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역사회자원의 파악을 위해서는 공급주체별 자원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자원의 속성에 따른 유형을 하위의 자원내용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본 보고서와 같이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려는 특정한 대상영역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표 2-9〉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구분	세부공급주체(예시)	자원속성
공공자원	중앙정부, 지자체,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민간비영리 자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자활지원기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기관	현물자원, 인적자원
민간영리자원	민간 보육시설, 사설 학원, 상담소, 기업	현물자원, 인적자원(현금자원)
비공식자원	부녀회 및 여성단체, 종교단체, 개인적 관계망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의 유형을 확인하는 이유가 누락되는 것 없이 최대한의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형화를 위한 틀은 다음 <표 2-9>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⁵⁾ 물론 <표 2-9>은 틀로 제시된 것이다. 자원의 내용은 어떤 욕구영역의 자원인가에 따라, 혹은 어느 지역사회인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세부 공급주체 역시 욕구영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자원의 공급주체는 상당부분 유사한 것이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것을 예로 제시하였다.

제 3 절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정의

출산·양육지원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살펴볼 때 자원들의 분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원 활용의 목적과 내용적 측면이 ‘출산·양육지원’으로 특정화되었으므로 욕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지적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세부 추진 사업의 다섯 가지 분야인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 등에 대한 자원모색과 활용이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자원의 분류는 공급체계 혹은 주체의 속성에 따른 분류가 일반화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공급체계의 속성에 따라 공공,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민간비공식 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위한 실용적 이유도 있다. 대개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출산·양육지원과 같이 특정 영역의 자원이 별도로

5) 물론 각 공급체계 별로 자원속성별 유형화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하는 세부자원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대개 공급체계는 모든 속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가지의 자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공급체계별 주된 자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내용에 따라 자원의 속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지역사회자원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역사회자원의 구분방식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용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1. 지역사회 공공자원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활용 모색에서 공공자원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책임주체이기도 하고 이미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경직된 동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서로 다른 부처나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과후 활동에 대한 공공의 예산지원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내용의 방과후 활동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과 예산활용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평가(박석희, 2007)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례로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WIC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다른 급식지원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자원 역시 민간자원과 함께 그 파악과 동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논의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에서도 공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이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자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에 따른 일차적 전달과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주요한 자원이 된다.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급여의 제공,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현금자원과 법규에 의한 현물자원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나 설비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아직은 취약한 상태이지만 시군구청은 지역사회 내의 관련 자원 전반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⁶⁾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는 임신부등록관리,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 및 환아관리,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 미숙아 등록 및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회복지관에 베이비맞사지 의뢰, 임신부를 위한 태교, 모유수유교육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WIC),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식생활정보센터운영, 엄마교실이나 각종건강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방문보건사업 등의 출산·양육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문성 높은 인적자원을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보다는 현물자원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하여 봉사활동 수요처에 적절하게 공급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원의 소재가 된다. 현재 자원봉사센

6)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자원이 지자체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간자원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고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지역사회별 편차가 매우 크고 또한 체계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비공식적인 것도 많아, 여기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자원까지만 서술하였다.

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군구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곳이 많다. 때문에 하나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청 산하의 자원봉사센터나 조직들이 다소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는 지역사회도 많다.

〈표 2-10〉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공공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공공	구청·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자원
		· 한부모가정 지원(교육비, 양육비) · 보육료 지원(장애아, 두 자녀 이상, 저소득층)	현물자원 (인적자원)
공공	보건소 (보건분소, 주민건강센터)	· 임신부등록관리, 건강검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진료비 지원 · 불임부부지원사업	현물자원 (인적자원)
		·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베이비맘사지, 임신부 위한 태교, 모유수유교육	(현금자원)
공공	보건소 (보건분소, 주민건강센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 및 환아관리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WIC)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 식생활정보센터	현물자원 (인적자원) (현금자원)
		· 엄마교실, 각종건강교육프로그램 등 ·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파견 및 활용 프로그램	인적자원

공공의 조직이나 전달체계를 지역사회자원으로 파악할 때, 이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자체를 원래 범규에 정해진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출산·양육 지원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의 간호사 등은 원래의 업무량이 과도하여 별도의 활동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인적 자원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네트워킹이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전

문성이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은 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시군구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한 일부 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공공자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에서 민간비영리 영역에서 설립하여 운영되는 시설들과 자원이나 그 운영 실태에서 유사하여 별도로 공공의 범주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

2. 민간비영리자원

출산·양육 지원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자원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영역은 민간비영리자원이다. 이는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공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체계는 대개 민간비영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비영리자원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대표적인 양육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의 속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잦은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과 사회활동의 양립이 어렵다는 현실과 관련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보육 서비스 관련 자원은 활용방식의 중요성이 크다.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는 방과후 전담시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자원도 중요하다.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 부설로 활용되고 있는 방과후 전담시설도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방과후 교실이나 급식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과거 공부방 운영의 비공식성에서 벗어나 점점 체계화되고 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중요한 지역사회자원체계가 될 수 있다.

〈표 2-11〉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비영리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민간 비영리	어린이집·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은 공공자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보육 · 시간연장보육 · 장애통합보육 ·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 영아전담보육 · 방과후 통합 보육 	현물자원 (인적자원)
	방과후 전담시설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보육(대개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 부설) 	현물자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급식, 지원프로그램 	현물자원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및 지원 프로그램 · 아동 및 부모 상담, 교육 프로그램 · 학교연계 프로그램(부적응학생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결연사업, 재가복지서비스 및 기타 	현물자원 인적자원
	자활후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취업, 창업 · 돌보미사업 수혜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아원, 입양원 등 무의탁아동복지생활시설 · 요보호아동그룹홈 · 아동상담소 / 아동학대예방센터 	현물자원
민간 비영리	여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보호시설-생활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선도보호시설 	현물자원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가족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교육기관(대학교) 부속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보육 · 결식학생지원/학교사회사업 · 대학 등 고등교육 연구기관 및 상담소의 검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물자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프로그램 · 자원봉사활동 	현물자원 (인적자원)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신생아 및 영아 의료지원 ·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재단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후원 등 	현금자원 현물자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출산·양육 지원을 비롯한 제반 복지서비스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지역사회자원이다.

전국 약 400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민간비영리자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분야에서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운영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우선 사업대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내용이다. 우선 사업대상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가정문제상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급식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소 운영,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복지네트워크 구축,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 취부업안내, 취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이 되며 우선사업대상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사업내용 상당부분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중요한 지역사회자원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상당수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인적자원과 현물자원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지역사회자원이다.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위해 지역마다 자활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개 공공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비영리조직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해 빈곤 여성가구주나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시설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점화된 이용시설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모두 지역사회 내에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과거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된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개방성과 지역사회 교류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동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지역사회에 추가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비영리자원이다. 여기에서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보건, 가족관계증진 등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비물질적 형태의 현물자원이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대학부설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있어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영리적 활동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에 연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지역사회에서 먼저 접근한다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좋은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재단 등의 비영리 조직은 원래 조직의 목적이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입장에서는 이차적 현장(secondary setting)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련된 전문성을 투입하는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의료나 교육 등 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자원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민간영리자원

민간영리자원은 많은 경우에 출산·양육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활용가능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 민간영리자원은 대체적으로 영리사업의 상품이 되는 서비스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는 내용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 기존에는 시장상품으로서의 속성 때문에 지역사회활용자원으로 취급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지역사회 내의 자원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자부담을 전제하는 경우도 많다. 영리활동의 시장체계나 혹은 서비스 이용권과 같이 다른 준시장적 기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영리조직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내에 기업과 같은 조직적인 영리자원은 현금이나 현물의 기부, 자원봉사 인력자원 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민간의 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시설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영리의 사업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수준과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크다. 최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계획이 나타나고 있으나 보육료 자율화 등 보육정책이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어 민간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자원으로서 활용되기에 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의 확대나 적절한 보육서비스 자원에 대한 욕구를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보육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라는 현물자원이 주된 활용내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자원의 활용대상으로 개발도 가능하다.

사설학원의 경우도 교육 바우처(voucher) 등 서비스 이용권 제도와 관련되어 지역사회자원으로서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적절한 네트워크이나 협약 여부에 따라 사설학원은 자신들의 영리적 목적 외에도 학령전기 혹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는 영리적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상담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물질적 측면의 전문성과 정보 지식 등 현물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자원으로 활용의 대상이 된다. 특수교육 등과 관련된 사설 영리 조직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별로 편차가 많이 존재한다.

〈표 2-12〉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영리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민간 영리	사설 상담소, 학원	· 민간영리형태의 학원이나 관련 상담소 혹은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사설 산후조리원 등	·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 등 지원과 신생아에 대한 초기 보호양육 지원	현물자원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기업		· 기업사회공헌	현금자원
			· 후원 및 기부활동 · 임직원 자원봉사	인적자원 (현물자원)

기업의 경우 최근 증대하는 사회적 책임성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전의 단순 기부활동 중심의 기업사회공헌에서 이제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 집중지원,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업의 소유자원에 대한 지역사회활용, 정보나 기술제공 등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모두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매핑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기업의 목록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출산·양육 지원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활용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업은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민간비공식자원

지역사회의 비공식 자원은 많은 경우에 책임성이나 정규성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곤 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사회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사적인 생활에서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비공식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특히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는 것이므로 비공식자원의 의미가 크다. 특히 공식자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서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역할에는 고유한 역할영역을 가지고 있다.

〈표 2-13〉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 민간비공식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민간 비공식	부녀회, 여성단체	· 부녀회, 자조집단 등 지역여성단체의 풀뿌리 자조 활동(공동체적 보육, 교육지원 및 자조모임)	현물자원 (인적자원)
	종교단체 등	· 종교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인 원조 제공	인적자원 (현물자원)
	직능단체 등	· 소속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인적자원 (현물자원)
	친인척, 지인 등		현금자원
	개인적 관계망 자원	· 보육, 사적 이전 등 지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현재도 지역사회에는 부녀회나 여성단체와 같은 조직이 자조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출산·양육 지원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인 동시에 현물자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된다.

종교단체 역시 과거보다 영향력은 줄었지만 비공식적 원조를 제공하는 체계가 된다. 지역사회에서 종교단체의 출산·양육 지원활동이 보다 조직화될 경우에는 민간비영리부문의 활동이나 자원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단체나 시설의 활동은 원론적으로 본다면 비공식 영역보다는 민간비영리자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이나 단체의 종교적 활동과 사회통합적 활동은 민간비영리부문에 해당하지만 출산·양육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조망할 때는 종교단체나 시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된 본격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민간비공식자원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각종 직능단체나 전문가 조직들이 있다. 이는 많은 경우에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현물지원을 수행하는 체계가 될 수 있다.

비공식자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친인척 등 지인으로 구성된 사적 관계망이다.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본격화되면 이 역할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융통성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5.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사실상 지역사회자원의 공급주체나 자원속성에 의한 구분은 배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과 민간비영리, 혹은 민간비공식 자원의 경우도 그 유형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설립의 의미로서 주체와 어떠한 재원을 주로 활용하고 어떤 행정주체가 운영하는가 하는 점에서의 주체가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혹은 현물자원의 비물질적인 부분과 인적자원 역시 자원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유형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과 구분은 이론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 측면의 목적이 주가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자원의 유형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자원 유형화 범주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앞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출산·양육 지원관련 지역사회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공공	구청·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 한부모가정 지원(교육비, 양육비) · 보육료 지원(장애아, 두 자녀 이상,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보건소 (보건분소, 주민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등록관리, 건강검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진료비 지원 · 불임부부지원사업 ·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베이비맛사지, 임신부 위한 태교, 모유수유교육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 및 환아관리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WIC)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 식생활정보센터 · 엄마교실, 각종건강교육프로그램 등 · 방문보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자원 (인적자원) (현금자원)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파견 및 활용 프로그램 	인적자원
민간 비영리	어린이집·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은 공공자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보육 · 시간연장보육 · 장애통합보육 ·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 영아전담보육 · 방과후 통합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자원 (인적자원)
	방과후 전담시설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보육(대개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 부설) 	현물자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급식, 지원프로그램 	현물자원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및 지원 프로그램 · 아동 및 부모 상담, 교육 프로그램 · 학교연계 프로그램(부적응학생 프로그램, 학교 사회사업)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결연사업, 재가복지서비스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자원 인적자원
	자활후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취업, 창업, 돌보미사업 수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자원 (인적자원)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아원, 입양원 등 무의탁아동복지생활시설 · 요보호아동그룹홈, 아동상담소 / 아동학대예방센터 	현물자원
	여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보호시설·생활시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선도보호시설 	현물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자원내용	자원속성
	건강가정지원센터	· 검사, 가족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교육기관(대학교) 부속상담소	· 방과후 보육, 결식학생지원/학교사회사업 · 대학 등 고등교육 연구기관 및 상담소의 검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물자원
	교육기관	· 교육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현물자원 (인적자원)
	의료기관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신생아 및 영아 의료지원 ·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재단 등 기타	· 기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후원 등	현금자원 현물자원
민간 영리	사설 상담소, 학원	· 민간영리형태의 학원이나 관련 상담소 혹은 특 수교육 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사설 산후조리원 등	·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 등 지원과 신 생아에 대한 초기 보호양육 지원	현물자원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기업	· 기업사회공헌 · 후원 및 기부활동 · 임직원 자원봉사	현금자원 인적자원 (현물자원)
민간 비공식	부녀회, 여성단체	· 부녀회, 자조집단 등 지역여성단체의 풀뿌리 자조 활동(공동체적 보육, 교육지원 및 자조모임)	현물자원 (인적자원)
	종교단체 등	· 종교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인 원조 제공	인적자원 (현물자원)
	직능단체 등	· 소속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인적자원 (현물자원)
	친인척, 지인 등 개인적 관계망 자원	· 보육, 사적 이전 등 지원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출산·양육 지원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유의
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활동 등과 같이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네트워크
하는 체계에 밀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계획 혹은 지역보건계획 등은 민-관을 아우르는 욕구와 자원 연계체로서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최근의 프로그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지역사회활동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공공 혹은 민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자원에 대한 모색과 계획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이점이 있다.

두 번째는 출산·양육 지원활동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관련 체계들도 많은 경우에 출산·양육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원을 조직화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네트워킹이라는 용어가 가장 유행어가 될 정도로 여러 분야가 자신의 분야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구상하곤 한다. 하지만 인적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의 현실에서 중복되어 구성되는 별도의 네트워크 체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모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의 자원상황과 그 연계수준을 수용하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체계는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연계에도 장벽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출산·양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될 잠재적 자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 사업과 필요한 지역사회자원 간의 현실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자원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역의 민간자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비영리자원의 경우 현물자원이나 인적자원에 치우쳐 있으며 현물자원도 비물질적인 서비스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현금자원은 극히 작은 비중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른 영역 특히 중앙정부 등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해야 할 책임성이 크다.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은 불가피하지

만 공공영역의 책임성 담보와 충분한 자원투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단지 모자란 공공책임의 대체체로서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모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 4 절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1. 복지다원주의 이론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회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다원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주체들, 즉 영리부분, 비영리부분, 비공식부분 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가족은 여전히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기본단위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국가가 비영리조직, 비공식조직, 그리고 시장이 담당해 온 복지 공급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너무 집권화, 관료화되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급주체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수혜자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존재로 머물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다원주의에서는 분권화와 수혜자들의 참여 혹은 권한 부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국가로부터 다른 공급주체들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다원주의는 국가의 역할

이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가 담당해왔던 대부분의 역할은 가족, 지역사회, 시장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국가는 자발적 부문 또는 비공식부문에 재원을 보조하는 재원보조자 역할과 시장에 대한 규제자 역할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다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정책 연구에서 핵심은 사회복지의 제공을 위해서 어떤 공급주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 각 공급주체들간의 역할을 결합할 것인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복지 체계에서 비용 절감과 동시에 수혜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복지다원주의자들은 복지의 ‘상품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비공식부문, 비영리부분 등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공급주체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다원주의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된다. 첫째, 복지다원주의는 서비스 수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자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시장이 국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에 기초한 수요에 대응하게 될 위험이 있다. 둘째, 복지다원주의가 국가의 역할 축소에만 기여하고 비국가 부문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총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등의 역할이 증대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복지체제의 상품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종합컨대, 복지다원주의는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들에 대한 관심을 복원시켜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시장, 비공식부문, 비영리부문 등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복지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복지다원주의의 관점은 선택적으로 수용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중요시 다루어 오지 않았던 시장, 비공식, 비영리 부문 등에 대한 관심과 분권화, 참여에 대한 통찰을 배워야 할 것이며, 복지 다원주의가 사회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의 잔여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회복지사업 공급주체의 한계 이론

본 절에서는 공공부문, 민간영리부문(시장), 민간비영리부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모색해 본다.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할 경우 정부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일정하게 정해진 최적 생활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그 혜택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사적인 자선이 가질 수 있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독점적 공급하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견제하기 어렵고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서비스 개선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민주주의사회에서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확대와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일 경우 경직성에 의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활동은 보편성이나 공정성 같은 사회적 가치에 구속되어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이기 쉬우며 기존의 법률안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하거나 실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면들이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들이다. 즉,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성이나 적용범위 그리고 책임성 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한다⁷⁾. 또한 시장의 거래 당사자들은 그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공재는 사유재와 달리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이다. 따라서 일단 재화가 제공되면 그 효용을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개인들이 그 재화에 대한 욕구를 숨기는 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제공된 재화의 효용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는 시장을 통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대개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들이어서 만약 잘못 선택되거나 부실하게 공급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비영리부문은 공적조직과는 다르게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특수 대상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 할 수

7) 보육 서비스 공급에서는 처음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주도적이 되어 왔으며 재정 공급 역시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적인 접근이 가미되었다. 이는 보육서비스가 공공재 인지 사유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와중에서 서비스의 구입자들이 이를 사유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이 보육 서비스 공급의 시장적 접근을 형성하게 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자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비영리 부문에만 의존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민간 비영리부문들은 본질적으로 불충분성, 온정주의, 특수주의, 비전문주의의 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완전하기 못하다. 이 가운데 특히 불충분성은 민간 비영리 부문의 재원 조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간 비영리부문의 재원조달이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게 될 때나 경기침체 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커지면 민간비영리기관들은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비영리부문의 재원조달 방식은 온정주의 특성을 갖는다. 즉 민간 조직에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가치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선정 또는 조직 활동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이것이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자신들도 도덕적 기준과 가치체계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욕구를 가치 있는 것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판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비영리부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주의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오히려 문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 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만 봉사하는 경우 전국적 수준에서의 배분에 관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집단의 욕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배제되고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서비스의 중복이나 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비영리부문은 또한 비전문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민간비영리기관들이 재정문제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통한 전문인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자원 봉사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종교적 설득이나 도덕적 예시와 같은 비전문적 활동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표적 시장 이론의 고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출산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적한바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공공자원만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사업에 대한 인구 계층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각 계층별 서비스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각 자원의 특수성에 따라 어떤 자원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파악하고, 각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특화시켜 그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부모 및 양육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를 부모 및 양육 담당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결시켜주는 방법론을 표적 시장(Target Marketing)이론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표적 시장 이론의 주요 골자는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자를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증진과 효용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공 마케팅(public marketing) 분야에서 표적 시장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적인 영역에서 표적 시장 이론의 적용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표적 시장 이론은 본래 경영학 분야에서 발달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

을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수 이론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표적 시장 이론의 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 2-15〉 표적 시장(Target Marketing) 이론의 적용

구분	내용	출산 양육 서비스에의 적용
시장 세분화 (Market Seg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을 욕구, 특성, 행태별로 구분 · 지역적·인구학적·심리적·행태적 특징 등에 따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유무별, 아동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시장을 구분
표적 시장 구체화 (Target Mark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분화된 시장이 요구하는 재화나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한 후 어느 시장을 상대로 재화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것인가 결정함 - 구분 없는 시장, 구분된 시장, 집중화된 시장, 미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없는 시장: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 서비스를 오전 9시~오후 6시 제공 · 구분된 시장: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집중화된 시장: 전문화된 양육 서비스 · 미세시장: 보육 도우미가 제공하는 개별적 서비스
구체적인 시장 위치화 (Market Positio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소비자 의사 결정과정을 용이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표적 시장 전략은 크게 시장 세분화 (Market Segmentation), 표적 시장 구체화 (Target Marketing), 구체적인 시장 위치화(Market Positioning)의 세단계로 진행된다. 시장 세분화는 각각 다른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욕구, 특성 혹은 행태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별로 수요자들을 세분화 한 뒤 각 세분화된 시장에 요구되는 재화 및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하는 단계가 표적 시장의 구체화이다. 표적 시장을 구체화 한 후 기업은 각 시장이 가져올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시장을 상대로 재화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것인가 결정한다. 구체적인 시장 위치화는 자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

에게 각인시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제품 선택시 자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세분화는 지역적 특성(예: 도시/농촌), 인구학적 특징(연령, 성, 가족규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 종교, 인종, 국적 등), 심리학적 특징(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개인적 특성 등), 행태적 특징(지식, 태도, 사용량, 반응도 등)등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특징 있는 그룹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보통 여러 개의 요소들로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분화된 시장들은 측정이 가능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규모가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차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되어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 양육 담당자의 직업 유무, 아동 연령, 소득 수준별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적 시장 구체화 단계에서 각 기업들은 세분화된 시장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시장에 재화 혹은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가 평가한다. 표적 시장이란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공통적인 필요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수요자 집단이다. 기업이 얼마나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표적 시장은 구분 없는 시장(Undifferentiated Marketing), 구분된 시장(Differentiated Marketing), 집중화된 시장(Concentrated Marketing), 미세시장(Micromarketing)으로 구분된다.

구분 없는 시장 혹은 대규모 시장 전략은 기업이 세분화된 시장을 무시하고 전체 시장에 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양육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시간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양육자에 대해 9시~6시까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 종류의 서비스가 모든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없는 시장 전략은 부적절한 마케팅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구분된 시장 전략은 기업이 여러 개의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각각에 맞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예를 다시 들자면, 취업 양육자의 자녀와 비취업 양육자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취업 양육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퇴근 할 때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취업 양육자 자녀에 대해서는 가령 오후 3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더 높은 판매 수익과 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분화된 시장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집중화된 시장은 기업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으로서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세분화된 시장만을 대상으로 각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중화된 시장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기업은 대상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집중화된 시장 전략에 따라 표적 시장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정교화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보다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다.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집중화된 시장 전략은 민간 어린이집 등 주로 자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주체가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서비스 종류를 한가지로 특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미세시장은 특별한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재화나 서비스 내용을 고안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추거나 구두방에서 구두를 맞추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미세 시장은 개인별 육아 도우미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가정의 취향 및 유아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우미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양한 표적 시장 전략 중에서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 서비스의 특징, 제공 대상자의 특징에 달려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가 작다면 집중화된 시장 전략을 채택함이 적당할 것이다. 서비스가 어느 인구집단의 특징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구분 없는 시장 전략을 채택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욕구가 차별이 없다면 역시 구분 없는 시장 전략을 채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장 위치화는 수요자의 마음에 각 브랜드가 주는 혜택과 차별적인 특징을 자리 잡게 하여 각 브랜드의 중요한 특징을 수요자가 스스로 정의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수요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홍수에 접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시 매번 각 상품을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다.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리하여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장 위치화이다. 시장 위치화는 각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가 갖고 있는 인상, 인식, 느낌 등의 복합적인 생각이다.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장 위치화는 양육 담당자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을 즉각적으로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위치화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홍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육 담당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동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을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모성보호/신생아건강, 보육 인프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일가정양립,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종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에 수행된 선행 연구 자료의 검토, 2차 조사 자료의 분석,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수행한다. 우선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출산·양육 관련 수요자 욕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다. 또한 출산 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자료인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알아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동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삼을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을 명료화 한다.

제 1 절 분야별 선행 연구 결과

1. 보육 인프라

산업화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은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의 차원에서 사회 및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자녀양육의 문제는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 자녀의 보육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가 아주 낮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 형태 특징은 보육 인프라의 양적 부족 및 질적 수준 미흡과 관련이 있다.

보육인프라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녀를 가정에서 원하는 육아지원시설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며(이삼식 외, 2005),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자녀양육환경 조성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출산율 제고 및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및 자원 확충·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생존과 양육에 대한 영유아의 복지권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여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최근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보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육의 사회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양육을 포함한 보육관련 책임은 개인·가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적 책임까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정 내 아동의 주 양육자는 모가 84.0%, 부가 2.6%(서문희 외, 2005)로 여성 취업률 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나 출산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는 이유를 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취업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91)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의 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승연, 2005) 오늘날 재택근무, 야간근무, 주 5일제 등 부모들의 취업형태와 근무 시간이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등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취업형태 변화로 인하여 보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프로그램, 보육기관 수의 증가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민간개인보육시설(44.0%)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40.5%)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법인보육시설의 비율은 10.6%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한편, 보육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육 및 교육의 행정체계 이원화로 인하여 보육 및 교육관련 업무추진의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표 3-1> 보육시설 현황(2006)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가정	직장	
		보육시설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시설	
시설수	개소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비율)	100.0%	5.6%	5.0%	47.7%	3.7%	44.0%	0.2%	40.5%	1.0%
정원		1,280,156	128,677	146,737	783,213	69,685	713,528	1,609	201,046	18,874
	(비율)	100.0%	10.1%	11.5%	61.1%	5.4%	55.7%	0.1%	15.7%	1.5%
아동수	현원	1,040,361	114,657	120,551	641,137	58,808	582,329	1,238	148,240	14,538
	(비율)	100.0%	11.0%	11.6%	61.7%	5.7%	56.0%	0.1%	14.2%	1.4%
	이용율	81.3%	89.1%	82.2%	81.9%	84.4%	81.6%	76.9%	73.7%	77.0%
직원수	인원	156,306	14,910	16,226	87,166	8,206	78,960	252	35,425	2,327
	(비율)	99.9%	9.5%	10.4%	55.6%	5.2%	50.4%	0.2%	22.7%	1.5%
시설 1개당 아동수		36	70	82	46	55	45	21	13	49
직원 1인당 아동수		7	8	7	7	7	7	5	4	6

자료: 여성가족부(2006).

〈표 3-2〉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2006)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의 민간개인				
계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서울	5,508	632	28	2,612	297	2,315	16	2,142	78
부산	1,592	127	93	886	44	842	2	471	13
대구	1,239	24	121	721	37	684	5	356	12
인천	1,385	65	9	699	45	654	1	588	23
광주	1,050	30	113	359	22	337	1	536	11
대전	1,072	29	44	389	26	363	1	595	14
울산	580	27	13	376	6	370	-	153	11
경기	7,864	293	100	3,442	131	3,311	27	3,933	69
강원	788	68	113	399	52	347	3	201	4
충북	854	34	105	436	39	397	2	268	9
충남	1,153	35	131	580	77	503	1	392	14
전북	1,275	34	162	546	84	462	-	529	4
전남	974	46	177	397	63	334	-	346	8
경북	1,399	94	83	798	39	759	-	410	14
경남	2,080	90	106	1,030	64	966	-	844	10
제주	420	15	77	260	40	220	-	64	4

자료: 여성가족부(2006).

〈표 3-3〉 특수보육시설 일반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설립주체별						
		국공립보 육시설	법인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가정보육 시설	직장보육 시설
			법인의	민간개인				
영아전담	695	83	209	73	268	12	50	-
장애아전담	144	32	69	13	28	-	2	-
장애아통합	732	230	53	44	317	1	84	3
방과후	1,124	176	114	295	457	25	56	1
시간연장형	2,029	284	176	108	829	56	573	3
휴일	93	17	21	8	30	3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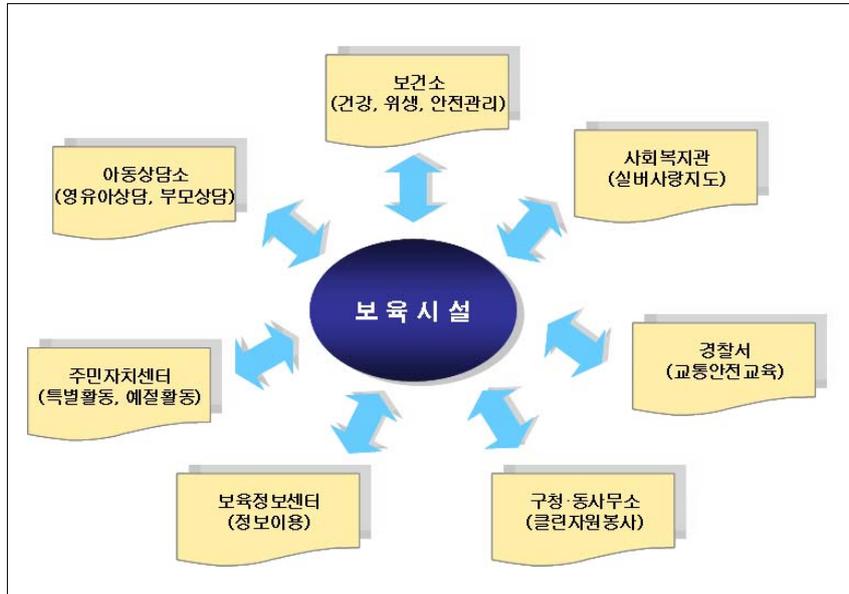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인 주민자치 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 보육정보센터, 사회복지관, 구청·동사무소 등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으로는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의 활용, 보육활동에 지역사회의 자원 이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보육시설 홍보, 보육시설의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주민 활용, 지역주민의 의식과 생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의 보육시설 종사자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3-1] 보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의 개념도



2.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최근 들어 만혼 및 고령출산, 스트레스에 따른 임신소모율과 불임증이 증가하고 있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결혼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 출산연령의 고령화로 인한 모자건강의 위험요소 증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에 사망했을 한계상황의 신생아가 생존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그로 인한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응급체계구축은 많은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생아와 영·유아기 이상 여부의 조기발견과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는 추후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성보호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 관리 시스템 구축, 아이 낳기를 희망하나 불임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한 불임시술 비용 지원,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구축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 및 결혼 후 예비임산부 교육시스템 지원, 출산 및 육아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보건소를 통한 지역 단위 임신 부 및 영유아 관리, 여성 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불임부부지원, 산모 도우미지원 등

그러나, 현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산모도우미 서

비스 제공은 공공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민간영리 및 비영리 자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영유아 모성 보건 증진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 가정 양립

최근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혼과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성,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복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도 높으나,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개월이후 5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에서 재고용한 경우, ‘출산여성 재취업장려금(1인당 월30~4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활용 정도뿐만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출산시 사업주가 신규고용 및 재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적 분담 수준이 저조하며,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고 전일제의 경직적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활용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외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는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이며,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직장문화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현저하여 노동시장 복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비용을 여성개인에게 지불하게 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기혼취업여성의 취업연속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추진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여성이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노동시장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회복귀(재취업)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기간 비경활인구로 있던 주부들의 재취업의지 강화 및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 및 취업연속성 증대를 위해 정부의 공공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동시성, 복합성,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자원개발, 관리·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체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지역사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 복귀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노동시장복귀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녀의 사교육기관 이용시간 증가 등 가족원의 개인적 외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유대가 약화되

고 있다. 가족내 유대감은 가족원간 상호 존중,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치관 형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화시킨다고 지적되어 온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추진 중인 평등가족실천교육 및 건강가정교육으로 등으로는 아동학대, 청소년 가출,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가족시간이 창출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이를 건전한 가족단위의 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가족내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업주의 문화의 확산과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가족의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요인 증가하는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가족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전통적 공동체 가치가 약화되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개인·가족·공동체의 공존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평등가족실천교육 및 건강가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도서관, 학교 등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가족 등을 위한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상담클리닉, 여성상담센터, 부녀회, 친목회, 가족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 가족해체 증가 및 유해환경이 확대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 및 건강한 성장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가족해체의 증가, 학대·폭력 증가 등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범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참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 학대·방임과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예방시스템 강화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제 2 절 선행 자료 분석 및 사전 인터뷰

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 분석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아동의 보육 행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특히 조사 대상 여성들에 대해 자녀를 맡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주간과 야간에 자녀를 맡기는 곳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여성들이 육아를 맡기로 싶어 하는 곳과 실제로 육아를 맡기는 곳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육구와 행태간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다. 동 자료는 여성의 취업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여성과 전업 주부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녀의 연령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녀 연령에 따른 육구와 행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육구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0~2세 자녀의 경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과반수의 여성들이 자녀를 본인이 직접 맡아 키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취업주부의 경우, 본인 다음으로 맡아 키우기 적절한 사람을 친척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업주부는 본인 다음으로 육아 지원 시설을 들었다. 가정 보육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0~2세 영유아의 경우, 여성들이 신뢰성이 강한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여성의 경우, 근로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시설 보다는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 친척보다는 육아지원시설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업주부들이 시간을 취업주부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간 제약이 있지만 친척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자녀를 맡기는 곳은 주간의 경우 취업주부의 경우 과반수가 친척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80% 이상이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12%로서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의 부족 혹은 보육료 부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야간에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직접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야간에 아이를 본인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약 23%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친척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육아지원시설 및 가정보육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야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인력이 전무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야간에는 시설이나 보육사보다는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친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표 3-4〉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과 실제 맡기는 곳: 0~2세

(단위: 명, %)

분류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				계(명)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전체($\chi^2=15.8^{***}$)	75(17.9)	18(4.3)	91(21.8)	234(56.0)	418(100.0)
취업주부	16(12.9)	5(4.0)	42(33.9)	61(49.2)	124(100.0)
전업주부	59(20.1)	13(4.4)	49(16.7)	173(58.8)	294(100.0)
분류	실제 주간에 맡기는 곳				계(명)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전체($\chi^2=219.6^{***}$)	66(15.8)	13(3.1)	78(18.6)	262(62.5)	419(100.0)
취업주부	29(23.4)	10(8.1)	69(55.6)	16(12.9)	124(100.0)
전업주부	37(12.5)	3(1.0)	9(3.1)	246(83.4)	295(100.0)
분류	실제 야간에 맡기는 곳				계(명)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전체($\chi^2=60.6^{***}$)	1(0.2)	3(0.7)	28(6.7)	384(92.3)	416(100.0)
취업주부	1(0.8)	1(0.8)	26(21.1)	95(77.2)	123(100.0)
전업주부	0(0.0)	2(0.7)	2(0.7)	289(98.6)	293(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3세부터 초등학교 미만의 유아의 보육에 대해서는 0~2세 영아 보육과는 다른 욕구 및 행태가 관찰되었다. 3세부터 초등학교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맡기기에 적절한 것으로 육아지원시설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호했다. 한편,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본인 다음으로는 친척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친척에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비교해서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기 원하는 비율이 낮고 친척에게 맡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2세 영아 보육에서도 지적했듯이 육아지원시설은 보육시간에 제약이 있어, 보육 시간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약한 친척을 취업주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과 실제 맡기는 곳: 3세~초등학교 미만
(단위: 명, %)

분류	자녀(첫째) 맡기기 적당한 곳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계
전체($\chi^2=11.4^{**}$)	308(57.9)	10(1.9)	66(12.4)	148(27.8)	532(100.0)
취업주부	96(51.9)	6(3.2)	33(17.8)	50(27.0)	185(100.0)
전업주부	212(61.6)	4(1.2)	33(9.5)	98(28.2)	347(100.0)
분류	실제 주간에 맡기는 곳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계
전체($\chi^2=31.9^{***}$)	471(88.5)	3(0.6)	6(1.1)	52(9.8)	532(100.0)
취업주부	176(94.6)	1(0.5)	6(3.2)	3(1.6)	186(100.0)
전업주부	295(85.3)	2(0.6)	0(0.0)	49(14.2)	346(100.0)
분류	실제 야간에 맡기는 곳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본인(기타)	계
전체($\chi^2=38.0^{***}$)	3(0.6)	2(0.4)	27(5.1)	500(94.0)	532(100.0)
취업주부	3(1.6)	1(0.5)	23(12.3)	159(85.5)	186(100.0)
전업주부	0(0.0)	1(1.3)	4(1.2)	341(98.6)	346(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실제로 3세부터 초등학교 미만의 유아를 주간의 경우 95%에 가까운 비율의 취업주부가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있었으며, 전업주부도 85%가 시설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세부터 초등학교 미만의 유아의 경우, 주간의 주된 보육 형태는 시설에서의 보육으로 짐작된다. 야간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이 직접 유아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의 취업주부가 친척에게 야간에 유아를 맡기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취업주부의 경우, 야간에 육아지원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야간에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야간에는 시설보다 신뢰성이 강하고 보육 시간에 제약이 덜 한 친척에게 맡기는 것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여성 대상 사전 인터뷰 결과

동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 설정을 위하여 2007년 7월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파악되지 못한 출산 양육 관련 보다 세부적인 욕구에 대해 파악하였다. 면접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0~6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여성들을 중산층 전업주부, 중산층 직업여성, 저소득층 전업주부, 저소득층 직업여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결과 역시 집단간 출산 양육에 있어 욕구도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직업유무별(직업여성/전업주부) 그리고 자녀 연령별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면접 인터뷰의 특성으로 인하여 양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보다 상세한 사항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소득수준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직업 유무, 자녀 연령, 소

득수준 외에도 거주 지역별로 농촌 지역 혹은 도시 지역에 따라서도 욕구의 차이가 있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장애 아동에 대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여성 직업 훈련 서비스 등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욕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①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②영유아 보육, ③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④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⑤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욕구는 역시 직업 유무, 소득 계층, 자녀 연령,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욕구를 분야별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모든 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 양육 관련 욕구가 가장 큰 분야는 역시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지원시설에 대해 중산층 전업 주부의 경우 0~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이 커져 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로 성장한 후에는 자녀의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시설에 맡기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중산층 전업 주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어서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 등 시설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보육 서비스 중 본인과 자녀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개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취업 여성의 경우, 0~2세 자녀는 대부분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 등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시설 혹은 보육 도우미에게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0~2세 자녀의 보육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 언급하겠지만, 중산층 취업 여성의 경우 친인척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거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친인척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로 인하여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에도 비용은 소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용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비용 및 가족 불화 때문에 시설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있었으나,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에 0~2세 자녀는 대부분 친인척에게 맡기고 있었다.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대부분의 중산층 취업여성들은 자녀를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었다. 전업주부와는 달리, 취업여성들은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전업주부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서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주택가에 살고 있는 경우 근처에 어린이집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스스로 돌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경직성이 강한 보육 시설의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보육료 지원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료로는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별 활동 서비스는 비용 부담 때문에 거의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지원 받고 있는 보육료로는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보육시설에서 돌아온 자녀가 부모가 퇴근 할 때까

지 혼자서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중산층 여성들과는 달리 저소득층 여성들은 친인척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친인척들도 여유가 없어서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지관 혹은 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서비스 정원 마감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접할 기회가 적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자주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과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이웃으로부터 보육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중산층 여성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서 도움을 받거나 친정집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민간 병원에서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평일 근무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후 조리원 및 병원에서 양육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밖의 전문 시설에서 양육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임신 후 실시하는 각종 검진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출산 후에는 영아의 예방 접종 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고 있었으나, 비용이 큰 몇 가지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 본인 부담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도 지저귀, 분유, 이유식 등 양육 전반에 걸친 비용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도값, 전기값, 가스값 등 공

공 요금에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중산층 전업주부의 경우 출산 이전에 직업 활동 경험이 있다면 대부분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현재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산층 취업주부는 취업 교육 보다는 자기 개발 측면에서 외국어 등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역시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인하여 직업 관련 교육을 받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직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직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재할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도가 매우 낮았다. 심지어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온종일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인하여 교육을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저소득층 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관련해서 중산층 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 모두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친구나 이웃에게 가족 관련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유용한 조언을 얻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낮았다.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중산층 여성들의 경우, 인터넷 카페의 토론방을 통해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6〉 인구 특성별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 사전 인터뷰 결과

구분	중산층		저소득층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음 출산후 산후 조리원 혹은 친정집으로부터 도움을 받음 보건소 보다는 병원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근무 시간에 보건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 산후 조리원 및 병원에서 양육 교육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전후 각종 검진 서비스에 대한 부담 영아 예방 접종비에 대한 부담 기지귀, 분유, 이유식 등 양육 전반에 걸친 부담 수도, 전기, 가스 등 위생관련 공공요금 부담 	
영유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이 큼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친인척 자원 활용도 높음)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높은 비용 소요 시설 및 보육도 우미에게 맡기는 경우는 별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음 종일제 서비스 이용을 낮춤 추가적 비용이 드는 특별활동서비스 이용을 낮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인척의 여유 부족으로 인해 친인척 자원 활용도 낮음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희박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 집 근처에 시설의 수는 많아 원하는 시설을 골라서 이용함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보육시설 이용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는 편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접근도가 다름 경직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해 불만 많음(야근할 때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서비스의 경우 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을 낮춤 공공기관 서비스 인원 마감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오후에 방치되는 아동이 많음 이사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웃을 잘 몰라 이웃으로부터 도움받기 어려운 실정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친구나 이웃에게 가족 관련 고민을 이야기함(유용한 조언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음)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 약함 전문적인 서비스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 강함 중산층 여성의 경우, 인터넷 토론방등을 통해 고민 상담하는 경우도 많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이전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재취업 원함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 곤란 가사 양육 부담으로 인해 취업 교육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보다는 자기 개발 측면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양육 가사 부담으로 인해 직업 관련 교육 받는데 시간적 제약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할 교육 수강 교육기관이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어려움 교육 받는데 하루 종일 시간 걸려 가사양육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에 대한 의지 강함

3. 저출산 대응 지역 사회 참여 실태

우리나라의 민간지역자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수익사업, 기부금,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지극히 미미하여,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민간단체들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위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 결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나 의사를 반영하는 등 본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실태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4.6%가 지역사회자원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소극적 참여 58.9%, 매우 소극적 참여 25.7%)를 밝혔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자원의 참여가 소극적(매우 소극적 포함)이라는 견해의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3.8%(매우 소극적 18.8% 포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83.6%(매우 소극적 26.4% 포함)로 각각 나타났다.

〈표 3-7〉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관련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지자체, 점)

구 분	매우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	매우 소극적	계(지자체)	평균점수
전국	2.9	12.6	58.9	25.7	100.0 (175)	1.9
광역자치단체	-	6.3	75.0	18.8	100.0 (16)	1.9
기초자치단체	3.1	13.2	57.2	26.4	100.0 (159)	1.9
대도시(구)	3.9	11.8	58.8	25.5	100.0 (51)	1.9
중소도시(시)	4.1	16.3	59.2	20.4	100.0 (49)	2.0
농촌(군)	1.7	11.9	54.2	32.2	100.0 (59)	1.8

주: 1) 평균점수는 매우 적극적=4, 적극적=3, 소극적=2, 매우 소극적=1을 부여한 후 산출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지방자치단체에서 2006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업에의 지역사회자원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37.1%, 복지시설 19.9%, 언론기관 7.7%, 여성단체 4.5% 순이었으며, 기업의 참여정도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참여자원의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이 높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복지시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군 지역에서는 참여자원 중 언론기관이 18.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참여자원 중 의료기관이 51.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22.6% 순이었다.

〈표 3-8〉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참여 지역사회 자원
(단위: %, 회)

구분	기업	의료기관	언론기관	여성단체	복지시설	의료·언론·여성	기타	계	
전국	0.5	37.1	7.7	4.5	19.9	0.9	29.4	100.0	(221)
광역자치단체	0.0	51.6	0.0	3.2	22.6	0.0	22.6	100.0	(31)
기초자치단체	0.5	34.7	8.9	4.7	19.5	1.1	30.5	100.0	(190)
대도시(구)	1.8	45.5	7.3	5.5	10.9	3.6	25.5	100.0	(55)
중소도시(시)	0.0	33.3	4.6	3.4	26.4	0.0	32.2	100.0	(87)
농촌(군)	0.0	25.0	18.8	6.3	16.7	0.0	33.3	100.0	(4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조사를 완료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6.3%, 기초자치단체 중 1.3%만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로는 군 지역에서 3.4%가 관련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였을 뿐, 구와 시 지역에서 그러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표 3-9〉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민관협의회' 구성 여부

(단위: %, 지자체)

구 분	구성	비구성	계(지자체)	
전국	1.7	98.3	100.0	(172)
광역자치단체	6.3	93.8	100.0	(16)
기초자치단체	1.3	98.7	100.0	(156)
대도시(구)	-	100.0	100.0	(49)
중소도시(시)	-	100.0	100.0	(48)
농촌(군)	3.4	96.6	100.0	(5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지역사회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평균 1.5회, 2006년도에 평균 1.9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5년도 평균 1.1회, 2006년도에 평균 1.5회로 기초자치단체의 1.6회와 1.9회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로는 2005년과 2006년 모두 시, 군, 구 순으로 교육·홍보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역사회자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전혀 실시한 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도에 81.1%(광역자치단체 93.8%, 기초자치단체 79.9%), 2006년도에 64.6%(광역자치단체 62.5%, 기초자치단체 64.8%)로 나타났다.

〈표 3-10〉 지역사회자원대상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적, 2005~2006
(단위: %, 지자체)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전체)	평균회수
2005년도	81.1	4.6	4.6	3.4	1.7	4.6	100.0 (175)	1.5
광역자치단체	93.8	-	6.3	-	-	-	100.0 (16)	1.1
기초자치단체	79.9	5.0	4.4	3.8	1.9	5.0	100.0 (159)	1.6
대도시(구)	92.2	-	-	2.0	3.9	2.0	100.0 (51)	1.3
중소도시(시)	70.0	8.0	12.0	2.0	2.0	6.0	100.0 (50)	1.8
농촌(군)	77.6	6.9	1.7	6.9	-	6.9	100.0 (58)	1.7
2006년도	64.6	13.1	7.4	4.6	1.7	8.6	100.0 (175)	1.9
광역자치단체	62.5	31.3	-	6.3	-	-	100.0 (16)	1.5
기초자치단체	64.8	11.3	8.2	4.4	1.9	9.4	100.0 (159)	1.9
대도시(구)	70.6	11.8	3.9	-	3.9	9.8	100.0 (51)	1.8
중소도시(시)	58.0	12.0	10.0	8.0	-	12.0	100.0 (50)	2.2
농촌(군)	65.5	10.3	10.3	5.2	1.7	6.9	100.0 (58)	1.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4.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전 인터뷰 결과

동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위해 2007년 5월 21일부터 24일 동안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방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할인 우대 카드 발급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역의 여성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역 소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지역자원 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사회 단체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이러한 단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요자의 불만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추진하고자하는 지자체 정책의 목적 및 방향성이 지역사회단체의 성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하여 사업을 펼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할인카드 제공과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저출산 관련 지방 정부의 예산 증대,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단체 상호간의 협력 증대, 지역사회단체 및 기구들의 전문성 확보, 시민들의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이다.

〈표 3-11〉 주요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례

지자체	주요 사업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I plus 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이용시 각종 할인혜택 부여 (경기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 양육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다자녀 가정이 우대 받는 범사회적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영상물 제작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노총과 협력: 자료 제공, 근로자·기업체 촬영 협조, 기업체 홍보 게재 - 근로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파급 영향과 지원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개인적인 인식변화와 출산 우호적 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 기타 계획 중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농촌국제여성 방문도우미 사업 계획 - 여성 단체와 협약하여 결혼상담소 운영 계획
대전광역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및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 간호협회와 협력하여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우량아 선발대회 개최 · 초중고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

지자체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대상 학교폭력예방근절 교육 실시 · 학부모 등 민간위원과 연계하여 안전한 학교 추진 위원단 구성
대구광역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와 협약하여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하여 육아 홈페이지 '아기사랑' 운영 · '대구맘' 자생 시민 사이트를 활용하여 육아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랑카드 전원에 할인(5~50%) 혜택 제공 우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혜택 제공(LG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소아암 무료가입, 연회비 평생면제,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시 적립 등 · 2007년 셋째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부산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에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금반지 1돈 증정 · 2007년 임신·출산세대 차량구입비 할인(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차량 구매시 세대당 10~50만원 할인 ※ 첫째아 임신·출산세대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이상 50만원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가정 프로축구 무료관람(부산 아이파크) · 다산다복운동 전개(한국증권선물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다복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다산다복의 밤, 초등학교 졸업식 다산다복가정상 시상 지원 등

제3절 일본의 지역사회자원 활용 사례

1.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일본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은 그 기본 방향으로 가정에서 육아를 지지하기 위해, 나라, 지방공공단체, 지역, 기업, 학교, 사회 교육 시설, 아동 복지시설, 의료 기관 등 모든 사회의 구성 멤버가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아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 사회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가족화의 진행에 수반해, 육아의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모자 보건의료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 위원 등 자원봉사와의 협력 하에서 지역 육아 네트워크 만들기를 추진한다.

둘째, 육아에 수반하는 가정의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유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단체의 제 활동, 문화·스포츠 활동 등의 추진을 통한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에 있어 아이·고령자와의 만남, 자원봉사 체험 등을 통해서 아이가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가정이나 사회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표 3-12〉 일본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의 중점 시책

중점 시책	주요 내용
보육 시스템의 다양화·탄력화 촉진	- 탁아소 제도의 개선·재검토를 포함한 보육 시스템의 다양화·탄력화 - 재택 보육 서비스의 육성·진흥 도모
저연령아 보육, 연장 보육, 일시적 보육 사업의 확충	- 저연령아 수락범위의 확대 - 육아 휴업 제도의 정착 · 여성 취업의 증가 등에 수반해 입소 희망이 증대한다고 전망되는 0세아로부터 2세아까지의 저연령아에게 대해서, 입소를 필요로 하는 저연령아를 탁아소에 받아들여지도록 함 - 연장 보육의 확충 · 통상의 보육 시간(대개 오후 6시까지)을 넘어 보육 시간의 연장을 실시하는 탁아소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정비함 - 일시적 보육 사업의 확충 · 모친이 아플 때 혹은 일의 사정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때 긴급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함
탁아소의 다기능화를 위한 정비	- 연장 보육, 유아 보육, 상담 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모 배치의 충실 등을 도모함 - 탁아소가 지역 육아 지원의 중심적인 기능을 완수해 유아 보육, 상담 지도, 육아 써클 지원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의 정비를 도모함
방과후 아동 대책의 충실	- 낮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주로 1년부터 3년)을 대상 - 아동관, 아동 센터, 학교의 여유 교실 등 건전 육성을 실시하는 방과후 아동 클럽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지역 모자 보건의료 체제의	- 모자 보건 서비스를 주민에게 친밀한 시읍면으로부터 일관해서 받도록 하는 등 모자 보건의료 체제 정비

중점 시책	주요 내용
정비	- 임산부나 유아의 건강 진단, 신생아 방문 지도나 보건 지도 포함 - 주산기, 신생아 의료의 충실을 위한 시설·설비의 정비
유아 건강 지원 데이서비스 사업 추진	- 보호자에 의한 가정에서의 육아가 곤란한 병 회복 시 아동 대상 - 가까이에서 데이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함
지역 육아 지원 센터의 정비	- 육아 상담, 보육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의 육아 씨클 운영 - 육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탁아소등에 지역 육아 지원 센터를 정비함
지방 자치체에서의 대응	- 계획적인 육아 지원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대응한 시 - 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진행

2. 긴급 보육 대책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등에 수반하는 보육 수요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보육 대책 등의 기본적 골조를 책정해,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저연령아(0~2세아) 보육, 연장 보육, 일시적 보육의 확충 등 요구가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탁아소 제도의 개선 및 재검토를 포함한 보육 시스템의 다양화와 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탁아소가 유아 보육, 상담 지도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의 개선·정비를 도모한다. 셋째, 저연령아의 보육 시설 입소 촉진 및 보육 시설 개소 시간 연장의 촉진을 위해 탁아소의 인적인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유아나 제3자 이상의 보육료의 경감을 도모한다. 넷째, 핵가족화의 진행에 수반해, 육아의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부르지 않도록 지역 육아 네트워크 만들기를 추진한다.

헤세이 7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저연령아 보육의 촉진, 개소 시간 연장의 촉진, 다기능 탁아소의 정비 등에 대해 공비 약 250억엔(집국비 약 125억엔)의 재원을 조차하는 것으로 하였다. 탁아소의 다기능화를 위하여 다기능화 탁아소의 정비(1,500곳)를 추진하였으며, 유아 보육, 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탁아소의 인적인 충실을 도모하였다. 육아 지원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 육아 지원 센터 3,000곳을 설립하였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보육 대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육아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소자화대책·육아지원 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통해 각 단체의 제휴에 의한 육아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회, 어린이회, 육아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케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지역의 육아지원 사업에 정통한 ‘지역 코디네이트’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각 기관이나 지역 주민과 제휴를 취하면서 ‘케어 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NPO 법인과의 제휴에 의한 가정교육 지원을 통해 육아 살롱, 엄마와의 대화타임, 육아 정보지의 작성, 페스티벌, 육아 써포트 양성 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어드벤처 플레이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 대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의 플레이 리더(놀이의 지도자)와 협동해 체험형의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프 플랜 어드바이스 강연회 개최를 통해 고교생에 대해서 결혼, 육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체험 놀이터정비 사업은 공터나 유휴지를 활용해, 체험형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이의 놀이 장소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의 성장과 힘의 육성, 지역에서의 아이와의 관계나 환경 정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보육원에 보육 키퍼(고령자에 의한 보육 보조원)를 두어, 아동과 노인의 접촉을 통해 예의범절 및 배려를 기르는 교육을 추진한다. 아동 만남 교류 촉진 사업은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과의 만남, 공감능력 향상 등 장애의 육아에 대한 예비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육아 불안으로부터 오는 학대 등의 방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보육마마제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는 보육원과 유치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보육마마제도’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보육 형태로 동네에서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와 같은 형태이다. 보육마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 조례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복지원’, ‘휴우간사토오야(晝間里親)’로 불리고 있는데,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 아이돌보기를 조금은 체계화하고 형식화하여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전직 보육사, 간호사 등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신청, 심사를 하여 보육마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육원 신청을 하였지만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해진 대기자 혹은 시설보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육마마를 소개한다. 기본적인 비용은 보육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안정감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

보육마마의 자격은 보육사, 교사, 조산원,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연수를 받은 사람들로서 거주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혼자서 3인까지의 아동을 돌봐 줄 수 있다. 보육마마의 비용으로 보육 마마는 아동 1인당 월 10만엔 내외의 보육료를 받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 1인당 지자체에서 8만엔 내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개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이때 기저귀, 분유대 등 실소요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동경도는 2001년에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일본 전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30여 곳이며, 2004년 6월 1일 현재 동경도내에는 모두 628인의 보육마마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1,176인이다. 그러나 보육마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로워서 구청 별로 등록된 보육 마마는 1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아이의 옷

이나 음식 등은 부모가 매일 아침 준비해서 가야하고, 시간도 사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녁 6시 정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관계로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형태의 육아가 가능하고 또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서 보육 마마의 수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전직 간호사나 보육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마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구청에서 조직적인 홍보활동과 권유도 하고 있다.

5. 지역 육아 지원 센터 사업

지역 전체로 육아를 지원하는 기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 가정 지원 활동을 기획, 조정, 실시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역 사회에 배치해 육아 가정에 대해 육아 불안 지도, 육아 씨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의 사업내용은 육아 불안 등에 대한 상담 지도, 육아 씨클 등의 육성·지원, 특별 보육 사업 등의 적극적 실시 및 보급 촉진, 보모 등 지역의 보육 자원 정보 제공, 가정적 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역 육아 지원 센터는 헤세이 5년도에 사업이 창설되어 신엔젤 플랜 등에 근거해 개소수를 늘려온 결과, 헤세이 15년도(2003년)에는 전국, 약 2,50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 탁아소와 인접한 지원센터



치바시에서 지역 육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치바시 주변에는 신혼 주택지가 급속히 퍼지는 것과 동시에, 육아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당 탁아소에서는 지역의 원장과 함께, 공민관 등에서 육아 강좌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서 센터의 아이들이 탁아소 아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하는 등 탁아소와 융합한 이른바 ‘육아의 종합 시설’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3] 센터에 오는 아이들과 탁아소에 오는 아이들 함께 활동



당 센터를 이용할 때는, 카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오전중의 9시부터 12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며, 오후의 이용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이다. 보육사 2명이 중심이 되어, 리듬 체조, 에이프런 씨어터, 그림책 읽어 주기, 미니 육아 강좌 등 날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 센터 등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도 임하고 있다.

6. 육아지원 가정 방문사업

가정 방문 등 적극적인 접근 방문형 방식인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 지원 가정 방문사업을 통하여 육아·가사의 원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가정에게 안정된 양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 동 사

업의 실시주체는 시·읍·면(특별구 포함)이며, 다만 적절한 사업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또는 민간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 대상 가정은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육아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육아에 불안이나 고립감 등을 안고 있는 가정(임신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포함), 가정 양육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아동 양호 시설 등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추후 서비스와 케어가 필요한 가정, 아이의 심신 발달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정신, 운동, 발달 등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산육기의 모자에 대한 육아지도, 간단한 가사 등의 원조, 미숙아나 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부모에 대한 육아 지도 및 영양 지도, 양육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진 상태에 대한 상담·지도를 포함한다.

시·읍·면이 지정한 사업의 기관(보건센터, 아동복지 주관과 등)에 사업주체를 두고, 방문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제 가정 방문을 통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방문 지원은 시·읍·면이 직접 실시하는 것 외에 시읍면에서 위탁을 받아 특정비영리활동 법인이나 헬퍼 파견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다만, 시·읍·면이 이용 형태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7. 지역사회 독자적인 모델 사례

〈표 3-13〉 지역사회 독자적 모델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지역의 3층 구조에 의한 육아지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적인 육아지원 제공 · 주민조직, 사회복지협의회, 육아 NPO 등과 협동형의 ‘육아살롱’을 초등학교 설치 · 구 단위에 상설의 ‘구 육아·아이 성장지원센터’ 설치 · 전시적인 육아지원의 거점 시설로서 ‘육아지원종합센터’를 개설 · 지역·구·전시의 3층 구조에 의한 육아지원체제 만들기 진행
‘육아 도움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육아 지원 사업의 자원봉사 활동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 강좌 실시
카나자와시 교육 플라자 토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와 교육분야의 제휴 도모 · 유아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의 건전 육성을 일관해서 추진 · 거점 시설인 교육 플라자 토가시를 연중무휴 운영 · 야간 21시까지 개설해, 아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담, 지원, 연수 등을 일원적으로 실시
‘육아 도움대’파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육아 세대·아동의 3세대 교류를 촉진 · 육아 불안의 해소나 육아 가정의 고립 방지 도모 · 공모 또는 관계 단체로부터의 추천에 의해 육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등록 · ‘도움대’를 편성해 요청에 따라 파견
마터니티·플라네타룸 (나가노현 사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의 여성을 위한 서비스 · 조산사에 의한 출산 어드바이스 · 유아에게 접하는 방법 등 보건사, 보육사에 의한 육아 어드바이스 제공
마마 스태프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이 빈 부모가 스태프로서 활동하는 ‘마마 스태프’를 도입하여 차세대 육아지원자 육성을 도모 · 육아 중의 부모가 모일 때 ‘마마 플라자’에 1명의 부모가 다른 아이를 돌봄
아버지를 위한 토요일·일요일 육아 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육아 부담감 경감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 촉진 도모
육아 응원·지원단 요리 배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로서 육아 지원을 희망하는 보육사, 보건사, 영양사 등의 유격자, 육아 경험자 등을 ‘육아 응원·지원 단원’으로서 등록 · 아동관이나 육아 씨클, 시민 그룹 등의 의뢰에 따라 파견
IT 활용한 모자 가정의 취업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전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정비 · 모자 가정의 모친이 자택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PC 대여와 취업 알선을 실시

제 4장 지역사회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제 1 절 조사 개요

1. 분석 대상 서비스 및 지역 사회 자원

동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상 조사 대상 지역사회자원으로 공공자원 보다는 민간자원 위주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민간자원은 영리부문, 비영리부문, 비공식부문 자원을 포함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자원 유형을 정의함에 있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민간 자원으로 간주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세부 사업들은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영유아 모성 보건 증진, 여성의 노동시장 지원, 가족 생활 및 사회 교육,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의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5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제3장에서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인터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들을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표에 제시된 서비스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며, 본 연구 대상의 지역 사회 자원은 앞서 살펴본 출산 양육 관련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중 본 연구 대상의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8) 동 협동 연구의 제2세부과제와 제3세부과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연구에서는 기업이 사업의 주체로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 4-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서비스

분야	주제
모성 보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육아 인프라 확충	·영유아 (학령전 아동)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일가정 양립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표 4-2〉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사회 자원

구분	세부공급주체	조사대상	비고
공공	구청·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자원은 동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보건소(보건분소, 주민건강센터) 자원봉사센터		
민간 비영리	어린이집·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은 공공자원에 해당)	- 육아지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방과후 교실 ·보육 도우미	
	방과후 전담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이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 여성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동청소년단체	
	재단 등 기타		
	교육기관(대학교)부속상담소	-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 조사대상에서 제외	의료 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함	
사설 상담소	- 상담 기관		
학원	- 각종 학원		
민간 영리	사설 산후조리원	- 산후 조리원	
	민간어린이집(보육시설)	- 육아지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방과후 교실 ·보육 도우미	
	가정어린이집(보육시설)		
기업	- 조사대상에서 제외	연구의 범위 상 제외	
민간 비공식	부녀회	- 부녀회	
	친인척, 지인 등 개인적 관계망 자원		
	종교단체 등	-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	
직능단체 등	- 직업 훈련 기관		

2. 조사 지역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여 총 3개의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 충족 현황과 자원 현황 차이를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의 경우 전국의 87개 군을 대상으로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택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전국의 76개 시 중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해당하는 강원도 강릉시를 선택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7개 광역시에 속한 67개 구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중위수 상하위 약 5%에 해당하는 지역 중 서울에 속하는 구인 성동구를 선정하였다.

〈표 4-3〉 조사 지역 선정에 사용한 기혼가임여성 통계 자료

(단위: 명)

구분	샘플수(개)	중위수	최대치	최소치	선정지역
대도시 (구)	67	58,512	113,290	6,147	54,535(서울시 성동구)
중소도시 (시)	76	36,222	175,202	7,045	36,506(강원도 강릉시)
농촌 (군)	87	5,744	1,276	30,854	5,744(경상남도 하동군)

자료: 통계청(2006).

조사 대상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합계 출산율의 경우 강릉시와 하동군은 각각 1.09와 1.10으로 2005년 전국 합계출산율 1.08과 유사하나, 서울 성동구의 경우 1.02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강릉시의 경우 강원도에 있는 중소도시의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의 경우도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군의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에 속해 있는 구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4〉 조사 대상 지역의 인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성동구	강릉시	하동군
인구	전체	324,986	220,706	45,234
	남자	162,485	109,562	21,414
	여자	162,501	111,144	23,820
20~30대	20~29세	5,820(19.0)	3,643(19.9)	506(18.5)
가임여성	30~39세	24,766(81.0)	14,701(80.1)	2,223(81.5)
인구수	계	30,586(100.0)	18,344(100.0)	2,729(100.0)
TFR		1.02	1.09	1.10

자료: 통계청(2006).

〈표 4-5〉 재정 자립도

단체별	합계	일반+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자립도(%)
		소계(A)	일반	기타		
합계	20,430,028	19,478,028	14,973,472	4,504,556	952,000	94.3
시분청	15,160,000	14,208,000	10,203,000	4,005,000	952,000	93.3
자치구계	5,270,028	5,270,028	4,770,472	499,556	-	53.1
성동구	178,782	178,782	161,872	16,910	-	40.7
합계	6,634,812	6,113,717	5,608,855	504,863	521,095	26.7
도분청	2,380,289	2,195,940	2,063,300	132,640	184,349	21.8
시계	2,253,871	1,972,504	1,795,684	176,820	281,367	25.8
강릉시	420,067	360,607	343,696	16,911	59,460	26.5
합계	10,287,604	9,448,715	8,446,443	1,002,272	838,888	38.8
도분청	3,872,592	3,550,767	3,228,823	321,944	321,826	31.4
군계	1,977,853	1,946,472	1,739,151	207,321	31,381	15.3
하동군	201,243	201,243	186,928	14,316	-	15.3

자료: <http://lofin.mogaha.go.kr>.

수요자 조사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0~30대 기혼 여성으로 하였으며 조사 규모는 각 지역 당 250명으로 하였다. 각 조사 대상 지역의 샘플 할당 비율은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적용하였다. 2005년도 인구센서스는 통계치를 기초자치단체별까지는 제공하지 않아서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 강릉시의 경우 강원도, 하동군의 경우 경상남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의 연령, 취업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양육 관련 서비

스 이용 및 욕구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변수를 샘플 할당 비율로 활용하였다.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의 20~30대 기혼 여성의 연령별, 취업여부별, 자녀수별에 따른 인구 분포는 <표 4-6> 와 같다.

<표 4-6> 조사 대상 지역의 자녀수·취업유무별 기혼 여성 수

(단위: 명)

	서울시	전체여성	기혼여성	자녀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샘플계
20대	취업	490,405	68,156	43,127	19,554	4,571	258	24,383
	비취업	435,565	85,768	28,068	39,457	16,570	1,212	57,239
30대	취업	419,514	289,296	45,261	90,851	137,385	15,258	243,494
	비취업	454,987	400,737	32,199	113,193	224,706	30,012	367,911
강원도								
20대	취업	40,450	9,141	3,843	3,349	1,781	168	5,298
	비취업	50,558	17,570	4,090	7,823	5,108	549	13,480
30대	취업	52,107	45,045	3,233	9,870	27,135	4,795	41,800
	비취업	57,326	53,183	3,711	11,646	31,182	6,621	49,449
경상남도								
20대	취업	91,951	18,484	9,556	5,970	2,587	326	8,883
	비취업	98,136	40,121	10,107	18,647	10,514	840	30,001
30대	취업	116,586	101,557	6,851	19,827	64,556	10,295	94,678
	비취업	144,444	136,109	8,241	29,412	84,672	13,741	127,825

자료: 통계청(2006).

이러한 인구 분포를 적용하여 각 지역별 샘플 할당 비율을 <표 4-7>와 같이 산출하였다. 연령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30대가 88.0%, 20대가 1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30대가 80.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20대가 15.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서울에 비해 30대 비율이 조금 낮고 20대 비율이 조금 높다. 자녀 수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1자녀를 가진 여성이 38.0%, 2자녀 이상을 가진 여성이 62.0%인 반면,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1자녀를 가진 여성이 약 30.0%, 2자녀 이상을 가진 여성이 약 70.0%로서 서울에 비해 2자녀 이상을 가진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비율은 취업여성이 약 40.0%, 비취업 여성이

60.0%로 세 지역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샘플 할당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별 조사 대상수는 <표 4-8>과 같다

<표 4-7> 지역별 수요자 조사 대상 적용 비율

서울시 성동구		1자녀	2자녀 이상	소계	연령별계	총계	
20대	취업	0.028	0.007	0.035	0.118	1.000	
	비취업	0.057	0.026	0.083			
30대	취업	0.131	0.220	0.351	0.882		
	비취업	0.163	0.368	0.531			
강원도 강릉시		1자녀	2자녀	소계	연령별계		총계
20대	취업	0.030	0.018	0.048	0.171		1.000
	비취업	0.071	0.051	0.123			
30대	취업	0.090	0.290	0.380	0.829		
	비취업	0.106	0.344	0.449			
경남 하동군		1자녀	2자녀	소계	연령별계	총계	
20대	취업	0.023	0.011	0.034	0.149	1.000	
	비취업	0.071	0.043	0.115			
30대	취업	0.076	0.286	0.362	0.851		
	비취업	0.113	0.377	0.489			

<표 4-8> 지역별 수요자 조사 대상 수

(단위: 명)

서울시 성동구		1자녀	2자녀 이상	소계	연령별 계	총계	
20대	취업	7	2	9	29	250	
	비취업	14	6	20			
30대	취업	33	55	88	221		
	비취업	41	92	133			
강원도 강릉시		1자녀	2자녀 이상	소계	연령별 계		총계
20대	취업	8	4	12	43		250
	비취업	18	13	31			
30대	취업	22	73	95	207		
	비취업	26	86	112			
경남 하동군		1자녀	2자녀 이상	소계	연령별 계	총계	
20대	취업	5	3	8	37	250	
	비취업	18	11	29			
30대	취업	19	72	91	213		
	비취업	28	94	122			

조사 대상 지역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전화번호부 (성동구 (2004~2005), 강릉시(2002~2003), 하동군(2002~2003),)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2007), 지자체 해당 부서의 자료,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현황(2006)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전화번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자료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비교적 광범위한 기관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부 상에 나와 있는 기관이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 자료 연도가 오래되어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의 8대 서비스에 관한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개요를 담고 있어 각 기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안내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어 민간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민간영리자원 및 비공식자원에 대한 정보도 극히 미약하게 기재되어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지역에 존재하는 시설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각 자료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 네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조사 대상 지역의 자원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단, 자원 현황 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전화번호부 자료 보다는 공식적인 자료인 지자체 자료 혹은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의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자체자료,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 행정자치부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동 자료가 제공하지 않는(특히 민간영리자원의 경우) 정보는 전화번호부에서 얻고자 한다.

3. 조사 내용 및 방법

수요자 욕구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정보 제공,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용부담, 서비스 질,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주로 어느 기관 혹은 어떤 사람(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에게서 받고 있는가 질문한 후, 수요자의 정보 원천을 파악하고자 그 기관에 대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가 질문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주된 이유를 신뢰성, 접근성, 신속성, 전문성, 평판, 비용 측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관이 위치한 곳과 이동시간을 질문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용 부담, 서비스의 질, 그리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자신이 받기 원하는 곳에서 받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를 받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기관과 다른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시급한 사항을 서비스 기관 수의 확충, 질의 향상, 비용의 저렴화, 정보 제공 강화,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이용 시간의 다양화 측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수요자 욕구에 차이가 나는가 알아보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 자녀 수와 연령, 자녀의 성별, 결혼 상태,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 친정 혹은 시댁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족 수를 질문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본인 및 남편의 취업상태, 주당

근무 시간,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본인과 남편의 개인 소득, 주거 형태,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수요자 욕구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2일 동안 훈련된 조사원이 각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 하도록 하였다.

<표 4-9> 수요자 욕구 조사 개요

구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① 이웃,친구 ② 친인척 ③ 보건소 ④ 병원 ⑤ 산후조리원 ⑥ 상담기관 ⑦ 여성단체 ⑧ 아동·청소년단체 ⑨ 사회복지기관 ⑩ 대중매체 ⑪ 부녀회 ⑫ 종교단체 ⑬ 기타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인척 ④ 유치원 ⑤ 어린이집(놀이방) ⑥ 학원 ⑦ 방과후교실 ⑧ 보육도우미 ⑨ 기타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인척 ④ 지역아동센터 ⑤ 어린이집 ⑥ 학원 ⑦ 방과후교실 ⑧ 보육도우미 ⑨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 친구 ③ 육아지원시설 ④ 전문 상담기관 ⑤ 여성단체 ⑥ 아동청소년단체 ⑦ 사회복지기관 ⑧ 대중매체 ⑨ 종교단체 ⑩ 부녀회 ⑪ 기타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직업훈련기관 ④ 사회복지기관 ⑤ 종교단체 ⑥ 일반기업체 ⑦ 기타
정보를 얻은 곳	① 이웃,친구 ② 친인척 ③ 보건소 ④ 병원 ⑤ 산후조리원 ⑥ 상담기관 ⑦ 여성단체 ⑧ 아동·청소년단체 ⑨ 사회복지기관 ⑩ 대중매체 ⑪ 부녀회 ⑫ 종교단체 ⑬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 친구 ③ 대중매체 ④ 공공기관 ⑤ 각종단체 ⑥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 친구 ③ 대중매체 ④ 공공기관 ⑤ 각종단체 ⑥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 친구 ③ 대중매체 ④ 공공기관 ⑤ 각종단체 ⑥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 친구 ③ 대중매체 ④ 공공기관 ⑤ 각종단체 ⑥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은 주된 이유	①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서 ③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⑤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②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④ 전문성이 있어서 ⑥ 비용이 저렴해서 ⑦ 기타		
기관의 위치	① 같은 읍면동 ③ 같은 광역시 혹은 도 내 다른 시군구 ⑤ 기타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④ 다른 광역시 혹은 도		
이동시간	① 10분이하 ④ 30분초과-40분이하 ⑦ 1시간초과		② 10분초과-20분이하 ⑤ 40분초과-50분이하 ⑧ 기타		③ 20분초과-30분이하 ⑥ 50분초과-1시간이하
비용부담	①매우저렴 ②저렴한편 ③보통 ④비싼편 ⑤매우비쌘				
서비스 질	①매우좋다 ②좋은편 ③보통 ④나쁜편 ⑤매우나쁨				
만족도	①매우만족 ②만족한편 ③보통 ④불만족한편 ⑤매우불만족				

만족/불만족 이유	①안심하고믿을수있어서/없어서 ③원하는시간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어서/없어서 ⑤비용이저렴해서/비싸서		②집과가까운/먼거리에있어서 ④전문성있어서/없어서 ⑥ 기타		
서비스 받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	① 이웃,친구 ② 친인척 ③ 보건소 ④ 병원 ⑤ 산후조리원 ⑥ 상담기관 ⑦ 여성단체 ⑧ 아동·청소년단체 ⑨ 사회복지기관 ⑩ 대중매체 ⑪ 부녀회 ⑫ 종교단체 ⑬ 기타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인척 ④ 유치원 ⑤ 어란(집놀이방) ⑥ 학원 ⑦ 방과후교실 ⑧ 보육도우미 ⑨ 기타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인척 ④ 지역아동센터 ⑤ 어란이집 ⑥ 학원 ⑦ 방과후교실 ⑧ 보육도우미 ⑨ 기타	① 친인척 ② 이웃사람,친구 ③ 육아지원시설 ④ 전문 상담기관 ⑤ 여성단체 ⑥ 아동청소년단체 ⑦ 사회복지기관 ⑧ 대중매체 ⑨ 종교단체 ⑩ 부녀회 ⑪ 기타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직업훈련기관 ④ 사회복지기관 ⑤ 종교단체 ⑥ 일반기업체 ⑦ 기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① 서비스를제공하지않기때문 ② 정보를몰라서 ③ 비용이과도해서 ④ 거리가멀어서 ⑤ 정원이마감되었기 때문에 ⑥ 이용시간이맞지않아서 ⑦ 기타				
지역사회에서 시급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기관수의확충 ③ 서비스비용지원을통한본인부담감면 ⑤ 서비스종류의다양화		② 서비스질의향상 ④ 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강화 ⑥ 서비스이용시간의다양화 ⑦ 기타		
인구학적특성	자녀(연령, 성별, 교육상태), 본인 및 남편의 연령, 혼인상태, 친정, 시댁부모와의 동거여부, 종교				
소득수준	본인 및 남편의 취업상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학력, 월 평균개인소득, 본인 및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자원 현황 조사는 양적분석 방법과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지역에서 시설의 개소수 및 위치 등 자원의 물리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시설의 프로그램, 주요 활동,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각 조사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개소수는 지역별 전화번호부 자료,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 지자체 해당부서 자료, 행정 자치부의 민간단체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자원 현황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파악하였다. 기관의 위치 분석은 mapping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기관들이 조사 대상 지역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시설의 프로그램 내용 및 주요 활동 조사는 각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 및 연구진의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지역 자원 현황 리스트

에 나와 있는 기관 중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상자, 이용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인터넷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는 시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였다. 한편, 인터넷 검색으로 한계가 있는 보다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표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연구진이 각 조사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수요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성, 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집중 조사 하였다.

〈표 4-10〉 자원 조사 개요

구분	분석 방법	분석 내용
자원의 물리적 현황 조사 (양적분석)	· 전화번호부자료, 주민생활서비스자료, 지자체자료 행정자치부자료 활용 · mapping 분석	· 각 지역에 존재하는 시설 개소 수 · 지역에서의 시설 위치 분포
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 조사 (질적분석)	· 인터넷 사이트 검색 ※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한정하여 조사 · 연구진의 직접 방문을 통한 심층 면접 ※ 대표적인 시설을 선택하여 방문	· 프로그램 대상자 · 이용 시간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 ·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내용 ·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 · 애로사항, 문제점, 개선방향 등

제 2 절 지역사회 수요자 욕구 분석 결과

1.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하여 주로 받은 서비스는 세 지역 모두 산후 조리 서비스와 정보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은 비율과 정보 제공을 받은 비율이 각각 37.2%로 동일하였으나, 강릉시의 경우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가 50.4%로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31.2% 보다 높았다. 하동군의 경우는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61.6%로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35.6%보다 높았다. 산전후건강증진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는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하동군의 경우 전체 여성의 2.0%에 지나지 않았다. 양육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가 10.8%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여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강릉시와 하동군의 경우는 각각 5.2%, 0.8%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혹은 기관은 세 지역 모두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농촌 지역인 하동군이 (60.4%) 대도시 지역 성동구(43.6%)와 중소도시 지역 강릉시(45.2%)에 비해 높았다. 친인척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병원 (각각 22.8%, 28.0%)으로 나타난 반면, 하동군의 경우는 이웃·친구(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비공식자원인 친인척과 영리자원인 병원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하동군의 경우는 비공식자원인 친인척과 이웃·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중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산후 조리 서비스는 세 지역 모두 산후 조리원 보다 친인척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역시 여성들이 많이 받았다고 응답함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은 서울 성동구와 강릉시가 주로 영리자원인 병원을 통해 받고 있는 반면, 하동군은 대다수 비공식 자원인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을 통해서 받고 있었다. 따라서 세 지역 모두 여성들이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친인척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산후 조리 서비스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인 병원을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동군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여전히 비공식자원인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얻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 지역인 하동군이 도시 지역보다 비공식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표 4-11〉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93(37.2)	126(50.4)	89(35.6)
	주로 산후조리서비스	93(37.2)	78(31.2)	154(61.6)
	받은 양육관련교육 및 훈련	27(10.8)	13(5.2)	2(0.8)
	서비스 산전후건강증진서비스	37(14.8)	33(13.2)	5(2.0)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친인척	109(43.6)	113(45.2)	151(60.4)
	병원	57(22.8)	70(28.0)	17(6.8)
	주로 산후조리원	32(12.8)	25(10.0)	27(10.8)
	받은 곳 대중매체	21(8.4)	14(5.6)	10(4.0)
	이웃·친구	21(8.4)	15(6.0)	37(14.8)
기타	10(4.0)	13(5.2)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표 4-12〉 산후조리서비스와 정보제공을 주로 받은 곳

(단위: 명, %)

구분	산후조리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친인척	60(64.5)	60(76.9)	118(76.6)	26(28.0)	42(33.3)	31(34.8)
병원	4(4.3)	3(3.8)	8(5.2)	40(43.0)	47(37.3)	8(9.0)
이웃·친구	1(1.1)	1(1.3)	1(0.6)	8(8.6)	10(7.9)	36(40.4)
산후조리원	22(23.7)	12(15.4)	25(16.2)	3(3.2)	6(4.8)	1(1.1)
기타	6(6.5)	2(2.6)	2(1.3)	16(17.2)	21(16.7)	13(14.6)
계	93(100.0)	78(100.0)	154(100.0)	93(100.0)	126(100.0)	89(100.0)

미취학 자녀의 낮 시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 육아지원시설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와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응답자의 50.0% 이상이, 하동군의 경우 45.0% 이상이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있다고 응답하여,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하동군에 비해 영유아 보육을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본인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하동군이 47.9%로, 서울 성동구 39.5%, 강릉시 35.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 중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서울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이 6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강릉시의 경우는 48.8%에 불과하였다. 강릉시의 경우, 취업 여성이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 보다 높아 이로 인해 취업 여성의 육아 지원 시설 이용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취업 여성이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각각 47.3%와 48.4%로,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인 50.9%와 50.5%와 서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하동군의 경우 미취업 여성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62.2%로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비율 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취업 여성의 보육 시설 이용 비율은 높았지만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를 스스로 돌보고 있는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육아지원시설 중 유치원에 맡기는 비율은 대도시인 서울시 성동구가 강릉시와 하동군과 비교해 더 높았으며,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은 농촌 지역인 하동군이 도시 지역인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에 비해 높았다.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는 서울 성동구가 21.0%로 강릉시의 1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는 겨우 2.8%에 불과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은 하동군이 43.8%로 강릉시 30.6%, 성동구 25.3%보다 높았다.

〈표 4-13〉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영유아 보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본인	7(14.0)	57(50.9)	64(39.5)	5(9.3)	47(50.5)	52(35.4)	8(17.4)	61(62.2)	69(47.9)
유치원	13(26.0)	21(18.8)	34(21.0)	5(9.3)	18(19.4)	23(15.6)	2(4.3)	2(2.0)	4(2.8)
어린이집	18(36.0)	23(20.5)	41(25.3)	23(42.6)	22(23.7)	45(30.6)	28(60.9)	35(35.7)	63(43.8)
학원	3(6.0)	9(8.0)	12(7.4)	2(3.7)	5(5.4)	7(4.8)	-	-	-
친인척	6(12.0)	1(0.9)	7(4.3)	15(27.8)	0(0.0)	15(10.2)	8(17.4)	0(0.0)	8(5.6)
기타	3(6.0)	1(0.9)	4(2.5)	4(7.4)	1(1.1)	1(0.7)	0(0.0)	0(0.0)	0(0.0)
계	50(100.0)	112(100.0)	162(100.0)	54(100.0)	93(100.0)	147(100.0)	46(100.0)	98(100.0)	144(100.0)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은 70.0% 이상이 학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학원에 맡기는 비율은 취업 여성이 미취업 여성 보다 높았다. 그러나 하동군의 경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비율은 43.7%로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 46.0%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동군에서 취업 여성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는 38.2%로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 35.3%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 학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보다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취업 여성이라 할지라도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돕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자녀를 방과후에 직접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표 4-14〉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본인	4(9.5)	12(19.7)	16(15.5)	2(4.4)	19(31.1)	21(19.8)	12(35.3)	28(52.8)	40(46.0)
학원	35(83.3)	43(70.5)	78(75.7)	42(93.3)	40(65.6)	82(77.4)	13(38.2)	25(47.2)	38(43.7)
친인척	1(2.4)	0(0.0)	1(1.0)	1(2.2)	1(1.6)	2(1.9)	6(17.6)	0(0.0)	6(6.9)
방과후교실	1(2.4)	2(3.3)	3(2.9)	-	1(1.6)	1(0.9)	-	-	-
지역아동센터	-	3(4.9)	3(2.9)	-	-	-	-	-	-
기타	1(2.4)	1(1.6)	2(1.9)	-	-	-	3(8.8)	-	3(3.4)
계	42(100.0)	61(100.0)	103(100.0)	45(100.0)	61(100.0)	106(100.0)	34(100.0)	53(100.0)	87(100.0)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친인척이 방과후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전무한 반면, 하동군의 경우 취업여성의 17.6%가 자녀를 친인척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비공식적 자원인 친인척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있었던 반면에, 강릉시의 경우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동군의 경우는 방과후 교실 혹은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맡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은 세 지역 모두 거의 대부분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통한 상담 및 교육은 주로 인터넷 카페의 토론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상담은 상담 전문가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회원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비공식자원을 이용한 비전문적인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5〉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이웃·친구	152(60.8)	119(47.6)	150(60.0)
친인척	37(14.8)	32(12.8)	45(18.0)
대중매체	31(12.4)	83(33.2)	23(9.2)
육아지원시설	18(7.2)	6(2.4)	24(9.6)
기타	12(4.8)	10(4.0)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은 서울시 성동구 8명, 강릉시 43명, 하동군 7명에 불과했다. 이를 취업유무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시는 취업여성 5명, 미취업여성 3명, 강릉시는 취업여성 19명, 미취업여성 24명, 하동군은 취업여성 6명, 미취업여성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빈도가 매우 낮은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의 경우, 취업 여성이 미취업 여성보다 직업 훈련 및 교육을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강릉시의 경우,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비율은 취업 여성과 미취업 여성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

육을 받은 기관으로 주로 공공기관, 여성단체,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지적하였다.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세 지역 모두 취업 여성의 경우,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업 여성들은 이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응답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자녀 양육’ 이었던 반면, 하동군은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다.

〈표 4-16〉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계	250(100.0)	250(100.0)	250(100.0)
받은적 없음	242(96.8)	207(82.8)	243(97.2)
받은적 있음	8(3.2)	43(17.2)	7(2.8)
공공기관	3	16	2
여성단체	3	7	-
교육기관	1	11	4
사회복지기관	1	-	1
직업훈련기관	-	8	-
일반기업체	-	1	-

미취업 여성의 경우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세 지역 모두 자녀 양육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미취업 여성이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양육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동군의 경우, 도시 지역 보다 정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받을 필요가 없어서’를 지적한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하동군의 여성들이 도시지역 여성들과 비교하여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표 4-17〉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지역	구분	취업	비취업	소계	
서울시 성동구	받았음	5(5.2)	3(2.0)	8(3.2)	
	받지 않았음	92(94.8)	150(98.0)	242(96.8)	
		필요 없어서	55(59.8)	39(26.0)	94(38.8)
		자녀양육	18(19.6)	90(60.0)	108(44.6)
	받지 않은 이유	기관 없음	3(3.3)	5(3.3)	8(3.3)
		정보 모름	12(13.0)	14(9.3)	26(10.7)
		비용부담	4(4.3)	2(1.3)	6(2.5)
		소 계	97(100.0)	153(100.0)	250(100.0)
	강원도 강릉시	받았음	19(17.8)	24(16.8)	43(17.2)
		받지 않았음	88(82.2)	119(83.2)	207(82.8)
		필요 없어서	59(67.0)	32(26.9)	91(44.0)
		자녀양육	17(19.3)	76(63.9)	93(44.9)
받지 않은 이유		기관 없음	4(4.5)	2(1.7)	6(2.9)
		정보 모름	8(9.1)	9(7.6)	17(8.2)
		비용부담	-	-	-
		소 계	107(100.0)	143(100.0)	250(100.0)
경남 하동군		받았음	6(6.1)	1(0.7)	7(2.8)
		받지 않았음	93(93.9)	150(99.3)	243(97.2)
		필요 없어서	54(58.1)	55(36.7)	109(44.9)
		자녀양육	11(11.8)	64(42.7)	75(30.9)
	받지 않은 이유	기관 없음	9(9.7)	5(3.3)	14(5.8)
		정보 모름	19(20.4)	25(16.7)	44(18.1)
		비용부담	-	1(0.7)	1(0.4)
		소 계	99(100.0)	151(100.0)	250(100.0)

나. 정보를 제공 받는 곳

세 지역 모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친인척 혹은 이웃·친구로부터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 다음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

〈표 4-18〉 정보를 제공 받은 곳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친인척	152(60.8)	153(61.2)	158(63.2)
	이웃·친구	50(20.0)	62(24.8)	55(22.0)
	대중매체	23(9.2)	14(5.6)	7(2.8)
	병원	16(6.4)	15(6.0)	14(5.6)
	기타	9(3.6)	6(2.4)	16(6.4)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보육	이웃·친구	78(79.6)	67(71.3)	61(81.3)
	친인척	12(12.2)	25(26.6)	11(14.7)
	대중매체	5(5.1)	-	2(2.7)
	공공기관	2(2.0)	1(1.1)	1(1.3)
	기타	1(1.0)	1(1.1)	-
계	98(100.0)	94(100.0)	75(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이웃·친구	79(90.8)	73(85.9)	36(76.6)
	친인척	3(3.4)	8(9.4)	9(19.1)
	대중매체	3(3.4)	4(4.7)	-
	기타	2(2.3)	-	1(1.3)
계	87(100.0)	85(100.0)	4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이웃·친구	181(72.4)	134(53.6)	176(70.4)
	친인척	38(15.2)	34(13.6)	46(18.4)
	대중매체	30(12.0)	79(31.6)	23(9.2)
	기타	1(0.4)	3(1.2)	5(2.0)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이웃·친구	4(50.0)	12(27.9)	5(71.4)
	공공기관	2(25.0)	9(20.9)	-
	대중매체	1(12.5)	18(41.9)	1(14.3)
	각종단체	1(12.5)	3(7.0)	1(14.3)
계	8(100.0)	43(100.0)	7(100.0)	

하지만,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대중매체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스미디어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 등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 지역 모두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여성들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주변에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보다 탐색적인 정보 취득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도시 지역보다 낮아, 탐색적인 정보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접근성

세 지역 모두 주로 같은 읍면동이나 같은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 성동구와 강릉시와 비교하여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강릉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읍면동을 벗어난 시군구에 위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강릉시와 하동군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혹은 산후 조리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울 성동구는 같은 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같은 구에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는 같은 읍면동의 범위를 벗어나 강릉시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74.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는, 같은 읍면동을 벗어난 하동군,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시군구, 그리고 경상남도를 벗어난 다른 광역시 혹은 도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하동군이 진주시와 가깝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수의 여성들이 진주시까지 가서 병원 혹은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의 경우,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 하동군의 경우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읍면동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도 90.0%에 가까운 여성들이 같은 동네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릉시의 경우 거주지와 같은 읍면동을 벗어나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경우 48.0%,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 54.9%가 같은 읍면동을 벗어난 강릉시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은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의 경우 대다수가 같은 읍면동에 위치한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동군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같은 읍면동을 벗어난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웃·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하동군의 경우 고민을 이야기 할 이웃·친구가 같은 읍면동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경우, 같은 읍면동을 떠난 시군구까지 이웃·친구의 거주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빈도가 적어 지역별 비교가 어렵다. 다만, 그 빈도가 높은 강릉시의 경우를 볼 때,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강릉시 내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희박했다. 빈도는 낮지만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의 경우도 모두 같은 시군구 내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직업 훈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거주지와 접근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9〉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같은 읍면동	105(42.0)	61(24.4)	144(57.6)
	같은 시군구	110(44.0)	166(66.4)	31(12.4)
	같은광역시 혹은 도	21(8.4)	11(4.4)	32(12.8)
	다른광역시 혹은 도	10(4.0)	9(3.6)	43(17.2)
	기타	4(1.6)	3(1.2)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같은 읍면동	146(90.1)	97(66.0)	144(100.0)
	같은 시군구	14(8.6)	50(34.0)	-
	같은광역시 혹은 도	1(0.6)	-	-
	다른광역시 혹은 도	1(0.6)	-	-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같은 읍면동	89(86.4)	58(54.7)	85(97.7)
	같은 시군구	12(11.7)	48(45.3)	1(1.1)
	같은광역시 혹은 도	2(1.9)	-	1(1.1)
	다른광역시 혹은 도	-	-	-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같은 읍면동	179(71.6)	110(44.0)	220(88.0)
	같은 시군구	58(23.2)	87(34.8)	12(4.8)
	같은광역시 혹은 도	5(2.0)	1(0.4)	5(2.0)
	다른광역시 혹은 도	5(2.0)	8(3.2)	13(5.2)
	기타	3(1.2)	44(17.6) ⁹⁾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같은 읍면동	3(37.5)	13(30.2)	3(42.9)
	같은 시군구	5(62.5)	27(62.8)	4(57.1)
	같은광역시 혹은 도	-	2(4.7)	-
	다른광역시 혹은 도	-	1(2.3)	-
	계	8(100.0)	43(100.0)	7(100.0)

9) 기타라고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사람이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우 기관의 위치를 응답하기 곤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타란에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0〉 서비스를 주로 받은 병원·산후조리원, 육아지원시설, 학원의 위치
(단위: 명, %)

구분	병원·산후조리원 (임신·출산 서비스)			육아지원시설 (영유아보육)			학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성동구	강릉시	하동군	성동구	강릉시	하동군	성동구	강릉시	하동군
같은 읍면동	38 (42.7)	18 (18.9)	8 (18.2)	76 (87.4)	39 (52.0)	67 (100.0)	68 (87.2)	37 (45.1)	36 (94.7)
같은 시군구	44 (49.4)	71 (74.7)	10 (22.7)	10 (11.5)	36 (48.0)	-	8 (10.3)	45 (54.9)	1 (2.6)
같은 광역시 혹은 도	6 (6.7)	4 (4.2)	13 (29.5)	1 (1.1)	-	-	2 (2.6)	-	1 (2.6)
다른 광역시 혹은 도	-	2 (2.1)	13 (29.5)	-	-	-	-	-	-
계	89 (100.0)	95 (100.0)	44 (100.0)	87 (100.0)	75 (100.0)	67 (100.0)	78 (100.0)	82 (100.0)	38 (100.0)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 30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동군의 경우 다른 두 지역보다 10분 이하의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하동군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병원 혹은 산후 조리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는 거리가 20분까지 걸리는 위치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동군의 경우 80.0%에 가까운 여성들이 10분 이하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4-21〉 서비스 제공 기관 까지 이동시간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10분이하	46(18.4)	56(22.4)	77(30.8)
	10분초과~20분이하	99(39.6)	78(31.2)	57(22.8)
	20분초과~30분이하	53(21.2)	81(32.4)	42(16.8)
	30분초과~40분이하	25(10.0)	13(5.2)	10(4.0)
	40분초과~50분이하	8(3.2)	2(0.8)	5(2.0)
	50분초과~1시간이하	5(2.0)	6(2.4)	19(7.6)
	1시간초과	14(5.6)	14(5.6)	40(16.0)
	계	250(100.0)	250(100)	250(100.0)
영유아 보육	10분이하	83(51.2)	96(65.3)	115(79.9)
	10분초과~20분이하	63(38.9)	36(24.5)	26(18.1)
	20분초과~30분이하	15(9.3)	11(7.5)	3(2.1)
	30분초과~40분이하	-	2(1.4)	-
	1시간초과	1(0.6)	2(1.4)	-
	계	162(100.0)	147(1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10분이하	39(37.9)	54(50.9)	68(78.2)
	10분초과~20분이하	53(51.5)	40(37.7)	15(17.2)
	20분초과~30분이하	10(9.7)	11(10.4)	4(4.6)
	30분초과~40분이하	1(1.0)	-	-
	1시간초과	-	1(0.9)	-
	계	103(100.0)	106(1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10분이하	97(38.8)	134(53.6)	148(59.2)
	10분초과~20분이하	99(39.6)	66(26.4)	58(23.2)
	20분초과~30분이하	26(10.4)	20(8.0)	26(10.4)
	30분초과~40분이하	13(5.2)	3(1.2)	4(1.6)
	40분초과~50분이하	4(1.6)	1(0.4)	-
	50분초과~1시간이하	4(1.6)	3(1.2)	4(1.6)
	1시간초과	7(2.8)	23(9.2)	10(4.0)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10분이하	-	5(11.6)	1(14.3)
	10분초과~20분이하	3(37.5)	22(51.2)	3(42.9)
	20분초과~30분이하	4(50.0)	10(23.3)	3(42.9)
	30분초과~40분이하	-	2(4.7)	-
	40분초과~50분이하	1(12.5)	-	-
	1시간초과	-	4(9.3)	-
	계	8(100.0)	43(100.0)	7(100.0)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에 대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로부터도 상담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동군의 경우는 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웃·친구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은 대부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빈도수가 높은 강릉시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표 4-22〉 병원·산후 조리원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10분이하	8 (9.0)	15 (18.1)	2 (4.5)
10분초과~20분이하	48 (53.9)	42 (50.6)	7 (15.9)
20분초과~30분이하	21 (23.6)	33 (39.8)	8 (18.2)
30분초과~40분이하	7 (7.9)	3 (3.6)	2 (4.5)
40분초과~50분이하	2 (2.2)	1 (1.2)	4 (9.1)
50분초과~1시간이하	2 (2.2)	1 (1.2)	15 (34.1)
1시간초과	1 (1.1)	-	6 (13.6)
계	89 (100.0)	83 (100.0)	44 (100.0)

2.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

가. 서비스 비용 부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 지역 모두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동 서비스를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 등 주로 비공식자원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 경우, 다른 두 지역보다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친인척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성동

구와 강릉시는 하동군에 비해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하동군에 비해서 병원이나 산후 조리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래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영리자원으로부터 얻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서울 성동구가 강릉시와 하동군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유아 보육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50%에 가까운 여성들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하동군은 이보다 높은 약 70%의 여성들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하동군이 높은 이유는 하동군의 경우 본인 스스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경우,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하동군과 비교하여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영유아 보육에 비하여 보육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영유아는 본인이 스스로 돌보는 경우가 많고, 또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육료를 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은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가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고, 본인이 직접 돌보기보다 주로 학원 등 영리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동들이 대개 한 종류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유아 보육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3〉 서비스 비용 부담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매우저렴	124(49.6)	77(30.8)	116(46.4)
	저렴	47(18.8)	31(12.4)	77(30.8)
	보통	35(14.0)	86(34.4)	33(13.2)
	비쌌	37(14.8)	53(21.2)	22(8.8)
	매우비쌌	7(2.8)	3(1.2)	2(0.8)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매우저렴	54(33.3)	59(40.1)	63(43.8)
	저렴	32(19.8)	15(10.2)	39(27.1)
	보통	47(29.0)	39(26.5)	29(20.1)
	비쌌	24(14.8)	31(21.1)	12(8.3)
	매우비쌌	5(3.1)	3(2.0)	1(0.7)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매우저렴	16(15.5)	19(17.9)	34(39.1)
	저렴	19(18.4)	8(7.5)	16(18.4)
	보통	37(35.9)	57(53.8)	21(24.1)
	비쌌	29(28.2)	21(19.8)	16(18.4)
	매우비쌌	2(1.9)	1(0.9)	-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매우저렴	161(64.4)	142(56.8)	123(49.2)
	저렴	53(21.2)	67(26.8)	102(40.8)
	보통	35(14.0)	38(15.2)	22(8.8)
	비쌌	1(0.4)	3(1.2)	3(1.2)
	매우비쌌	-	-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매우저렴	3(37.5)	18(41.9)	2(28.6)
	저렴	3(37.5)	13(30.2)	1(14.3)
	보통	2(25.0)	9(20.9)	2(28.6)
	비쌌	-	1(4.7)	2(28.6)
	매우비쌌	-	1(2.3)	-
	계	8(100.0)	43(100.0)	7(100.0)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하동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그 이유 역시 하동군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직접 본인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학원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4-24〉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비용 부담

(단위: 명, %)

구분	병원			산후 조리원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매우저렴	8(14.0)	3(4.3)	1(5.9)	2(6.3)	-	-
저렴	19(33.3)	8(11.4)	4(23.5)	-	1(4.0)	2(7.4)
보통	16(28.1)	40(57.1)	7(41.2)	5(15.6)	7(28.0)	8(29.6)
비쌌	12(21.1)	19(27.1)	5(29.4)	20(62.5)	15(60.0)	15(55.6)
매우비쌌	2(3.5)	-	-	5(15.6)	2(8.0)	2(7.4)
계	57(100.0)	70(100.0)	17(100.0)	32(100.0)	25(100.0)	27(100.0)

〈표 4-25〉 본인 및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비용 부담

(단위: 명, %)

구분	본인			육아 지원 시설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영유아 보육	매우저렴	47(73.4)	47(90.4)	58(84.1)	3(3.4)	3(4.0)	4(6.0)
	저렴	11(17.2)	2(3.8)	10(14.5)	19(21.8)	9(12.0)	26(38.8)
	보통	4(6.3)	3(5.8)	1(1.4)	39(44.8)	33(44.0)	26(38.8)
	비쌌	1(1.6)	-	-	23(26.4)	28(37.3)	10(14.9)
	매우비쌌	1(1.6)	-	-	3(3.4)	2(2.7)	1(1.5)
계	64(100.0)	52(100.0)	69(100.0)	87(100.0)	75(100.0)	67(100.0)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매우저렴	12(75.0)	19(90.5)	27(67.5)	2(2.6)	-	2(5.3)
	저렴	3(18.8)	1(4.8)	7(17.5)	11(14.1)	6(7.3)	6(15.8)
	보통	1(6.3)	1(4.8)	6(15.0)	35(44.9)	54(65.9)	14(36.8)
	비쌌	-	-	-	28(35.9)	21(25.6)	16(42.1)
	매우비쌌	-	-	-	2(2.6)	1(1.2)	-
계	16(100.0)	21(100.0)	40(100.0)	78(100.0)	82(100.0)	38(100.0)	

주: 영유아 보육의 경우, 육아 지원 시설은 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학원을 포함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는 학원만 포함함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서는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하동군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 보다 적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동군이 나머지 두 지역보다 더 높았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에 대해서 세 지역 모두 서비스 제공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세 지역 모두 동 서비스를 주로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때 대부분 비용 지불 없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도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나 여성단체 등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비영리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반면, 강릉시와 하동군에서는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명씩 있어 서울시 성동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나. 서비스 질과 만족도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서비스는 제품 실패(product failure)일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해가 커서 서비스 선택에 있어 충분한 탐색이 필요한 고위험 탐색재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을 선택할 때 그 품질 수준이 개인에게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품 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높은 질의 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신뢰성, 전문성,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전문성이 접근성 보다 만족하는 더 큰 이유였던 반면, 하동군은 전문성 보다는 접근성이 만족하는 더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표 4-26〉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매우 좋음	95(38.0)	42(16.8)	92(36.8)
	좋음	110(44.0)	95(38.0)	129(51.6)
	보통	44(17.6)	112(44.8)	28(11.2)
	나쁨	1(0.4)	1(0.4)	1(0.4)
	매우나쁨	-	-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매우 좋음	43(26.5)	57(38.8)	63(43.8)
	좋음	84(51.9)	53(36.1)	60(41.7)
	보통	34(21.0)	35(23.8)	21(14.6)
	나쁨	1(0.6)	2(1.4)	-
	매우나쁨	-	-	-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매우 좋음	14(13.6)	17(16.0)	28(32.2)
	좋음	54(52.4)	34(32.1)	35(40.2)
	보통	34(33.0)	54(50.9)	23(26.4)
	나쁨	-	1(0.9)	1(1.1)
	매우나쁨	1(1.0)	-	-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매우 좋음	72(28.8)	40(16.0)	32(12.8)
	좋음	133(53.2)	115(46.0)	173(69.2)
	보통	44(17.6)	95(38.0)	43(17.2)
	나쁨	1(0.4)	-	2(0.8)
	매우나쁨	-	-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매우 좋음	-	3(7.0)	2(28.6)
	좋음	2(25.0)	21(48.8)	4(57.1)
	보통	6(75.0)	17(39.5)	1(14.3)
	나쁨	-	1(2.3)	-
	매우나쁨	-	1(2.3)	-
	계	8(100.0)	43(100.0)	7(100.0)

〈표 4-27〉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매우만족	65(26.0)	34(13.6)	69(27.6)
	만족	149(59.6)	96(38.4)	147(58.8)
	보통	35(14.0)	118(47.2)	33(13.2)
	불만족	1(0.4)	1(0.4)	1(0.4)
	매우 불만족	-	1(0.4)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매우만족	34(21.0)	39(26.5)	59(41.0)
	만족	93(57.4)	70(47.6)	63(43.8)
	보통	32(19.8)	35(23.8)	22(15.3)
	불만족	3(1.9)	3(2.0)	-
	매우불만족	-	-	-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매우만족	-	13(12.3)	22(25.3)
	만족	58(56.3)	40(37.7)	39(44.8)
	보통	29(28.2)	48(45.3)	23(26.4)
	불만족	15(14.6)	13(12.3)	3(3.4)
	매우불만족	1(1.0)	13(12.3)	-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매우만족	55(22.0)	26(10.4)	36(14.4)
	만족	149(59.6)	115(46.0)	159(63.6)
	보통	45(18.0)	106(42.4)	53(21.2)
	불만족	1(0.4)	3(1.2)	2(0.8)
	매우불만족	-	26(10.4)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매우만족	-	2(4.7)	2(28.6)
	만족	5(62.5)	21(48.8)	2(28.6)
	보통	3(37.5)	18(41.9)	3(42.9)
	불만족	-	2(4.7)	-
	매우불만족	-	-	-
	계	8(100.0)	43(100.0)	7(100.0)

〈표 4-28〉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신뢰성	124(57.9)	83(63.8)	134(62.0)
	전문성	48(22.4)	20(15.4)	18(8.3)
	접근성	19(8.9)	9(6.9)	43(19.9)
	시간	14(6.5)	11(8.5)	17(7.9)
	비용저렴	9(4.2)	7(5.4)	3(1.4)
	계	214(100.0)	130(100.0)	216(100.0)
영유아 보육	신뢰성	72(56.7)	92(84.4)	87(71.3)
	전문성	25(19.7)	4(3.7)	12(9.8)
	접근성	23(18.1)	10(9.2)	17(13.9)
	시간	4(3.1)	3(2.8)	5(4.1)
	비용저렴	3(2.4)	-	1(0.8)
	계	127(100.0)	109(100.0)	122(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신뢰성	24(32.9)	29(54.7)	46(75.4)
	전문성	18(24.7)	9(17.0)	6(9.8)
	접근성	23(31.5)	4(7.5)	6(9.8)
	시간	3(4.1)	9(17.0)	1(1.6)
	비용저렴	5(6.8)	2(3.8)	2(3.3)
	계	73(100.0)	53(100.0)	61(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신뢰성	96(47.1)	87(61.7)	84(43.1)
	전문성	22(10.8)	19(13.5)	14(7.2)
	접근성	54(26.5)	19(13.5)	73(37.4)
	시간	28(13.7)	15(10.6)	22(11.3)
	비용저렴	3(1.5)	1(0.7)	2(1.0)
	계	204(100.0)	141(100.0)	195(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접근성	2(40.0)	1(4.3)	1(33.3)
	전문성	2(40.0)	16(69.6)	1(33.3)
	비용저렴	1(20.0)	4(17.4)	-
	시간	-	2(8.7)	1(33.3)
	계	5(100.0)	43(100.0)	3(100.0)

〈표 4-29〉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신뢰성	143(57.2)	151(60.4)	154(61.6)
	전문성	50(20.0)	33(13.2)	23(9.2)
	접근성	30(12.0)	23(9.2)	38(15.2)
	비용저렴	13(5.2)	15(6.0)	10(4.0)
	시간	6(2.4)	6(2.4)	18(7.2)
	평판	8(3.2)	22(8.8)	7(2.8)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신뢰성	77(47.5)	94(63.9)	105(72.9)
	전문성	14(8.6)	7(4.8)	9(6.3)
	접근성	46(28.4)	20(13.6)	17(11.8)
	비용저렴	10(6.2)	4(2.7)	1(0.7)
	시간	7(4.3)	10(6.8)	3(2.1)
	평판	8(4.9)	12(8.2)	9(6.3)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신뢰성	30(29.1)	32(30.2)	51(58.6)
	전문성	23(22.3)	29(27.4)	5(5.7)
	접근성	23(22.3)	19(17.9)	22(25.3)
	비용저렴	19(6.2)	2(1.9)	2(2.3)
	시간	7(4.3)	13(12.3)	1(1.1)
	평판	17(16.5)	11(10.4)	6(6.9)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신뢰성	113(45.2)	90(36.0)	96(38.4)
	전문성	16(6.4)	38(15.2)	17(6.8)
	접근성	83(33.2)	57(22.8)	93(37.2)
	비용저렴	1(0.4)	12(4.8)	2(0.8)
	시간	28(11.2)	43(17.2)	34(13.6)
	평판	9(3.6)	10(4.0)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신뢰성	-	2(4.7)	1(14.3)
	전문성	1(12.5)	20(46.5)	3(42.9)
	접근성	3(37.5)	2(4.7)	1(14.3)
	비용저렴	2(25.0)	8(18.6)	-
	시간	-	8(18.6)	1(14.3)
	평판	2(25.0)	2(4.7)	1(14.3)
	계	8(100.0)	43(100.0)	7(100.0)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뢰성을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서울시 성동구는 강릉시와 하동군에 비해 전문성을 만족하는 더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 여전히 하동군은 다른 두 지역 보다 신뢰성을 만족하는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성을 만족하는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은 다른 두 지역 보다 낮았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에 대해 하동군은 다른 두 지역 보다 접근성을 중요시 여기는 비율이 높아 주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받은 빈도가 높은 강릉시의 경우 전문성을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그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지역사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본인 부담 감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릉시의 경우 대도시와 비교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본인 부담 감면 이외에 정보 제공 강화를 원하는 경우가 높았다. 하동군에서는 기관수의 확충을 원하는 경우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특히 민간영리자원의 경우 서비스에 대해 높은 비용을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를 찾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30〉 지역사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기관수의 확충	56(22.4)	26(10.4)	51(20.4)
	서비스질의 향상	58(23.2)	40(16.0)	42(16.8)
	본인부담감면	81(32.4)	90(36.0)	105(42.0)
	정보제공홍보강화	19(7.6)	73(29.2)	20(8.0)
	서비스종류다양화	22(8.8)	13(5.2)	24(9.6)
	이용시간다양화	14(5.6)	8(3.2)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기관수의 확충	37(22.8)	16(10.9)	19(13.2)
	서비스질의 향상	50(30.9)	40(27.2)	46(31.9)
	본인부담감면	44(27.2)	60(40.8)	56(38.9)
	정보제공홍보강화	14(8.6)	13(8.8)	5(3.5)
	서비스종류다양화	12(7.4)	12(8.2)	14(9.7)
	이용시간다양화	5(3.1)	6(4.1)	4(2.8)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기관수의 확충	15(14.6)	15(14.2)	13(14.9)
	서비스질의 향상	33(32.0)	23(21.7)	32(36.8)
	본인부담감면	38(36.9)	32(30.2)	27(31.0)
	정보제공홍보강화	5(4.9)	21(19.8)	3(3.4)
	서비스종류다양화	7(0.8)	10(9.4)	11(12.6)
	이용시간다양화	5(4.9)	5(4.7)	1(1.1)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기관수의 확충	67(26.8)	70(28.0)	60(24.0)
	서비스질의 향상	40(16.0)	28(11.2)	44(17.6)
	본인부담감면	31(12.4)	31(12.4)	60(24.0)
	정보제공홍보강화	60(24.0)	105(42.0)	51(20.4)
	서비스종류다양화	32(12.8)	12(4.8)	27(10.8)
	이용시간다양화	20(8.0)	4(1.6)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기관수의 확충	58(23.2)	25(10.0)	62(24.8)
	서비스질의 향상	45(18.0)	41(16.4)	32(12.8)
	본인부담감면	59(23.6)	16(6.4)	63(25.2)
	정보제공홍보강화	36(14.4)	99(39.6)	59(23.6)
	서비스종류다양화	39(15.6)	58(23.2)	27(10.8)
	이용시간다양화	13(5.2)	11(4.4)	7(2.8)
	계	250(100.0)	250(100.0)	250(100.0)

하동군은 도시 지역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가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수의 확충에 대한 욕구가 도시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수 확충에 대한 욕구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 전문적인 서비스의 경우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앞서 지적하였듯이 특히 하동군의 경우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본인 부담 감면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보육 문제에 있어서는 서비스 질과 서비스 비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와 더불어 기관수의 확충을 지적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대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정보 제공 보다는 본인 부담 감면을 지적하여, 역시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도시 지역보다 저조함을 보여 주었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성동구와 하동군의 경우 기관 수의 확충과 본인 부담 감면을 지적하여, 지역에서 동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 수가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다. 한편, 강릉시의 경우 기관 수의 확충을 지적하는 비율은 다른 두 지역 보다는 낮고 그 대신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강릉시에서는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 수는 확보되어 있으며 보다 질 좋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와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이웃 등 비전문적인 비공식자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우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보육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서비스를 받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은 본인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강릉시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시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하동군에 비해 비교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비교적 높아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릉시 내부에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서울 등 광역시에 존재하고 있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정보 부족 혹은 주변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역시 낮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동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인 강릉시와 비교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서울로 가는 것은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상 접근 비용이 너무 높아 이에 대한 욕구가 이미 포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포기된 욕구로 말미암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하동

군 주민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강원도 강릉시가 68.0%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시 성동구 43.2%, 경남 하동군은 28.0%를 보였다. 경남 하동군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비율이 72.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지역 모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를 주로 받은 곳은 친인척이 가장 높았으나, 친인척이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영리 자원인 병원과 산후 조리원은 비공식자원인 친인척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 보다 낮았다. 그리고 병원을 서비스 받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하동군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서 병원을 서비스 받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75.7%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이 서비스 받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 비용 부담과 더불어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것이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후 조리원 역시 병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산후 조리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산후 조리원이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산후 조리원이 서비스 받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후 조리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역시 비용 부담을 들었다.

강릉시는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과 비교하여 보건소가 이용하기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보건소가 이용하기 적절한 서비스

라고 응답한 사람 중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상담기관, 여성단체, 사회복지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 이용도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동 기관들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자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7명과 24명으로 어느 정도 이용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하동군의 경우 3명만이 이용하기 적절한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주변에 이용할 상담기관, 여성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용 욕구가 있는 반면, 하동군의 경우 주변에 이용 가능한 시설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비율이 서울시와 하동군의 경우 75.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일치하는 비율이 42.9%로 서울시와 하동군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응답자 중 약 50.0%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본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하동군은 약 70.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본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영유아를 본인이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의식은 하동군이 제일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에서 영유아를 본인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응답이 강한 이유는 농촌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유아 보육 시설의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혹은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본인이 적절하지만 본인이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

하는 비율은 서울시 성동구와 강원도 하동군이 약 30.0%, 강릉시가 약 55.0%로 강릉시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서비스 제공 없음’을 지적한 것을 미루어 보아, 취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불가피하게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경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보육의 경우, 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육 시설이 자녀 맡기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대부분이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었으며, 맡기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적었다. 따라서 보육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장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의 보육을 맡기기에 적절하다고 지적한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육아지원시설이었다. 하동군과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유치원을 선호하는 비율 보다 높았으나, 강릉시의 경우 유치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강릉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다른 두 지역보다 교육열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육아지원시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과도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서비스에 대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경우는 경남 하동군이 약 8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도 70.0% 이상 일치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 강릉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경우가 약 35.0%로서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적절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로서 서울시 성동구는 학원(56.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반면에 강릉시와 하동군은 본인을 가장 높은 비율(각각 37.7%,와 55.2%)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하동군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본인으로 지적하였다.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하동군이 높은 이유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에 초등학교를 맡길 만한 보육 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돌보기에 본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시간이 맞지 않음’ 이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돌보기 원하면서도 돌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등의 이유로 본인 자신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혹은 지역아동센터를 자녀 맡기기에 적절한 곳으로 지적한 여성들도 몇몇 있었으나,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생활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의 경우 약 60.0%를 나타냈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일치하는 사람이 불과 8.4%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60.0%가 가족생활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웃·친구로부터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이웃·친구가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0.0% 이하에 불과하였다. 강릉시의 경우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실제로 50.0%에 가까운 여성들이 주로 이웃·친구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나, 이웃·친구가 상담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4.8%에 지나지 않았다.

강릉시의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담하는 여성의 비율이(33.2%) 다른 두 지역보다(성동구 12.4%, 하동군9.2%)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적절한 서비스 제공 자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서 성동구 6.8%, 하동군 6.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상담이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비전문적 상담으로서 상담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아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전문상담기관과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으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적한 여성은 상당수 있었다. 전문상담기관과 교육기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보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표 4-31〉 실제 받은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의 일치성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일치	142(56.8)	80(32.0)	180(72.0)
	불일치	108(43.2)	170(68.0)	70(28.0)
	계	250(100.0)	250(100.0)	20(100.0)
영유아보육	일치	120(77.1)	63(42.9)	107(74.3)
	불일치	42(25.9)	84(57.1)	37(25.7)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일치	74(71.8)	37(34.9)	69(79.3)
	불일치	29(28.2)	69(65.1)	18(20.7)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교육 및 상담	일치	147(58.8)	21(8.4)	156(62.4)
	불일치	103(41.2)	229(91.6)	94(37.6)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일치	3(60.0)	17(39.5)	5(71.4)
	불일치	5(40.0)	26(60.5)	2(28.6)
	계	8(100.0)	43(100.0)	7(100.0)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각 지역별로 서울시 성동구 8명, 강원도 강릉시 43명, 경남 하동군 7명 밖에 되지 않아 정

확한 분석에 애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하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록 3] 참조).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비율이 불일치하는 비율 보다 높았다. 하지만 강릉시의 경우 실제로 받은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일치하는 비율 보다 높았다.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로 성동구와 강릉시는 공공기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하동군의 경우는 교육기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만한 공공기관이 주변에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하동군의 경우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공공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하동군의 경우 공공기관 보다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보인다. 공공기관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강릉시는 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정원이 마감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강릉시의 경우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홍보 및 정보 제공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며,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3. 아동양육자원 이용 형태에 관한 다변량 분석

앞 절에서는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통하여 여성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회 경제학적 요인이 이러한 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다항로지분석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요인들이 가구의 자녀양육 행태를 결정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가족생

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나머지 세 종류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 상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자녀 양육 행태에 본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나머지 세가지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각 지역별로 250사례, 총 750사례 중 본 분석을 위해 2개의 표본을 구성했다. 먼저 750사례에서 취학 전 자녀의 양육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취학 전 자녀가 있는 452가구를 분석 표본으로 구성했다. 다음으로 저학년 취학 자녀의 양육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저학년 자녀가 있는 294가구를 표본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형태를 ①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②모 이외의 다른 가족자원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 ③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아동양육형태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 유형과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아동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분석방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확대된 분석방법으로 명목변수인 종속변수가 세 개 이상의 범주일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Chan, 2005: 259). 아래 식(equation)은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의 확률모형을 나타낸 것이다(Sentas, Angelis, Stamelos, and Bleris, 2003: 6). 다항 로짓 분석에서 종속변수가 q 개 범주일 때 분석되는 로짓모형은 $q-1$ 개가 된다. 만약 종속변수의 범주(categories)가 세 개라면 그 중 한 범주를 준거(reference)로 사용하고 기준범주(baseline category)라고 부른다.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통해 다항 로짓 모형의 상관계수(coefficient)를 계산한 후, 로짓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범주의 확률을 계산해 낼 수 있다.

$$\log\left(\frac{\text{prob}(\text{category}_j)}{\text{prob}(\text{category}_q)}\right) = b_0^{(j)} + \sum_{i=1}^k b_i^{(j)} x_i, \quad j = 1, \dots, q-1.$$

본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자녀양육형태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항 로짓 모형은 q-1개인 2개가 된다. 본 분석에서 자녀양육형태는 직접양육,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보육시설이용으로 구분되어 지고, 직접양육형태를 준거로 기준범주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확률(Odds ratio)은 준거 집단 대 비 준거 집단 전체에 대한 수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준거 집단 대 특정 비교 집단과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 사용한 아동양육형태에서 직접양육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경우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는 직접양육형태와 다른 두 양육형태를 각각 비교하는 형태로 주어진다. 이를 통해 본 분석은 세 가지 양육형태(해당지역사회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이용자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대상은 두 개의 개별적인 표본인데 하나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양육형태(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직접양육 대 보육시설이용)를 분석했고, 다른 하나는 취학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형태(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직접양육 대 시설이용)를 분석했다.

나. 변수설명

본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취학 전과 취학(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자녀의 양육형태이다. 양육형태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형태는 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형태는 모이외의

가족구성원(남편, 친정부모, 시댁부모, 친인척 등)에 의해 자녀가 돌보아지거나 비가족구성원인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형태는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시설이용형태는 취학 전 자녀와 취학 자녀가 다소 상이한데 취학 전 자녀의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학원, 방과후교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취학 자녀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의미한다. 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준거 집단(reference group=1)으로 설정하고 사적자원(가족자원) 또는 보모고용을 2, 시설이용을 3으로 부호화했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이용, 직접양육 대 시설이용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크게 3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집단이다. 연령과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되었고 각각 연수와 명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은 가변수 처리한 것으로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을 준거집단(0)으로 하고, 대학재학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을 '1'로 부호화하였다. 두 번째 변수집단은 자녀양육서비스와 관련된 3개의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거리는 자녀양육을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10분 이내'인 경우를 준거집단(0)으로 10~20분 소요, 20분 이상 소요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해서 각각 가변수 처리했다. 다만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소요시간을 연속변수화해서 사용했다. 10분 이내를 1, 10~20분 이내를 2, 20~30분 이내를 3 등으로 점수화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를 7로 부호화했다. 가격의 적절성에 관한 변수는 “동 기관(사람)의 서비스 비용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다. 원 자료는 “1. 매우 저렴하다, 2. 저렴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비싼 편이다, 5. 매우 비싸다”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이를 위해 “5. 매우 저렴하다, 4. 저렴한 편이다, 3. 보통

이다. 2. 비싼 편이다, 1. 매우 비싸다”로 변수 값을 변경했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변수도 “동 기간(사람)의 서비스 질은 어떻습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질문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역산해서 코딩하였다(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마지막 독립변수군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이용형태의 차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다. 생계부양형태는 이인생계부양자와 일인생계부양자를 구분한 것으로 일인생계부양자가구를 준거집단으로 이인생계부양자(1)가구를 가변수화 했다. 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경우 가구 내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인생계부양자가구에게는 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정 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이거나 자영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게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경우, 직접양육 이외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동거 변수는 친정 또는 시댁 부모 동거여부를 묻는 것으로 부 또는 모가 동거할 경우를 ‘1’로, 비동거 가구를 ‘0’으로 부호화해 가변수화 했다. (노)부모가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동거 집단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양육형태인 사적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를 구분했다. 비임금근로집단은 비취업 집단을 포괄한 경우로 ‘0’으로 부호화하고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를 ‘1’로 부호화 했다. 일반적으로 비임금근로의 경우 가족사업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이 직접 양육할 가능성이 임금근로집단에 비해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근로집단의 경우는 직접양육이 불가능하고 다른 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근로시간은 과도한 근로시간이 자녀양육형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한 변수이다. 주당 44시간 이상을 과근로로 보고 '1'로 부호화하고 나머지 사례를 '0'으로 부호화 했다. 거주지역은 마지막 변수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양육과 관련해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한 변수이다. 대도시는 친인척 등 사적인적자원망을 활용하기 어려운 대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높고, 농촌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낮지만 대신 사적인적자원망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도시는 앞서 언급한 두 지역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아니면 반대로 두 지역의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도시를 준거집단으로 대도시와 읍면동 지역을 각각 '1'로 부호화해서 가변수화 했다.

다. 분석결과

1) 취학 전 아동 양육형태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4-32>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지역사회자원 이용형태 중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하는 가구 간의 주요변수들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odel Chi-square=473.630, df=26, p<0.001).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은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 이용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이동거리와 서비스 비용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변수

중 ‘10~20분 이내’ 변수가 직접양육형태와 사적자원 또는 보모이용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6.181, p<0.01). ‘서비스 비용’ 변수도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와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하는 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dds ratio=0.278, p<0.001).

〈표 4-32〉 취학 전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직접양육 대 사적자원·보모고용

구분	Coefficient	Odds ratio	95% Wald Confidence Limits		
			Lower 95%	Upper 95%	
연령	0.000	1.000	0.857	1.167	
자녀수	0.080	1.083	0.440	2.670	
교육수준	대재이하 (대재이상)	-0.640	0.527	0.177	1.573
		10~20분	1.822**	6.181	1.677
이동거리	20분 이상 (10분 이내)	-0.137	0.872	0.119	6.412
		가격 적절성	-1.279***	0.278	0.143
질 적절성	-0.163	0.850	0.364	1.984	
생계부양형태	이인생계부양 (일인생계부양)	2.800**	16.442	2.101	128.665
부모동거	동거 (비동거)	0.960	2.610	0.525	12.987
취업형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비취업)	2.003*	7.411	1.301	42.220
근로시간	주44시간이상 (44시간 이하, 비취업)	2.964***	19.373	3.456	108.603
거주지역	대도시 읍면동 (중소도시)	-1.908**	0.148	0.039	0.561
		-1.503*	0.222	0.063	0.790
절편		2.552			
-2 Log L			352.883		
Model Chi-square			473.630***		
df			26		
N			45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이어서 주요 분석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보면 생계부양형태, 취업형태, 근로시간, 거주지역 등 부모동거 여부를 제외한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자녀양육형태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부양형태를 보면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이용해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16.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dds ratio=16.442, $p<0.01$). 취업형태와 아동양육형태(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이용)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7.411, $p<0.05$). 모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사적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비임금근로자와 비취업자에 비해 7.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이상 과(過)근로를 하는 여성(모)이 다른 여성에 비해 사적으로 보모를 고용하거나 가족자원을 이용해서 자녀양육을 분담할 가능성이 19.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19.373, $p<0.001$). 거주 지역을 보면 중소도시 거주가구에 비해 대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할 가능성이 각각 85.2%(odds ratio=0.148, $p<0.01$), 77.8%(odds ratio=0.222, $p<0.0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이동거리, 비용 등과 아동양육형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변수에서는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임금근로자, 주 4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가족 및 친지 등 사적자원을 이용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표 4-33>은 <표 4-32>과 동일한 분석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형태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형태(직접양육 대 보육시설 이용)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0.366, $p<0.05$). 취학 전 자녀의 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하일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

자녀양육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세 변수 모두가 자녀 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같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아동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9.122, $p<0.001$). 비용의 적절성과 질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아동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서비스 질과 관련해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동거여부, 근로시간, 거주 지역 중 대도시 거주가 아동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를 분석한 경우와 비교하면 부모동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진 반면 생계부양형태, 취업형태, 읍면동거주는 자녀양육형태(직접양육 대 보육시설 이용)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생계부양형태와 취업형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 집단에서 비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즉, 보육시설 이용은 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입증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육시설 이용은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정책적 목적과 연관성이 있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동의 조기 교육적 목적과 더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시택 또는 친정부모가 한 가구에서 같이 생활할 경우 비동거 가구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3.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3.828, $p<0.05$).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부모가 동거한다고 해도 반드시 손자녀를 양육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표 4-32>에서도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가 부모의 동

거여부와 통계적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 것도 이러한 결과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추정해보면 부모의 동거여부가 자녀의 직접양육형태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동거하더라도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부모의 동거여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¹⁰⁾(Fumie and Akihiko, 2007)와 비교한다면 부모동거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한국과 일본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도 부모의 동거여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머니를 대신해 사적자원으로 대표되는 (노)부모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은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모가 주당 44시간 이상 과 근로를 하는 경우 주당 44시간 이하 또는 비취업 여성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5.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5.366, $p<0.05$).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이다. 과 근로상태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68.4%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dds ratio=0.316, $p<0.05$).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데도 불과하고 대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자녀양육과 관련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10) Fumie와 Akihiko(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기혼여성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를 시부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라. 취학 아동 양육형태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4-34>과 <표 4-35>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자원 이용형태(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직접양육 대 시설이용)에 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Model Chi-square=296.903, df=24, p<0.001). 인구사회적 변수에서는 교육수준과 아동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dds ratio=34.166, p<0.01). 취학 자녀 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해서 자녀를 양육을 분담할 가능성이 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하인 경우에 비해 3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보다는 자녀의 조부모 등 사적자원을 이용하거나 보모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양육과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형태와 관련된 취학 전 자녀양육형태를 분석한 <표 4-32>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양육과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 형태를 분석한 <표 4-32>에 따르면 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4-34〉 취학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직접양육 대 사적 자원·보모고용

구 분	Coefficient	Odds ratio	95% Wald Confidence Limits		
			Lower 95%	Upper 95%	
연령	0.034	1.034	0.695	1.540	
자녀수	-1.382	0.251	0.045	1.393	
교육수준	3.531**	34.166	3.966	294.360	
대제이하 (대제이상)					
소요시간(거리)	4.598***	99.320	12.741	774.261	
가격 적절성	-1.319***	0.267	0.082	0.870	
질 적절성	1.187	3.283	0.563	19.150	
생계부양형태	이인생계부양 (일인생계부양)	1.555	4.734	0.118	189.868
부모동거	동거 (비동거)	1.435	4.201	0.317	55.619
취업형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비취업)	0.598	1.818	0.045	73.934
근로시간	주44시간이상 (44시간 이하, 비취업)	0.317	1.373	0.037	50.495
거주지역	대도시 읍면동 (중소도시)	-2.416	0.089	0.003	2.624
	읍면동 (중소도시)	1.892	6.635	0.364	120.961
절편		-17.723			
-2 Log L			134.024		
Model Chi-square			296.903***		
df			24		
N			29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서비스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자녀양육형태와 소요시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dds ratio=99.320, p<0.001), 비용의 적절성 또한 자녀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dds ratio=0.267, p<0.001).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던 생계부양형태, 취업형태, 근로시간, 거주지역은 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형태(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고용)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은 취약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이다.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 또는 보모이용의 경우와는 달리 모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비스 적절성과 관련된 변수는 모두 자녀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동양육형태와 정의 관계(odds ratio=25.150, p<0.001)에 있었지만 비용(odds ratio=0.134, p<0.001)과 질(odds ratio=0.266, p<0.01)의 적절성과 관련된 변수는 아동양육형태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취약 자녀 양육형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접양육 대 시설이용

구 분	Coefficient	Odds ratio	95% Wald Confidence Limits	
			Lower 95%	Upper 95%
연령	-0.064	0.938	0.758	1.161
자녀수	0.142	1.153	0.421	3.158
교육수준 대재이하 (대재이상)	0.400	1.492	0.527	4.222
소요시간(거리)	3.225***	25.150	3.975	159.113
가격 적절성	-2.007***	0.134	0.066	0.275
질 적절성	-1.323**	0.266	0.115	0.619
생계부양형태 이인생계부양 (일인생계부양)	-0.507	0.602	0.033	10.954
부모동거 동거 (비동거)	1.088	2.967	0.614	14.336
취업형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비취업)	1.736	5.675	0.246	130.739
근로시간 주44시간이상 (44시간 이하, 비취업)	0.662	1.938	0.089	42.221
거주지역 대도시 읍면동 (중소도시)	-0.371	0.690	0.143	3.331
절편	11.214*			
-2 Log L		134.024		
Model Chi-square		296.903***		
df		24		
N		29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주요 분석 변수는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동양육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읍면동에 거주하는 가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78.2% 낮게 나타났다(odds ratio=0.218, $p<0.05$). 이러한 결과는 읍면동지역의 보육시설 접근성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 주요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취학 전과 취학(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자녀양육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원(직접양육을 포함해서)형태를 분석했다. 자료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자녀수, 거주 지역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상이했다. 특히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면 취학 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모이외의 가족원 등이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중소도시 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형태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대도시 거주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취학 자녀 양육형태는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직접양육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하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고용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모의 절대 다수가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녀양육형태에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다른 양육형태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취학 전 자녀 양육을 보면 이동시간, 비용적절성, 서비스 질 모두에서 직접양육이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양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직접양육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반해 보육시설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사회에서 ‘어린 자녀를 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학 아동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도 취학 전 아동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더욱이 취학 아동의 경우 양육에 있어서 교육적 목적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서 직접양육형태가 다른 자녀양육형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주요 분석 변수들을 보면 취학 전 아동양육에서 5가지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아동양육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자원 또는 보모를 이용하는 경우 이인생계부양자가 가구가 절대다수였던 것에 반해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일인생계부양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양육형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정 또는 시댁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사적자원을 더 이용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취학 자녀 양육도 기본적으로(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와 동거여부를 제외하고) 취학 전 자녀 양육형태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넷째, 다항로지분석 결과를 보면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에 있어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사적자원(또는 보모고용)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도출되었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동거리, 비용적절성 변수가, 주요 분석변수에서는 생계부양형태, 취업형태, 거주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의 대부분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접양육 대 보육시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육수준, 이동거리, 비용 적절성, 질 적절성,

부모동거, 근로시간, 거주지역 중 대도시 지역 거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취학 아동에 대한 분석에서 직접양육 대 사적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교육수준, 소요시간, 가격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분석 변수 모두는 직접양육과 사적자원(또는 보모고용)양육형태를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직접양육을 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수와 주요 분석 변수 중 거주 지역에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제3절 지역사회자원 실태 분석 결과

1. 조사 지역별 개소수 및 위치 분석 결과

가. 영유아 및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시설

공공 유치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서울시 성동구가 5개소, 강릉시가 29개소, 하동군이 19개소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지역에 쏠림 없이 분포되어 있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의 경우, 10~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여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공유치원의 개소수는 해당 지역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공공유치원으로 충족되지 못한 여성들의 욕구를 민간 유치원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동구에는 민간 유치원이 각 동마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수도 공공유치원의 수 보다 많다. 강릉시의 경우, 공공유치원이 그 수는 적지만 지역적 편중

없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간 유치원은 주로 포남동, 교동 등 강릉의 변화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영리적인 이유 때문에 민간 유치원은 영유아의 수가 적거나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동군의 경우는 민간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공공 병설 유치원이 채워주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민간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 유치원은 강릉시와 하동군이 서울시 성동구보다 더 많은 시설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 어린이집의 경우는 서울시 성동구 29개소, 강릉시 4개소, 하동군 2개소로 강릉시와 하동군이 개소수에 있어서 열악한 실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공 어린이집은 비교적 지역적 편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강릉시에는 포남동, 옥천동, 주문진읍 등 비교적 변화한 세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하동군에는 변화한 지역인 하동읍과 상대적으로 덜 변화한 금성면에 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다. 공공 유치원에서 지적했듯이,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대부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공 어린이집은 주변에 있는 수요만을 충족시켜 줄 뿐,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 어린이집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보육 수요는 민간, 법인, 가정보육, 기타 어린이집에 의하여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81개소, 가정보육시설 35개소, 기타 어린이집 6개소가 지역적 편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주로 가정 내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강릉시의 경우,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은 포남동과 교동의 주변, 그리고 교향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동군의 경우도,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변화한 지역인 하동읍과 진교면에 몰려 있지만, 면 지역당 한 개소 정도는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 만큼 심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개소수와 위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학원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센터나 공부방은 각 1동에 1개소씩 정도 분포하고 있다. 학원과 달리 아동센터와 공부방에서는 차량 운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만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센터와 공부방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보육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학원의 지역적 쏠림 현상은 강릉시의 경우 성동구 보다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강릉시의 경우, 학원이 주로 교동과 포남동 주변과 주문리와 교향리 주변에 몰려 있으며, 이러한 쏠림 현상은 민간 어린이집 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센터나 공부방 같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도 역시 이러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하동군의 경우, 학원은 주로 하동읍과 진교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외의 지역에도 한 두개 씩은 위치하고 있어 쏠림 현상이 강릉시 보다는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하동읍에 한곳, 옥종면에 두 곳으로 모두 세 곳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시설수 측면에서 부족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나. 각종 단체

서울시 성동구에서 여성단체 및 부녀회 조직은 모두 7개소로 각각 7개동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 단체 및 부녀회 조직이 없는동이 상당수 있는데, 대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부녀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청소년 단체는 가톨릭청소년회가 운영하는 성동청소년수련관과 성동청소년상담센터가 행당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YWCA가 운영하는 성동청소년문화의 집이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등 한두개의동에 이러한 기관이 있다. 상담기관 역시 행당동, 금호동, 성수동에 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와 상담기관의 경우 청소년이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 동 기관들은 주로 기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전체 성동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릉시의 경우, 여성단체 및 부녀회 조직이 총 50개소로 성동구에 비해 조직수도 많고 조직의 특성도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강릉시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남동, 교동, 옥천동 등 주요동에 몰려 있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들의 활동이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의 문제에 국한될 소지가 강하며, 강릉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활동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단체,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 등도 역시 강릉시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강릉시 외곽에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군의 경우도 여성단체와 부녀회가 모두 하동읍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주로 하동읍 주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리상으로 멀리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활동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

소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상담센터 등도 모두 하동읍에 위치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대중교통이 도시 지역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또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도시 지역보다 적어서 읍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러한 기관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기관

조사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단체, 직업훈련기관, 산후조리원, 종교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36〉 지역별 시설 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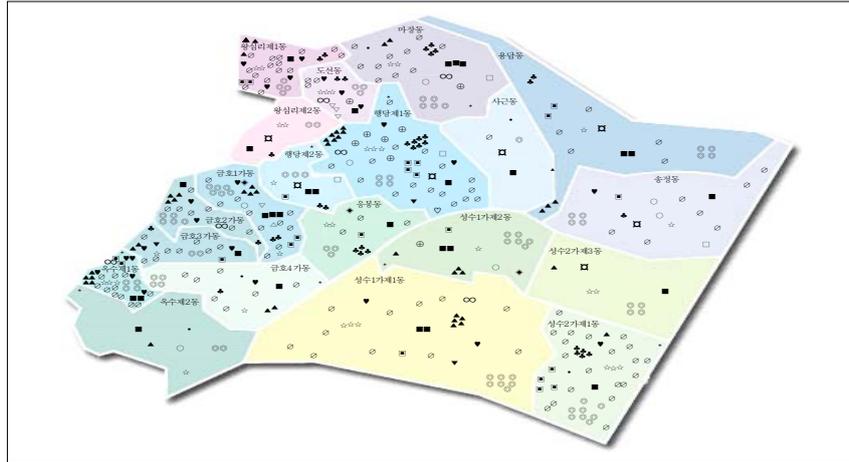
구 분		성동구	강릉시	하동군	
유치원	공공	— 소	29개소	19개소	
	민간	33개소	15개소	-	
영유아 보육시설	공공	29개소	4개소	2개소	
	법인	-	25개소	3개소	
	어린이집	민간	81개소	78개소	13개소
	가정보육	35개소	20개소	1개소	
	기타	6개소	-	3개소	
초등	방과후보육	21개소	15개소	3개소	
방과후보육	학원	44개소	398개소	61개소	
각종단체	여성단체·부녀회	7개소	50개소	16개소	
	아동청소년단체	7개소	15개소	2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8개소	4개소	
	상담기관	3개소	11개소	2개소	
기타	언론단체	5개소	10개소	15개소	
	직업훈련기관	8개소	51개소	2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2개소	-	
	종교단체	개신교	137개소	151개소	69개소
		불 교	24개소	73개소	100개소
천주교		6개소	8개소	6개소	

주: 지역별로 각 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지역사회자원현황리스트는 지면 관계상 본 보고서에 실지 않았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자원현황리스트는 저자를 통하여 직접 받아 볼 수 있음.

성동구 소식을 주로 담고 있는 성동구 소재 지역 신문 혹은 방송 기관은 모두 5개소였다. 직업훈련기관은 모두 8개소로 다양한 내용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산후조리원은 불과 1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단체로 개신교 137개소, 불교 24개소, 천주교 6개소가 있었다. 개신교회는 대부분 성동구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천주교회와 사찰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강릉시의 경우, 지역 방송 혹은 지역 신문사 10개소가 있었다. 직업훈련기관은 51개소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 많았다. 이러한 직업훈련기관 역시 교동과 옥천동 등 강릉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강릉시 중심으로 이동해 와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후조리원은 불과 2개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는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강릉시 중심부에 몰려 있기 보다는 외각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 개신교회는 주로 강릉시 중심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외각 지역에도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천주교회 역시 중심부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상당수 외각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교 사찰의 경우 개신교과 천주교 보다 훨씬 더 넓게 외각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 하동군에 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 단체가 15개소 있었다. 직업훈련기관은 2개소가 있었으며,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림 4-1] 성동구 mapping 분석



주: ●공공유치원, ☆민간유치원, ■공공어린이집, ◎민간유치원, ⚙가정보육시설, ◆종교부설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방과후전담 보육시설, ▲학원, □여성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사회복지시설, △모성보호시설,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언론단체, ∅종교단체(개신교), ♥종교단체(불교), ∞종교단체(천주교), ♀부녀회.

[그림 4-2] 하동군 mapping 분석



주: ●유치원, ■공공어린이집, ☆법안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학원, □여성단체, ■아동청소년단체,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 ▽언론단체, ⊕직업훈련기관, ∅종교단체(개신교), ♀부녀회.

도 많았다. 정규보육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 이후에 실시하나, 등원은 오전 7시 30분 전후로 시작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정규보육시간은 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의 경우 오후1시~2시에 대부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그리고 종일반 수업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 교육과 종일반 수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의 보육료 지원이 없다. 수요자 조사 결과에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특기교육 비용과 종일반 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기교육의 내용과 비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렴한 경우에는 특기교육비용이 원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3과목씩 세트로 모두 등록하게 한 후 1달에 10만원 이상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를 낮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취업 여성의 경우 특기 교육과 종일반 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특기교육과 종일반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오후 시간에 자녀를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의 경우, 이러한 특기교육과 종일반보육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립 ㅅ어린이집은 정규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3시 30분까지이나,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추가적인 보육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공공유치원의 경우 에듀케어반을 운영하여 정규 수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외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추가적인 보육을 제공한다. 공공유치원의 경우도 교육청에서 특기교육을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11:20 오전 정규 교육 · 11:20~12:50 점심식사 · 12:50~ 1:50 오후 정규 교육 · 1:50~ 2:00 귀가지도 · 2:00~ 3:00 방과후 특강 ※교육비용에 포함 · 3:00~ 6:00 종일반 I ※ 추가 비용 12만원 · 6:00~ 8:00 종일반 II ※ 추가비용 15만원
o유치원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3세~만5세 -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0~2:00 정규교육시간 · 2:00~3:00 특기교육 I · 3:00~4:00 특기교육 II · 4:00~5:00 종일반 I · 5:00~7:00 종일반 II · ※ 특기교육 I, II 과 종일반 I, II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부담
s유치원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2세(30개월전후)-만5세 -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12:00 정규교육시간 · 12:00~ 1:00 점심시간 · 1:00~ 2:00 특기교육 I · 2:00~ 3:00 특기교육 II · ※ 각 특기교육당 3만 5천원 추가 부담 · 3:00~6:00 종일반 · ※ 종일반 비용 8만원 추가 부담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3세~만5세 · ※ 높은 연령에 우선 순위를 두어 입학함 - 정원: 30명씩 2반 총 60명 -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시~9시: 에듀케어 보육시간 · 9시~1시 정규 교육 시간 · 1시~4시 에듀케어 수업 · 4시~8시 보육 제공 (EBS 방송시청 등) · ※ 교육청에서 공공유치원으로 하여금 특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기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 각 반 30명 중 20명은 정규교육만 수강하고 나머지 10명이 에듀케어 교육을 받음 (총 에듀케어 수강생 20명)
강원도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3세~만5세 - 보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12:00 오전 정규 시간 · 12:00~ 1:00 점심식사 · 1:00~ 2:00 오후 정규 시간 · 2:00~ 4:00 특기 교육 프로그램 · ※ 3가지 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함 · 4:00~6:00 종일반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3세~만5세 - 보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12:00 오전 정규 수업 시간 · 12:00~ 1:00 점심식사 · 1:00~ 2:30 특기 교육 프로그램(※ 한달 비용 2만 5천원) · 2:30~ 6:00 종일반 · ※ 간식비 3만원

3.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로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무한도전, 성동청소년 수련관의 레인보우스쿨, 성동구 소재 셋마루 공부방, 강릉지역 방과후 공부방 네트워크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방과후 교실은 그 대상을 저소득층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로 하고 있었으며, 시간은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30분~8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숙제 지도를 비롯하여 영어, 미술, 체육, 컴퓨터 등 영리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비용 부담으로 학원 등록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방치되기 쉬운 아이들의 건강 및 영양을 관리해 주는 한편, 체험 학습과 문화 행사 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또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부모 상담, 개인 상담,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강릉시의 경우, 지역사회내 의과대학의 협력을 받아 구강위생을 포함한 위생생활지도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방과후 교실은 특히 저소득층 취업 여성의 초등학교 자녀를 맡기기에 적절한 자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기관수와 위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수가 부족하고 또한 밀집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딴지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방과후 교실이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 여성의 자녀와 같이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은 빈곤층의 자녀들만 어울림으로써 또 하나의 빈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표 4-38> 인터넷 조사 결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	구분	내용
서울시 성동구	무한도전 (성동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자녀 (초등학교 4~6 학년) -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5:00~19:30, 토 13:00~17:00 · 2,4주 토요일(놀토) 10:00~15:00, 방학기간 13:00~18:00 - 일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15:50 출석, 숙제, 자습, 간식지원 · 16:00~17:40 전문선택수업 (영어회화, 심산수련, 글짓기, 미술, 농구, 종이공예) · 17:40~18:40 저녁식사 · 18:40~19:30 보충심화학습(인간과 역사, 한자, 수학, 과학) · 19:30 종례 및 귀가지도
	레인보우스쿨 (성동청소년수련 관 방과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4~5학년) - 정원: 학년당 20명씩 총 40명 -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 일: 15:00~20:00 · 등교토요일: 13:00~18:00 · 휴교토요일: 10:00~15:00 · 방 학 중: 10:00~15:00 - 주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통과정: 숙제 및 독서 지도, 보충심화학습(국영수) · 전문선택과정: 수영, 영어회화, 중국어, 한자급수, 창작미술, 컴퓨터, 독서논술 · 토요체험과정: 내부체험 및 외부체험활동 · 생활지원과정: 급식, 귀가지도, 건강 및 생활일정관리 및 상담 · 특별지원과정: 학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심리검사 및 개별상담
	셋마루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역할: 보충(급식, 상담), 문화(문화행사, 야외활동), 교육(학습지도, 특별활동) - 주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목지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특별활동: 미술, 만들기, 피아노, 독서, 체육, 컴퓨터 · 무료급식: 석식, 중식(방학) · 심리프로그램: 미술로 어린이 마음 읽기 · 상담연결: 개인, 그룹 상담 연결 · 야외 활동, 문화 행사 등
강원도 강릉시	강릉지역 방과후 공부방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급권가구아동, 차상위계층아동, 결혼가정아동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프로그램: 위생생활지도(구강위생 및 보건위생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 학습프로그램: 기초학력진단, 교과/학습(과제)지도, 글쓰기교실, 과학교실, 동화구연교실, 영어교실 · 가족프로그램: 부모 및 가족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프로그램: 특기적성 관련 특별활동(합창극단만들기/그림/스포츠) ·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심리프로그램: 심성교육 및 대화법(집단 및 개별 상담) - 총 15개소, 등록 아동수 500명 · 주문진: 해나비 아동센터, 꿈나무 아동센터, 드림공부방 · 포남동: 포남 아동센터, 오르미공부방, 좋은친구 · 입암동: 하늘 아동센터, 한동 공부방 · 노암동: 강남 아동센터 · 지변동: 봄빛 아동센터 · 옥천동: 우리샘 공부방 · 송정동: 늘만나 아동센터 · 연곡면: 연곡제일 아동센터 · 구정면: 구정 공부방 · 성산면: 성산 공부방 - 참가단체 · 협력기관: YBS영동방송, 관동대의과대학, 강릉대치과대학, 강릉대 치과대학병원, 강릉평생교육정보관, 한국은행강릉본부 · 시민단체: 강릉여성의전화, 대한주부클럽강릉지회, 강릉YMCA, 강릉생명의숲,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	--	---

4.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로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동청소년수련관과 책 읽는 엄마·책 읽는 아이,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YMCA,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하동청소년수련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문화 활동,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원 수업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특화 프로그램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 영리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책읽는 엄마·책읽는 아이는 어린이 도서관 및 유아를 위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대여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부모가 시설로 아이를 데려가야 하고 운영시간도 평일 낮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취업 여성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동 시설은 도서를 대여해주고 이야기방을 운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기 보다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YMCA, 하동청소년수련원 역시 주로 청소년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역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이나 학원 수업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39〉 인터넷 조사 결과: 청소년 단체

구분		내용
서울시 성동구	성동청소년 수련관	<주요프로그램> - 청소년 동아리 문화 공동체 (학습, 체육, 전통, 문화예술 분야) - 청소년 문화기획 프로젝트 - 학교연계 프로젝트 (학교 체험학습 및 자치활동 지원) <특화프로그램> - 거리아동상담(햇살맑은날에) · 시간: 격주1회 토요일 오후3시~6시 · 상담활동, 교육활동, 먹거리활동, 문화공연 - 북한이탈청소년 프로그램(하나되어) · 시간: 월1회 토요일 오후 3시~6시 · 대상: 북한이탈청소년, 하이모소속(하나를이루어가는모임) ·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또래 프로그램, 테마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년연계(어울림)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서울보호관찰소 위탁 청소년 및 경찰서 연계 청소년 등 - 학교연계프로그램(특별한 너) · 교육, 리더쉽프로그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학교부적응학생대상프로그램 - 또래상담자프로그램(또래또래) · 자아탐색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실망분노조절프로그램, 또래상담자프로그램, 가치관명료화프로그램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 어린이 도서관 · 운영시간: 월화목(오전10시~오후6시), 수금(오전10시~오후7시), 토(오전10시~오후2시) · 대상: 유아, 초등학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동화, 창작동화, 영어동화, 과학, 문화, 역사책 등 · 어린이, 가족 비디오 · 현장체험교실, 책읽는엄마 모임 운영 - 반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방: 유아방, 초등학생방 각 매주 1회 운영, 자원봉사엄마들 활용 · 종이접기교실(대상: 유아 6~7세, 주1회, 오후4시30분~6시) · 문학교실(대상: 초등학생, 주1회, 2시: 1~2학년, 4시: 3~4학년) · 영어동화교실(주1회 오후 3시) · 나만의 책만들기(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주2회 오후 3시) · 하민엄마랑놀아요(대상: 유아 6~7세, 주1회 오후 3시) · 그림동화교실(대상: 유아 6~7세, 주1회 오후 4시) · 엄마들을 위한 특강(월1회) · 지하철로 떠나는 체험학습(매달 토요일체험학습일) · 어린이기자단 “꿈방울” - 똥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 품앗이 토요일 체험학습
--	---

5.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임신부 건강관리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교실 및 아동교육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 상담 및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활 지원 및 근로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통하여 후원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력 및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민간 영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가정의 여성 및 아동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꺼려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수요 조사에서 살

해보았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공간적·시간적인 접근성의 어려움 그리고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은 대부분 저소득층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숙제지도 및 식사제공 등 보육 서비스, 그리고 학습지도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살펴 본 방과후 교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주로 복지관 주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만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지관 공부방이 주로 위기 아동이 모이는 위험한 곳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일반가정의 자녀는 이용을 꺼려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복지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아동 교육 문화 사업은 피아노, 컴퓨터, 미술, 영어 등 민간 영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간 영리학원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이 비용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모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방과후에 복지관에 보내는 경우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아동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복지관 아동 교육 문화 사업에 대한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민간영리 학원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복지관에 대한 낙인 효과 때문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복지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복지관은 또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어

병원이나 민간 심리 상담소를 과도한 비용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 종합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법률 지식 등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 혹은 친구 등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좀 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복지관의 상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해 복지관에서는 주로 자활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통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근로자위탁사업을 통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개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타 복지관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전업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자격증을 부여해 주는 직업 관련 강좌 보다 에어로빅, 서예와 같은 취미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어 전업 주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 참조).

6. 여성 단체

각 지역별 시설 개소수 현황에서 보았듯이 서울시 성동구와 경남 하동군에는 여성단체가 소수에 불과하였고 반면에 강릉시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많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 조사에서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그 주요 활용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강릉시 소재 여성단체들은 아직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아직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문제

점으로 대두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이 인식될 경우 이러한 여성 단체들도 출산·양육 관련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그 활동은 아직 미약하나 인터넷을 통해 관찰된 이들 여성 단체들의 출산·양육 관련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강릉지회의 경우 여성·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방과후 공부방에 교사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지도를 돕고 있었으며, 또한 초등학생 방학특강, 생태 탐방 교실 및 탐조 여행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올바른 혼례문화 교육으로 예비 신부 교실 및 올바른 함 주고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강릉 YMCA에서는 여성건강권지키기, 여성폭력추방운동, 이주여성 인권 및 생활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운동으로 육아 민들레 조직 및 활동,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성 평등 육아 교육, 어린이 안전 보장 환경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문진문화교육센터에서는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 알선 운동으로서 아기돌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강릉시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린 자녀 때문에 센터의 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표 4-40〉 인터넷 조사 결과: 여성단체

구분	내 용
강릉시 여성 단체 협의회	- 복지사업: 수해복구사업지원활동, 각 단체별 결연후원활동, 동거부부 무료합동결혼식 후원 - 문화활동: 난설헌 추모사업, 신사임당 일 선양사업, 단오제 행사 지원 - 환경 및 소비자보호활동: 남대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소비자보호운동, 피서지환경정화활동 - 여성정책 및 여권신장운동: 강릉시여성대회개최,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대한 주부 클럽	- 사회활동: 바람직한 혼례문화보급, 훌륭한 아버지상 시상식, 각종 소비자 보호 운동, 장묘문화개혁을 위한 의식 조사 및 강연회 - 신사임당 행사: 예능 대회를 통한 주부 예능자 발굴

연합회 강릉 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 운동 - 저소득 아동생활 지도 사업: 방과후 공부방에 교사 파견 - 초등학생 방학특강, 생태탐방교실 및 탐조여행 - 주부감시단원 운영: 에너지 절약, 물가·명예 식품 감시 등, 가정의례 지도원 파견 - 혼례문화교육: 예비신부교실, 예식장수모교육, 폐백음식만들기 및 올바른 함 주고받기 특강
강릉 YW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운동: 여성건강권 지키기 운동, 여성폭력추방운동, 이주여성 인권 및 생활정착을 위한 활동 - 아동·청소년 운동: 육아민들레 조직 및 활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양성평등 육아 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환경 만들기
주문진 문화 교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전시회 개최, 여성상담, 여성인력 사회활동 참여 알선(가정파출부, 아기돌보기, 식당, 여관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여성 문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사업: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작품 전시회 등 - 구인·구직 무료취업알선창구(가정파출부, 아기돌보기, 식당, 여관 등) - 여성활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목욕, 이미용, 말벗, 노력봉사, 구필봉사 - 어린이집 운영: 어린자녀 때문에 수강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센터 내에 개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수강생자녀(36개월 이상~미취학아동) · 운영시간: 월~금, 수강시간에 한함 - 만남의 장 운영
울곡 평생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대학강좌(매주 금 오후 6:30~8:30, 수강료 100,000원) - 생활중국어(매주 월수금 오후2:00~4:00, 수강료 100,000원) - 서예반(매주 목 오전10:00~12:00, 수강료 100,000원) - 사임당 예절·다도대학(매주 화 오전10:00~12:00, 수강료 100,000원)

나.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심층면접은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ㄷ 어린이집과 ㄱ 어린이집,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ㄹ 어린이집과 ㄴ 어린이집, 그리고 하동군에 있는 ㄷ 어린이집 다섯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육시간은 다섯 군데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전후로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강릉시의 ㄴ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동군의 ㄷ 어린이집이 영아전담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다섯 군데 모두 정규 보육 시간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간연장보육 혹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 연장 보육 대신 성동구의 ㄷ 어린이집에서는 당직 교사를 이용하여 정규 보육 시간을 전후로 해서 1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간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면접 대상 어린이집 모두 제도상의 문제와 보육 수요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첫째, 시간연장 보육 혹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모두 정원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종일제 아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정원 수가 감소하게 되어 어린이집 측에서는 수익성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간연장보육이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 둘째, 시간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은 항시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간헐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셋째, 시간제보육과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규보육시간의 교사 외에 새로운 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좋은 시설로 이전하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정부의 규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아전담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하동군의 ㄷ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건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어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려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으나 이사 가는 경우 영아전담지정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편, 서비스 제공 대상 정원 수를 늘리려 하여도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지정 받아 운영하

고 있는 강릉시 □ 어린이집은 방과후 교실 1개 반을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변에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정원을 확장하려 하여도, 교사 1인당 아동 20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아동을 받으려 하면 교사를 추가적으로 1명 더 고용해야 하였다. 교사 1인을 더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 현재 교사 1인에 20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임을 잘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보육시설 원장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각종 사회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원장이 부모 상담을 통하여 홍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아동 부모와의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가 저소득층으로 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동구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노력으로 복지관 상담 치료와 연결시켜 준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시 ○어린이집의 경우, 위기 아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센터에 대한 홍보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더욱이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는 부모의 욕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에서는 컴퓨터, 영어, 한자 등 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방과후 교실이 끝나고 사설 학원으로 가는 아동들도 상당수 있었다.

<표 4-41> 심층면접결과: 어린이집

구분	주요 면담 내용
ㄷ어린이집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은 있으나, 어린이집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 추가로 아동을 받기 어려움 · 주변에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으나 정원이 정해져있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시간제 보육, 24시간 연장 보육 등 보육 서비스 종류를 확장할 의향은 있으나 제도가 번거롭고 행정상의 부담이 커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연장보육서비스를 간헐적으로 받으려는 아동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고정적인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임 (용통성있는 운영이 필요함) -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임. 정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직 교사가 근무함. · 정규시간 이외 근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음. · 추가근무시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함 -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음.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홍보를 직접 하였음 - 종교 부설 어린이집으로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음 · 하수도, 보일러, 외벽 수리 등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 부모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교육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움 · 그 이유는 부모의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임 ·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음
ㄱ어린이집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지역의 어린이집 · 80%이상이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90%이상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엄마(비정규직) · 조손가정의 경우 노환으로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혜택 정보를 전달해 주었음 · 사회복지사, 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 희망나눔과 연결시켜 줌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 엄마를 설득하여 복지관 상담 치료와 연결시켜 준 적 있음 · 그러나 복지관의 상담치료가 정원이 다 차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음 ·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차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음 - 교회 부설 어린이집으로 교회로부터 시설 개보수, 공과금 납부 등의 지원을 받음
ㄱ어린이집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보육, 연장보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으나, 수요가 있기는 함 · 적은 수요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새로이 마련하기는 어려움 · 시간제 보육과 연장 보육을 원하는 사람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 (이동 거리가 멀 수도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만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현장학습, 특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함 - 국제결혼가정 (조선족, 필리핀, 중국)의 자녀 중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음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지역의 어린이집으로서 3세~7세 유아 대상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대부분이 정동진 등 관광장소에서 상업을 하고 있음. 일하는 엄마 80% - 낙후된 지역에 위기 아동이 많이 있으나 청소년지원센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 센터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으며 부모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구도 없음 - 부모들이 자녀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태 · 부모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도 단지 1~2명 참석 정도, 안내문을 발송해도 거의 보지 않음 · 부모 교육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의 필요없다고 응답함 - 동네에 학원이 거의 없고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음. 1개의 학원만이 차량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모아서 가는 수준임
ㄱ어린이집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 운영시간: 방과후~오후 5시 30분 (정부규제 4시간 지정) · 교사인력: 교사1명, 영어지도강사 1명 (교사 1인당 아동 20명) · 교육내용: 숙제지도, 알림장확인, 특기교육(컴퓨터, 영어, 한자) · 학원의 경우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나,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은 식사를 제공하고 비용이 학원보다 저렴함. · 학원은 정시에 마치는 반면, 어린이집은 부모 사정시 좀 더 늦게까지 돌보아 줄 수 있음 ·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층 중심이나, 어린이집 방과후는 일반 아동 중심이어서 일반 가정의 수요가 높음 ·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친밀도가 높음 · 방과후 교실을 오후 5시 30분에 마치고 이어서 학원 수업을 받으러 가는 학생도 있음
ㄴ어린이집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전담 민간 어린이집 · 0~2세 유아 20명 정원, 보육교사 5명 -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제공하지 않음 · 정원 아동에 포함되어 종일제 아동을 더 받을 수가 없음
ㄷ어린이집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상, 비용상 비효율적임 - 영아 전담 민간 어린이집 · 0~2세 유아 20명 정원, 보육교사 5명 -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제공하지 않음 · 정원 아동에 포함되어 종일제 아동을 더 받을 수가 없음 ·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상, 비용상 비효율적임 · 시간제 보육의 교사 인건비가 시간당 2,500원이기 때문에 수지에 맞지 않음.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어려움이 따름 ·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규제가 너무 강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하동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보육수요가 많음 - 시설이 낙후되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이사가면 영아전담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임 ·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질 향상이 어려운 실정임

2)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로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공부방과 ○아동센터, 하동군에 있는 □공부방을 방문하였다. 세 공부방은 모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지만 지역적 환경과 원장의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센터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 비율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50% 비율로 받고 있었다.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각각 50%로 통합함으로써 센터가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아동센터가 저소득층만 가는 곳이라는 낙인 효과를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실력 있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어, 태권도, 피아노 등을 교육함으로써 민간 영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저소득층은 무료)에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급식 제공 및 숙제 지도를 도와주고 있어서 일반 학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육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가 제공하기 힘든 체험학습, 문화행사 참여 역시 제공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호응도가 좋았다. ○아동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센터가 위치한 곳이 일반 아파트 단지로서 낙후된 지역이 아니어서 저소득층 아동의 수요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변에 실력 있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일반 학원에 뒤지지 않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동센터라고 하는 곳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러한 재원 및 시설이 일반 아동들에게 제공된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낙인효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동과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또 하나의 공부방인 ○공부방은 ○아동센터와는 아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공부방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도 수요가 넘쳐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 아동을 받을 여유가 없었으며, 일반 아동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학원과 같은 수준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 아동의 부모들도 이용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몇몇 일반 아동의 경우 공부방 이용 시간 도중에 학원에 가곤 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아동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성동구의 경우 낙후된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공부방은 주위의 아동들만이 올 수 있어 현재 성동구에 있는 방과후 공부방으로는 전체 성동구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하동군에 위치한 □공부방도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농촌 지역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특기 적성을 교육시킬 자원 봉사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원장 목사가 영어를, 원장 목사 부인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주로 저소득층 아동이 중심으로 위기 가정의 위기 아동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센터가 문제 있는 아동들만이 가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 일반 가정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한편, 차량으로 아동을 저녁 때 바래다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 경계선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어 면 지역을 넘어선 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동군에 공부방이 세 곳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세 곳의 공부방이 하동군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로 판단된다.

〈표 4-42〉 심층면접결과: 방과후 교실

구분	주요 면담 내용
○아동센터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초수급가정,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 가정 - 보육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보호 서비스 제공 - 일반아동과 저소득아동의 통합교육 실시 (일반가정자녀 50% + 저소득가정자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계층 자녀만 받는 경우, 문제성 있는 아이들만 오는 곳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의 우려가 있음 · 일반아동의 비율을 높여서 아동센터가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함 ·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들과 어울림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봄 · 성동구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방과후 공부방은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저소득층 자녀만 받다보니 방과후 공부방이 슬럼화 되어 낙인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임 · 센터의 위치 및 시설도 민간 어린이집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일반가정 자녀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영어, 태권도 등 특기 교육 제공 · 학원에 보내는 경우, 숙제 지도, 급식지도 등 보육지원이 되지 않고, 여러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위험도 따를 수 있음 · 급식지원 문화 프로그램 제공, 간식 제공등을 하고 있어서 취업모들의 호응도가 좋음 · 센터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숙제지도, 급식 등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받을 수 있어 안전함 · 센터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일반 아동들의 참여도 높음 - 구청으로부터 한달에 200만원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센터를 운영하기 어렵고 자원봉사자 활용, 기부담,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현재 자원봉사자 31명) - 센터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직 심각하지는 않으나 민간 어린이집, 학원과의 마찰 가능성도 우려됨 - 센터 내에 장애아동 1명 있음. 장애아 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아동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음 - 자녀 교육 관련 부모 상담 제공
○공부방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지역의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위기 청소년이 많은 지역임. 청소년끼리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청소년 지원센터가 없음 · 결식아동에게 무료 급식 제공 - 저소득층 아동들만 대상으로 해도 수요가 넘쳐 대기자가 많은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아동을 섞을 여유가 없음. 일반 아동의 경우, 학원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 · 일반아동의 경우, 방과후 수업 도중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아동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일반 아동과 함께 섞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 현재 3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교사로 활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6월부터 복지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로부터 태권도 교사 1명, 실무지

	<p>원교사 1명 등 총 2명 지원받을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동에 3곳 공부방이 있으나 걸어서 올수 있는 아동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대기자도 많은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 아동센터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음 -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되는 실정이며, 기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교사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음
<p>□공부방 (하동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가 교회인 지역아동센터 - 인력: 교사 1~2명, 아동복지교사 2명 - 대상: 저소득층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생 20~25명 (초등학생 2/3, 중학생 1/3), 현재 대기자 10명 - 운영시간: 방과후~오후 9시, 10시 (학기중), 오전10시~오후6,7시 (방학중), 야간 서비스 이용 아동 10명 - 제공서비스: 보호(급식, 보육서비스), 교육(기초교육, 특성교육), 문화체험(현장 학습), 놀이문화 제공 - 차량운행으로 송영서비스 제공, 먼 경제선까지 운행함 -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적은 교사 인건비 때문에 고급 교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예능 교육을 자원 봉사로 제공할 인력이 부족함 · 목사님 부인이 피아노 교습을 직접하고 있음 - 위기 아동 때문에 일반 아동들의 이용도 낮음. 일반 가정 부모들이 센터에 보내려고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아동에 대하여 청소년 지원 센터와의 연계가 없음 · 문제없는 아동과 문제있는 아동을 함께 교육시키는데 어려움

3)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로서 강릉시와 하동군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였다. 청소년 지원 센터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 수요 분석 결과에서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청소년 지원 센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곳의 청소년지원센터 방문하고 난 후 그 원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판단되었다. 첫째, 접근성의 문제이다. 두 곳의 청소년지원센터 모두 시설을 대폭 확장

하여 새로운 곳으로 최근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곳은 모두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었다. 따라서 센터로 오기 위해서는 자가용 혹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위기 청소년이고 위기 청소년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저소득층이 센터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외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 센터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중심부에 위치한 청소년센터가 외각 지역의 실정 및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되었다. 하지만 외각 지역에 몇 안되는 수요자를 위해 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도 재원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았다. 상담 서비스를 문제가 심각한 사람만이 받는 치료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부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했을 때에는 센터가 주로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하였다고 한다. 하동군의 경우 부모 대상 교육을 2년에 1회 500명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진행하는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학교, 면사무소에서 인원을 강제로 할당하여 부모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셋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다. 민간 상담 기관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시간당 비용이 10만원인 영리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가를 하고 1만원인 공공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센터 내에서 같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유료로 제공하면 상담자의 태도가 좋고 참여율도 높은 반면에, 무료로 제공하면 태도도 나쁘고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로 참여하게 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상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료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상담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의 프로그램 자체도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새로운 건물로 오기 전에 중심부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때 주로 오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센터가 중산층 거주 지역 장소로 이전한 후에는 주로 중산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중산층 부모들은 상담 효과를 학업 성적과 연결시켜 효과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 보다는 교육적 상담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었다.

강릉의 경우 서울에 있는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상담 센터에 간다는 소문이 두려워서 혹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중산층의 경우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센터에서 받는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경우 다시 강릉의 센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가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4-43〉 심층면접결과: 청소년지원센터

구분	주요 면담 내용
청소년 지원센터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위기청소년, 위기가능청소년, 일반 청소년 예방 교육 활동 - 먼곳에 떨어져 있는 청소년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인프라가 있어야 함 - 센터이용에 대한 소문이 두려움 효과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서울에 있는 상담소 이용 (서울과 3시간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데도 유명한 의사, 치료사 등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 찾아 가는 경우가 있음 ·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경우 다시 강릉으로 돌아옴 · 하지만 정작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여 서울로

	<p>가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비용 문제 때문에 가지 않는 아동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대부분 상담 효과를 학업 성적과 연결시켜 판단하여 성적이 올라가면 상담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은 심리상담 보다 교육적 상담을 더 선호함 - 센터가 이전에 도심의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였을 때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설립하면서 중산층 지역으로 오게 되자 성격 검사 (유료 상담) 등 중산층 자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상담 센터가 이전에 도심의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들어오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았음 -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중산층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데리고 와야 하는데, 부모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어 데려올 사람이 없는 실정임 - 과도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 상담소로 가는 이유는 공공서비스가 질이 낮다는 잘못된 의식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질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10만원의 영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좋다는 평가를 하며, 1만원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 좋다는 평가를 함 · 센터 내에서도 같은 서비스에 대해 유료로 제공하면 상담자의 태도가 좋고 참여율도 높으나, 무료로 제공하면 태도 나쁘고 참여율도 저조함 · 자율로 참여하게 하는 무료 서비스는 상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상담 효과가 더 큼 - 강릉시 외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로 부모 및 보호자가 데리고 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외곽지역에 따로 상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강릉시 외곽 지역에 대해 실정을 잘 모르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애로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예산 부족 때문에 다른 도에 비교해 센터 수가 적고 (5개소), 시 사업비, 자원봉사자 수도 적은 실정임 - 사업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국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상담은 강릉시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과 개인 상담을 같은 팀에서 운영
<p>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하동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소년, 초기 청소년(취학전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50%) + 학교 의뢰(50%) + 자체 발굴 · 상담 전문 인력 2명 · 주 업무는 상담으로서 청소년 캠프, 수련 활동, 교육 활동도 제공함 - 하동군에는 민간 청소년 상담시설이 없어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 읍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없어 차량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함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 및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프로그램(20명 내외), 대강연(2년에 1회 실시, 500명 내외) · 하지만, 대강연의 경우 스스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학교, 면단위에 인원을 배정하여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고 있음 - 기관이 명칭이 가족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센터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 상담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주로 문제 아동에 대한 치료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관에 대한 홍보는 이파트 우편물 발송, 안내문 발송, 군에서의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4)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으로 서울시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심층 면접 하였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하동군복지관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하동군 지역의 최우선 순위 문제는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한정된 재원으로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강릉시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강릉시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 프로그램 보다 노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하동군에서 육아 지원 문제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문제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동군에 아동수가 적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유대감이 강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주변에 대신 돌보아 줄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수적인 사고가 강하여 아이는 부모가 돌본다 혹은 스스로 자란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복지관에 있는 여러 봉사 단체도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은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에 아동 대상 논술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방과후 교실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방과후 교실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주로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복지관 공부방이 전체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방과후 교실의 이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동 마다 점조직 형태의 공부방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관 예산 및 인력으로 추가적인 공부방을 지역 내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여성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세 복지관 모두 실패하여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대신 여성을 위한 여가 활동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자격증 교육을 한때 실시하였으나 복지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며, 자격증 자체가 취업을 보장해 주거나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교육을 도중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 강릉시복지관에서는 여성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문 강사를 섭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여성들 역시 보다는 시설에서 강좌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었다. 하동군복지관에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 보다는 취미 강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하동군복지관도 기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여성들이 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미약하여 중간에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을 중단하고야 말았다고 한다.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옥수·행동장애·언어장애 아동에게 놀이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1회 서비스 당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영리 상담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성동구에 위치한 공부방을 심층 면접한 내용에서 지적되었듯이 공부방에서 복지관에게 심리치료를 의뢰한 아동의 경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 사회 저소득층 위기 자녀의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강릉시복지관의 경우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4-44〉 심층면접조사 결과: 사회복지관

구분	주요 면담 내용
옥수 종합사회 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지역 1곳 (중산층 15명+저소득층 5명), 저소득지역 1곳 · 정원: 각 반당 20명 · 1개월 비용: 일반아동(74,000원), 저소득(50%감면), 수급자(무료) · 운영시간: 방과후~저녁 8시 30분 (송영서비스 제공) · 학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 및 안전성 보장, 보육제공 · 야간보호교실 (오후6시~9시) 운영, 모자가정어머니를 교육시켜 야간 보호 교사로 활용함(공동모금회지원으로 급여 제공) · 장애아동통합운영 (현재 장애아 수 10명) · 저소득층지역 방과후 교실에는 석식, 목욕·위생·치과 서비스 제공, 사례복지사를 이용하여 부모상담, 주거환경관찰 등 재가 서비스 제공 · 홍보방법: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리스트를 받아 홍보지 전달 및 전화 연락 · 무상 봉사활동자 많이 않아 인력 문제 있음 · 저소득층 이용으로 인한 낙인 효과, 일반가정의 경우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음 ·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2개의 방과후 교실이 역부족 · 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동마다 점조직 형태의 방과후 교실 운영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시설 자원로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기업체 등 지역사회 영리자원에서부터의 지원 필요) -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까지 운영하다 지금은 중지 상태 ·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 · 제빵, 요리 등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자격증 자체가 취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을 중단하였음. · 예쁜 손글씨 등 집에서 스스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선호함 · 주부들이 여가 활동 강화를 더 선호함 - 상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상담 및 성인 상담 제공 · 놀이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학교 부적응, 행동장애, 언어장애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사가 있어 영리 상담센터와 비슷한 서비스 제공 · 비용: 1회당 2~3만원 · 아동상담은 연간 800~9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가족 상담의 경우 서비스 받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음 · 학교에 나가서 서비스 제공, 징계명령 받은 아동 대상 상담 제공

하동군 종합사회 복지관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인력 2명 - 이용시설: 여성과 노인의 집(쉼터),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여성시설 -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주로 하동읍이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단위에서의 수요가 적고 산골 운행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하동읍에 살고 있더라도 대중교통 시설로 연결되지 않아 자가용으로 와야함 - 하동군 지역의 최우선 순위의 문제는 노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에서 아동수보다 노인수가 더 많음 · 봉사단체도 주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육아지원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음 - 하동군에서 육아 지원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에서 아동수가 많지 않음 ·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 주변에 돌보아 줄 사람이 많이 있음 · 또한 아이는 스스로 자란다 혹은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생각이 강함 - 아동 눈술 글짓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강의료가 비싸서 외부 강사를 모시기 어려웠음 - 여성 대상 교육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수업보다는 취미 교육이 더 인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능 중심의 교육을 주로 제공하였으나, 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미약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 수업이 중단되었음
-----------------------------	--

5) 여성단체

여성단체로 강릉시에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와 하동군에 위치한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자 여성단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관련 캠페인, 홍보, 교육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 여성단체 협의회 경우 출산 장려를 위한 한자녀 더 낳기 캠페인,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 “엄마 아빠 동생 낳아 주세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강릉인구늘리기” 캠페인, 양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학교 운영, 결혼이민가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성단체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자원봉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강사

교육 및 교육 재료 구입에 소요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편,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서비스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의 민간 보육 시설 및 학원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간보육시설과 학원이 반대한 표면상의 이유는 여성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으나, 실제로는 보육 서비스의 영역 침범에 대해 수익의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육아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는 강릉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단체들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가족 생활 관련 상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단체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야 하는데 강사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하동군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는 하동군에 있는 유일한 성인 대상 상담소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결혼 이민자, 학생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문제성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소에 찾아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담은 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관보나 면사무소 방송 등을 통하여 상담소를 홍보하지 못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일한 홍보 방법으로 프로그램 제공, 캠페인, 플렛카드 설치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담소에서 일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담소 자원 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한편, 상담소가 읍에 위치하고 있어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직접 찾아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호응도가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최근 하동군에도 결혼 이민자 가족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남편 혹은 시부모들이 한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수강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표 4-45〉 심층면접조사결과: 여성단체

구분	주요 면담 내용
강릉시 여성단체 협의회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관련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장려를 위한 한자녀 더 낳기 캠페인 ·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 “엄마 아빠 동생 낳아 주세요” ·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제 살리기 (강릉인구늘리기) ·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학교 운영 - 캠페인 추진을 위한 인력은 충분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콘텐츠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원봉사인력은 충분하나, 강사교육 및 교육자료 구입에 사용할 충분한 재원이 필요함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사업 추진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여성 자원 봉사자 인력을 교육시킨 후 추진하려 하였음 · 실패한 주된 이유는 민간 보육시설 및 학원에서 영역 침범에 대한 극심한 반대. 표면상의 반대 이유는 자원 봉사자들의 전문성 결여 · 여성단체도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화 필요 혹은 시의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족 생활 관련 상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강릉시 여성단체 협의회 (강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 강사를 모셔야 하는데 이에 비용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이민자가족지원사업으로 168세대 가정을 직접 방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원 사업으로 올해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됨. 교육 받은 자원봉사자 인력의 연속적 활용 어려움
성폭력 상담소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에 있는 유일한 여성 상담소 - 성폭력, 가정폭력, 결혼이민자, 학생 상담 제공 - 보수적인 농촌 환경으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문제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 상담소에 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 대부분의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비밀리에 이루어 짐 - 상담소가 읍에 위치하고 있어 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시 호응도가 낮음 - 성폭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상담소를 관보나 면사무소 방송을 통해 거의 홍보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공, 캠페인, 플렛카드 설치 등이 유일한 홍보 방법임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하나 성폭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결혼 이민자 대상 한글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나 시부모가 교육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제5장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제 1 절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세 지역 모두 친인척에 의한 산후조리서비스였다.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친인척 자원 이외에도 병원으로부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료서비스 이외)를 받은 경우가 있었던 반면, 하동군에서는 민간영리자원인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무하였고 대부분 친인척과 이웃·친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친인척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는 있었지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전문적인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있었다. 또한 상담기관, 여성단체,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비용 부담과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근성의 문제는 하동군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성동구와 강릉시에서는 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말한 반면, 하동군에서는 신뢰성 이외에 접근성을 전문성 보다 더 많이 지적하였다. 실제로 하동군에서 병원 혹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읍면동을 벗어난 하동군, 하동군을 벗어난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구, 다른 광역시 혹은 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동군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병원에서 받기 원하는 사람 중 75%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임신 출산 관

련 서비스를 전문적인 시설로부터 받고 싶어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은 농촌 지역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1〉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구분	조사결과 종합	정책적인 시사점
공통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친인척에 의한 산후조리서비스 · 비공식자원보다는 전문적인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함 · 전문적인 시설에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서비스를 전문적인 시설로부터 받고 싶어 하지만 비용과 접근성 문제 때문에 대부분 친인척 자원을 활용 · 전문적인 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지역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 친인척 자원 이외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꽤 있음 성동구 · 서비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신뢰성과 전문성 강원도 강릉시 · 민간영리자원(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무함 경남 · 대부분 친인척 혹은 이웃·친구로부터 하동군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전문적인 시설로의 접근성 문제 심각 	

2. 영유아보육서비스

주요 조사 결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은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시설이 었고, 경남 하동군의 경우는 본인 자신이 돌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모든 지역의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원으로 본인 자신을 가장 많이 들었다. 본인 자신이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한 것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신뢰성과 접근성이라고 응답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자원은 바로 본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본인 자신을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비단 취업만의 이유는 아니었다. 미취업 여성의 상당수가 본인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현대 사회에서 여성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이제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본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본인을 대체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육아지원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지역에서 대부분 육아지원시설이 민간영리시설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원은 민간영리 보육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간영리 보육시설이 본인 자신이 자녀를 돌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다. 수요 조사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해답을 주고 있다. 실제로 육아지원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자원은 여전히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육아지원시설이 자녀를 맡기기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보다 적었다. 육아지원시설이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 조사 결과에서는 비용문제, 서비스의 질 문제, 접근성 문제 등으로 지적되었다. 보다 분석적인 이유는 자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유아 보육에 대한 비용 문제는 특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재 즉 어린이집의 자율로 맡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조사 결과, 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은 그 운영시간 및 일과표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보육 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2시

까지이며 이 정규 시간의 보육에 대해서만 보육료가 정부로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후 오후 6시까지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프로그램과 종일제반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이 필요한 계층은 낮시간 동안에 육아를 담당할 수 없는 여성이다. 따라서 낮시간 동안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여성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인터넷 조사 결과는 이러한 특기교육 프로그램과 종일제반의 운영 형태가 어린이집 마다 다양하여 그 비용 또한 천차만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보육료에 특기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2~3과목씩 특기 프로그램을 묶어서 모두 신청하도록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한편, 종일제 수업은 특기 교육이 끝난 후에 제공되기 때문에, 종일제 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기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었다.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은 정부가 특기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정규 보육 시간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보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이 지역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해 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공공 보육시설이 해결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서비스 질의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조사 대상에 속하는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여도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좋은 시설로 이전하려 하여도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지정받은 영아전담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낙후된 시설에 계속 남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오전과 저녁에 추가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여도 시간 연장 보육을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야

하고, 이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등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야만 했다. 아동수를 정원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었으며, 시간제 보육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 아동을 맡길 필요가 있는 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 접근성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은 읍면동 내에서 이동시간 20분 이내 소요되는 위치에 있는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영유아 보육 시설은 주거지 근처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동구와 하동군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지역적 편중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성동구와 하동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은 읍면동에 있는 10분 이내 거리의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릉시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데다, 민간 보육시설도 주요 중심지에 몰려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같은 읍면동을 벗어난 강릉시내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성동구와 하동군 보다 더 소요되는 20분 이내 거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전반적으로 세 지역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사항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육아지원시설은 성동구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육아지원시설에 대해 여성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보육 비용 문제와 서비스 질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 비용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특기교육비용과 종일제 보육 비용 때문인데, 중

소도시인 강릉시와 농촌지역인 하동군에 비하여 성동구는 보다 특화된(예를 들면, 영어요리수업, 발레, 영재교육 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특기교육비용이 강릉시와 하동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강릉시의 경우도 성동구와 비슷하게 많은 수의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있었다. 성동구의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를 같은 읍면동에 있는 시설에 맡기고 있는 반면, 강릉시에서는 읍면동을 벗어난 강릉시내의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강릉시에서 민간 보육 시설이 강릉시의 중심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민간 보육 시설은 접근성 측면에서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 성동구 보다 강릉시가 접근성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 경우, 성동구와 강릉시와는 다르게 많은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스스로 돌보고 있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에 적절한 자원도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보수적인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농촌 지역 여성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보다는 농사일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로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 형태의 여성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여성보다는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아동을 직접 보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년 내내 고정된 업무에 종사한다기 보다 주로 농번기에 일하고 농한기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농촌 지역의 강한 지역적 유대감으로 급할 경우 이웃에 아이를 잠시 맡기는 것이 가능한 것도 시설 이용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 인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사람도 농번기에는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하고 이때 친인

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맡기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 때 발생하는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영유아 보육 서비스

구분	조사결과 종합	정책적인 시사점	
공통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 육아지원시설 (성동구, 강릉시), 본인(하동군) ·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원은 본인 · 서비스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신뢰 성과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시설이 여성들의 영유아 보육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 그 원인은 비용문제, 서비스질 문제, 접근성 문제임 	
지역 적 인 특 징	서울시	· 접근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음	· 비용문제는 특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규제 부재가 원인 · 중심부에 위치하여 외각지역에서의 접근성 문제 야기
	성동구	· 보육 비용 문제, 서비스 질 문제 · 과도한 특기교육비용문제	
	강원도	- 접근성 문제	
	강릉시	- 보육 비용 문제, 서비스 질문제	
	경남 하동군	- 자녀를 직접 키워야 한다는 인식 강함. 실제로 직접 키우는 여성 비율 높음 - 농번기 계절적인 보육 서비스 수요 충족 필요	

3.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에 대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에서는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하동군에서는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를 받기 적절한 곳으로 성동구는 역시 학원을 많이 지적한 반면에, 강릉시와 하동군은 본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로 성동구와 강릉시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적하여 교육의 질에 가장 많은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하동군은 신뢰성 이외 접근성을 지적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변에 제공 기관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성동구의 경우, 같은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에 있어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이 교육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급식이나 숙제지도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학원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에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학원에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전담하는 것은 교육비 부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 안전 측면에서도 부모의 양육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켜 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다수가 방과후 수업이 끝난 후 사설 학원으로 간다는 사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초등학교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 읍면동을 벗어난 강릉시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학원의 위치도 강릉시의 변화가 중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학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어린 자녀를 강릉시내 학원에까지 보내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 경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 거의 같은 읍면동에 있는 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하동군의 경우는 대부분 읍면동 내에 있는 학원 시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수의 하동군 여성들이 농번기에 일용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이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농번기에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센터, 공부방의 이용자 수도 극소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은 본인 스스로 맡고 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대부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 자녀들이 방과후에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공부방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부방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만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원 현황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사회에서의 공부방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보육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요 조사 결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성동구의 경우 방과후 교실 혹은 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인데 반해, 강릉시는 1명, 하동군은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공부방과 아동센터의 부족 현상은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과후 교실은 저소득층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과후 교실 자체가 빈곤 아동들이 모이는 장소로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방과후 교실의 슬럼화는 곧 방과후 교실이 위기 아동들만이 가는 곳이라는 낙인 효과를 가져와 부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방의 슬럼화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가져온다. 방과후 공부방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에 대한 상담과 부모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 아동 부모들이 아동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이 낮 시간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부모를 설득하여 복지관 등 공공기

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연결해 주어도 이미 복지관 상담 서비스에 수요가 넘치고 있어 필요한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표 5-3〉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서비스

구분	조사결과 종합	정책적인 시사점
공통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 학원(성동구, 강릉시), 본인(하동군) ·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원: 학원(성동구), 본인(강릉시, 하동군) · 서비스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신뢰성, 전문성(성동구, 강릉시), 접근성(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필요 · 대도시의 경우, 과도한 교육 비용, 학원 이동에 따른 아동 안전 문제 해결 필요
지역적인 특징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도시의 경우, 민간 영리 시설(학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 농촌의 경우, 농번기에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자원 활용 필요 ·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교실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방과후 교실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동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을 때 방과후 교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위기 가정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문제 행동의 횟수도 줄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정부의 한정된 자원 때문에 일반 아동에게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뜩이나 방과후 교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가족 생활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은 대부분 이웃이나 친구 혹은 친인척 등 비공식적인 자원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담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하동군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하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상담은 대부분 상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 지역 모두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문적·비공식적인 자원을 적절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실제로 이용한 비율보다 낮았으며, 실제 이용율은 낮았지만 전문상담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율보다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현재 비공식자원에 의해 이루지고 있는 비전문적 상담 서비스 보다는 보다 공식적인 자원을 통한 전문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 접근성,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영리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동구의 경우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복지관에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 여성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복지관에 올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인터

넷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례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복지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부모 스스로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공부방 원장 등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여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대기자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지적되었다. 종합컨대, 대도시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상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성을 위한 야간 상담 혹은 주말 상담 확대, 저소득층이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기,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강릉시의 경우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지역적 유대감이 강해 상담소를 이용한다는 소문에 두려워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릉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경우 공공 상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서울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는 비단 상담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인다. 여건이 되는 경우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까지 이동이 어려워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대도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강릉시의 경우, 교육기관, 단체,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다수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구 또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강릉시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대중 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가용을 가지지

많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중산층 지역으로 이주한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주로 지역에 있는 중산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프로그램 내용마저 중산층 위주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릉시민이 상담 서비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하동군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단 두 곳으로 모두 공공기관이었다. 하동군의 경우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강릉시 보다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는 모두 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 교통이 거의 전무한 하동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성폭력상담소는 하동읍의 변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었던 반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읍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부모 등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와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상담 센터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4〉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구분	조사결과 종합	정책적인 시사점
공통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 이웃·친구, 친인척 등 비공식자원, 인터넷(도시지역) · 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정보부족, 접근성,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은 대부분 비공식자원을 통해 비전문가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대다수의 여성들이 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고 있음
지역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공간적인 접근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나, 취업여성이 주로 말에 이용하기는 불편함 · 인터넷을 통해 정보 취득 · 대기자 수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필요 ·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설로의 접근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강릉시 · 상담소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함 · 경남 하동군 ·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성 문제 심각 	

5.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강릉시의 경우 43명으로 어느 정도 있었으나,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에서는 각각 8명과 7명으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강릉시에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성동구와 하동군은 광역시 혹은 도내의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지만 강릉시는 중소 도시로서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원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릉시에서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51개소가 되는 반면, 성동구에는 8개소, 하동군에는 2개소 밖에 되지 않았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시 여겨지는 요소가 전문성과 동시에 접근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같은 시군구 내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받음에 있어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

동구와 하동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풍부한 강릉시에 비하여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여성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서”를 지적하였으며, 미취업여성은 “자녀 양육”을 지적하였다. 취업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자기 개발과도 관련 있는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이 필요한 전문직 보다는 일반 사무직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 수 있다. 여성의 직장에서의 자기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후속 연구과제에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취업 여성이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을 지적한 것은 아직도 자녀 양육이 전적으로 전업 주부의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업 여성들을 유용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문제의 해결이 우선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또다른 이유로 하동군의 경우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다. 대도시인 성동구와 중소도시인 강릉시에 비하여 보수적인 농촌 지역인 하동군이 여성의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적한 반면, 심층 면접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과거에 자격증 관련 교육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수강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등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수강생들이 포기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받는다 하여도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소자본으로 집에서든 쉽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예쁜

글씨” 같은 과목은 수업이 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현실적으로 취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표 5-5〉 조사 결과 종합 및 정책적인 시사점: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구분	조사결과 종합	정책적인 시사점
공통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강릉시 (43명), 성동구(8명), 하동군(7명) · 서비스 선택 시 중요한 요소: 전문성, 접근성 ·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 “받을 필요가 없어서”(취업여성), “자녀 양육” (미취업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여성의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이 급선무임 · 현실적으로 취업과 연결되는 교육 및 훈련 제공 필요 ·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성 문제 해결 필요
지역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성동구 · 접근성 문제 심각하지 않음 강원도 강릉시 · 접근성 문제 심각 경남 하동군 · 접근성 문제 심각 · 정보 부족 문제 심각 	

한편으로,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역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시 성동구 등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공공기관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나, 강릉시와 하동군 등 지방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칫 주변에 거주하는(주로 시내 혹은 읍내) 여성들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하동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문화 강좌의 경우 대부분 하동읍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접근성 문제의 해결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임신·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는 모성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이웃·친구와 같은 비전문적인 자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거나 혹은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모성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주로 비공식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비공식적인 자원에 의해 주로 제공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영리자원,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자원, 여성단체와 같은 비공식자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 병원과 산후 조리원을 이용함에 있어 주로 문제시되는 것은 접근성 보다는 비용 문제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와 진료 이외 건강증진 및 정보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 병원 협회 등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되 대도시 지역에서는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고 여성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업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여성들이 산후조리서비스를 주로 친인척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산후조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성이 상당수 있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 부담을 지적인 바, 산후조리원 서비스 이용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한편, 현

재 정부에서 산모 도우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저소득층에게 국한되어 있어 중산층 이상의 여성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모 도우미 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그 대상을 일반 가정에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산모 도우미의 자격을 강화하고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은 대도시 지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에서는 민간영리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민간영리시설은 수익성에 따라 그 위치를 결정하므로 수익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진 공식적인 자원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영리자원보다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자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건소 혹은 사회복지관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면지역 등 외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농촌 지역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이 지역적인 유대감이 강하여 이웃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대도시 보다 강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마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는 전문성이 요청되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자원 봉사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 뒤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촌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도시 유형의 사업과 농촌 유형의 사업을 혼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서도 중심부에 거주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산후 조리원 등 민간영리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 또한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유대감이 그다지 크지 않아 마을 부녀회 등을 이용하여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 도시의 경우, 중심부에 있는 민간 영리 병원에게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사업을 병원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의 구지역과 농촌의 군지역보다 여성단체 조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의 충분한 자원 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사업의 혜택이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자원봉사들을 충분히 교육 훈련한 후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5-6〉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구분	정책 방안
공통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활용가능한 자원: 민간영리자원(병원, 산후조리원), 공공자원(보건소, 사회복지관), 비공식자원(여성단체, 부녀회)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병원협회를 활용한 모성보호 캠페인 · 정부 모성보호 사업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여 추진 -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의 현실화 - 산모도우미 사업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도우미 자격 강화,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부에서는 민간 병원을 활용하되, 외곽지역의 경우 보건소, 사회복지관 활용 - 여성 단체 조직을 활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교육 및 훈련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질 확보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활성화 - 지역사회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여 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교육 및 훈련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질 확보

2.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그 원인이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비용과 질의 문제이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과 질의 문제와 함께 시설로의 접근성도 문제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많은 수의 여성들이 직접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보육 시설의 서비스 비용과 질의 문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만큼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문제시되는 것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여성이 농번기에 근로하는 경우 본인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대도시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은 부족하지만 주변에 공공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충분히 있어 접근성에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시되는 것은 비용문제였으며, 이는 민간 어린이집 대부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면서 특기교육 및 종일반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중소도시나 농촌에 비해 크다. 자녀를 낮 시간 돌볼 수 없는 취업 여성들이 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여성로서는 이러한 특기수업과 종일반 수업을 모두 신청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보육시설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정규 보육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보육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규제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기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기교육비용으로 인한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게도 공공보육시설과 같이 특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이때 보육시설의 상황과 특기교육 및 종일제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보육시설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과 같이 보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수가 부족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은 농촌과는 달리 이동이 많고 지역적인 유대감이 강하지 못하여 정규 보육 시간 이외에 요구되는 보육 수요에 대하여 이웃·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육 시설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밖에 없는데, 보육 시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등 민간 시설의 입장으로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여성들의 노동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의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가 갖고 있는 보육시설의 비용문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 이외에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도시의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이 지역적인 편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민간 보육 시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요 중심부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외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각종 여성 단체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동 육아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각 지역에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신뢰성과 접근성임을 감안하여 자원 봉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 도우미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 봉사자에게 정부가 인증서를 제공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보육 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동군과 같은 농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비교하여 특히 여성들이 영유아 자녀를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실제로 본인 자신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는 경향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보다 강하다. 농촌 지역 여성들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 시설의 수나 분포도가 중소도시 보다 열악하지만 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5-7〉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영유아 보육 서비스

구분	정책 방안
대도시	-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교육·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중소도시	-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 도우미 서비스 활성화 · 여성단체 소속 자원 봉사자 활용 · 보육 도우미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격 강화
농촌	- 이웃 주민들 간의 육아 품앗이 활성화 · 부녀회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조직화 · 교육·훈련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질 관리

농촌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농번기 등 농사로 바쁜 시기에 자녀를 돌보아 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농촌 지역 여성들이 중시하는 요소가 신뢰성이고, 또 농촌의 경우 지역적인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자원 봉사자 등 외부 인력보다는 품앗이 형태로 이웃 사람을 자원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보다 조직적으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요청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신뢰감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주변에서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자원봉사자와 같이 정부로 부터의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이들 인력에 대해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으로 학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교육적인 서비스 위주로만 제공하게 되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교 자녀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취업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학원이 초등학교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는 않다. 대도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것은 교육비용,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 부재, 이동에 따른 위험성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어 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이 영유아 보육과 비교하여 더 크다. 보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 복지관 및 청소년 센터 등을 통하여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 복지관 및 청소년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대도시 내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별로 많지 않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도 대부분 그 대상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일반 영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다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공공시설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율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적으로도 민간 영리 시설에 못지않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변화되리라 본다.

한편, 취업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학원에만 맡길 때 급식과 숙제 지도와 같은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보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서비스는 공공 보육 시설과 복지관 등 공공자원을 통해 제

공될 수도 있으며, 민간 보육 시설 및 학원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한편, 비공식자원인 여성 단체들도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자원 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도시 여성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신뢰성과 전문성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여성 단체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성의 문제 혹은 영역 침범의 문제로 민간 영리 보육 시설로부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 단체 자원 봉사자들의 자격 관리가 중요할 것이며, 자격을 인정받은 자원 봉사자들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초등학교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면 한 시설 안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 학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동들이 처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은 방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비용, 보육 서비스 부재, 이동에 따른 위험성 문제 외에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은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민간영리시설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과 아동 단체와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보육에 있어서도 영유아 보육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하되 점조직 형태로 각 지역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마련하여 외 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까지 서비스혜택이 미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후에 스스로 돌보는 경우가 많고 또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를 스스로 돌보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많다. 농촌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평소에 자녀를 스

스로 돌볼 수는 있으나 농번기 때 일하러 나가는 경우 자녀들이 집안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사람을 활용하여 품앗이 형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회를 통하여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의 수가 필요로 하는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특히 친인척이 보육을 대신할 여력이 없으며 지역적인 이동이 많아 이웃을 잘 알지 못해 이웃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수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방과후에 집안에 방치될 위험이 많다. 방치된 아동들은 위기 아동으로 성장하여 위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방치의 문제는 건전한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의 부족은 대도시 보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양적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점 조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가 인력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센터나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인력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보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어 전공, 피아노 전공, 무용

및 체육 전공 대학생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원 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교실과 아동센터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 혹은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을 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위기 가정의 경우,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또 전달된다 하더라도 단 시일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밀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표 5-8〉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

구분	정책 방안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리자원과 공공자원의 조화로운 활용 -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복지관, 청소년 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수의 확충 및 질 높은 서비스 개발 -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복지관 등), 민간자원(학원 등), 비공식자원(여성단체 등) 활용 ·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질 관리,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복지관, 아동센터 등) -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점 조직 형태의 초등학교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수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센터 공부방 수의 확충 - 중앙을 거점으로 한 점 조직 형태 운영 필요 -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자원 봉사자 활용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 조직을 통한 육아 품앗이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등 보육 수요가 증가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 - 아동센터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상담 제공 · 상담 전문기관과의 연계 · 지속적인 사례 관리 제공

4.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아닌 이웃이나 친구 혹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어렵다. 더욱이 위기에 처한 가정의 문제를 더욱 부채질 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족 해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상담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은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도시보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훨씬 심각하였다.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잡힐 때 까지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화 상담을 활성화 한다든지, 상담소 간판을 눈에 잘 띄이지 않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소에 찾아가는 것을 잘 모르게 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소의 명칭을 “성폭력 상담소”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이 들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친숙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주위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보육시설의 원장, 아동센터의 원장, 병원 및

보건소의 의사,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담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상담 기관과의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부족은 상담 기관의 양적인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 상담에 대한 수요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같이 점 조직 형태의 시설을 각 지역에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역 중심부에 상담 시설을 마련하되 외각 지역에서 중앙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찾아 가는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외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까지 상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상담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여 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을 거주 지역으로부터 시설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평일 낮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 여성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간 상담 서비스 운영, 격주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9〉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

구분	정책 방안
대도시	- 국가 차원에서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전화 상담 활성화, 상담소 간판 간소화 등)
중소도시	-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정보 제공자로 적극적으로 활용 - 상담 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활성화
농촌	· 외각지역 거주자에 대한 차량 서비스 제공 · 야간 상담 서비스, 토일 격주제 상담 서비스 제공

5.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많은 수의 미취업 여성들이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으로 기술을 연마한 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원하나 육아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육아 문제가 여성의 노동 활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을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육아 문제 때문에 받고 싶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접 자녀를 보육하길 원하기 때문으로 본다. 여성이 본인 스스로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원한다는 것은 모성애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시 말해 본인 자신이 직접 키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미취업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마련이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자격증을 갖춘 여성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 및 훈련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되는 교육을 여성들에게 제공한 후 그러한 기술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에 있어 역시 접근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상담 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수요가 항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관을 지역에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상담 서비스와 같이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우편이나 방송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이 마친 사람들에게 한해 시험 등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0〉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구분	정책 방안
대도시	· 미취업여성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위해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
중소도시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훈련 제공
농촌	· 교육·훈련 후 기업과 연결하여 취업 알선 ·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우편, 방송, 인터넷 교육 제공

제 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 방안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 방안을 활용할 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보

다 현실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보다 심도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에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다섯 가지 서비스 이외에도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제시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연구의 범위 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사전 인터뷰에서 파악된 다섯 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과제에서는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이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사회 자원을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비공식자원으로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자원 유형의 구분은 충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자원을 구분하였는바, 자원의 유형을 정의함에 있어 본 연구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경우 다르게 구분될 소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원 유형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례 조사에서 각 지역 당 250명의 샘플을 연령별, 취업유무별, 자녀 수별 할당 비율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지만, 이러한 샘플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응답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추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별로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속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지만 엄밀하게는 조사 대상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 특성별 정책 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자원 실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 지역별로 접근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시설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대상 시설을 통해 지역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한해서만 다항로지 분석을 통하여 각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서비스 이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층 분석을 통한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유아교육특별연구단, 2007.
- 권선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1994.
- 김미숙 외,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개발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김미숙·김은정,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2005.
- 김범수·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2005.
- 김상균 외, 「지역사회자원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모형개발 연구」, 『사회복지연구』 3, 1991.
- 김수영, 『지역사회조직 및 관리기법』, 사회복지시설지도자과정 교육교재, 2003.
- 김영중,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3, 1994.
- 김영중,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4.
- 노연희, 「비영리 사회서비스조직의 재정자원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3, 2004.
- 문현정, 「지역사회복지관의 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석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현안분석자료』 14, 2007.
-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3.
- 서문희 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석재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교재 III』, 1999.
- 성북구청, 『성북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2007.
- 신준섭·최은미,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 2004.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6.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 이삼식 외,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b.
- 이승연, 『우리나라 보육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인재 외,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 이태수 외,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대통령직속저출산고사회위원회』, 2005.
- 전광현,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 전주현,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지은구, 『지역복지론』, 청목출판사, 2003.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감』, 2006.
- 최일섭, 류진석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 한국개발원,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2004.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주민서비스종합안내서제작지침』, 2007.

- 홍현미라, 「지역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경험의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2006.
- 황성철,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 2000.
- Borchorst, A., “Danish child care policy: Continuity rather than radical change,” pp.267~286,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Miche, S. & R. Mahon, New York: Routledge, 2002.
- Chan. Y., Biostatistics 305.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ingapore Medical Journal, 46(4), 2005, pp.259~269.
- Cunha, F., J. Heckman, L. Lochner, and D. Masterov,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IZA,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DP No. 1675, 2005.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Esping-Andersen, G., “Education and equal life-chances: Investing in children,” pp.147~163, in *Soc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dic countries*, edited by Kangas, O. & J. Palm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5.
- Fumie, K. and Kato, A., “Factors facilitating Japanese married women entering the labour force,” *Current Sociology* 55(4), 2007, pp.561~577.
- Hardcastle, D. A., Wenocur, S., & Powers, P. R.,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Hiilamo, H. and Kangas, O.,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Child

- home care allowance in Finnish and Swedish political rhetoric,” Paper for the inaugural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The role for social policy,” Organized by the Danish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Copenhagen, 13~15 November 2003.
- Jenson, J. and M. Sineau, “France: Reconciling republican equality with freedom of choice,” in *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edited Jenson, J. and M.Sineau,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2003, pp.88~117.
- Kettner, P. M., Moroney, R. M., & Martin, L. L., *Designing and Managing Programs: An Effective-Based Approach*, New Bury Park, CA: SAGE, 1990.
- Korpi, Walter, “Welfare State Expansion and Distributive Conflict: Partisan Politics and Institutions in the Golden Ag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conference of RC 19 in Toronto, Canada, 21~21 August 2003.
- Kotler, P., and G. Armstrong, *Principles of Marketing*, Prentice Hall, 2006.
- Kröger, T., “Parental leave and gender equality: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Review of Policy Research* 20(1), 1997, pp.89~114.
- Lanquentin, M., Laufer, J. and Letablier, M., “From equality to reconciliation in France?” pp.68~88, in *Gendered Policies in Europe: Reconciling Employment and Family Life*, edited by L. Hantrais, London: Macmillan Pres LTD, 2002.
- Leitner, Sigrid,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Belgiu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1st Annual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the Role of Social Policy*, 13~15 November, Copenhagen, 2003.
- Morgan, K., “Dose anyone have a “Libre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pp.143~16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Miche, S. & R. Mahon, New York: Routledge, 2002.

Rothman, J., Erlich, J. L., & Tropman, J. E.,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F. E. Peacock Publishers Inc, 1995.

Sentas, P., L. Angelis, I. Stamelos, and G. Bleri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s imputation method: Applied on Software effort prediction, 2003.

<http://lofin.mogaha.go.kr>.

부 록

-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분야 세부사업
- [부록 2]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결과표
-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터넷 조사 결과
- [부록 4]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수요자 욕구
조사 설문지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양육에 유리
한 환경조성 분야 세부사업

과 제	'05	'06	'07	'08	'09	'10	소관부처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여가부·교육부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여가부·교육부
▪ 두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여가부·교육부
▪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여가부·교육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림부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림부
②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교육부
▪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방과후 보육·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통합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교육부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재정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복지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복지부
④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건교부
▪ 다자녀 가정 육아지원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여가부
⑤ 국내입양 활성화							

과 제	'05	'06	'07	'08	'09	'10	소관부처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복지부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복지부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복지부
▪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여가부·복지부
▪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복지부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복지부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보육수요 충족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여가부
▪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교육부·여가부
▪ 직장보육시설 확충							여가부·노동부
②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여가부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여가부
③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여가부
▪ 유치원 종일제 확대							교육부
▪ 시간제 보육시설에 도우미 지원							여가부
▪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문화부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모성·영유아 보건전담센터 설치							복지부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복지부
▪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 여성 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복지부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복지부
▪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							복지부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복지부
▪ 모유수유 지원 확대							복지부

과 제	'05	'06	'07	'08	'09	'10	소관부처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복지부
② 불임부부 지원							
▪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복지부
▪ 산모도우미 지원							
▪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복지부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①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노동부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노동부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노동부
②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노동부
▪ 근로형태 유연화							노동부
③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원 확대							노동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노동부
▪ 전업 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여가부
④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여가부·노동부 복지부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여가부·노동부 복지부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부
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교육부
②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과 제	'05	'06	'07	'08	'09	'10	소관부처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여가부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문화부·여가부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여가부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①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							복지부
▪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안전 수준제고							교육부·여가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복지부
▪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복지부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복지부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효율성 강화							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홍보							복지부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복지부
③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교육부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교육부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청소년위원회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②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복지부
▪ 민간 모니터링 기구 설치							복지부

〔부록 2〕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결과표

〈부표 3-1〉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서울시 성동구)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멈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이웃 친구	21(8.4)	12(4.8)	4						
			8	3	0	0	0	1	4
친인척	109(43.6)	84(33.6)	69						
			15	8	1	0	1	2	3
보건소	4(1.6)	10(4.0)	2						
			8	1	2	0	4	1	0
병원	57(22.8)	83(33.2)	41						
			42	11	7	17	1	4	1
산후 조리원	32(12.8)	36(14.4)	20						
			16	0	0	13	0	0	3
대중 매체	21(8.4)	8(3.2)	6						
			2	1	0	0	0	1	0
상담 기관	2(0.8)	7(2.8)	0						
			7	1	5	0	0	1	0
여성 단체	1(0.4)	6(2.4)	0						
			6	1	5	0	0	0	0
사회 복지기관	1(0.4)	4(1.6)	0						
			4	2	1	0	0	1	0
기타	2(0.8)	0(0)	0						
			0	0	0	0	0	0	0
소계	250(100.0)	250(100.0)	250						
			(100.)	28	21	30	6	10	11

〈부표 3-2〉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강원도 강릉시)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멀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이웃 친구	15(6.0)	5(2.0)	3						
			2	0	0	1	0	0	1
친인척	113(45.2)	36(14.4)	25						
			11	1	1	0	3	2	4
보건소	13(5.2)	41(16.4)	9						
			32	0	21	0	5	5	1
병원	70(28.0)	77(30.8)	31						
			46	4	12	19	2	3	6
산후 조리원	25(10.0)	60(24.0)	10						
			50	0	3	43	0	0	4
대중 매체	14(5.6)	7(2.8)	2						
			5	0	3	0	0	2	0
상담 기관	0(0)	6(2.4)	0						
			6	0	5	1	0	0	0
여성 단체	0(0)	3(1.2)	0						
			3	2	1	0	0	0	0
사회 복지기관	0(0)	15(6.0)	0						
			15	3	11	0	0	0	1
소계	250(100.0)	250(100.0)	250 (100.0)						
			10	57	64	10	12	17	

〈부표 3-3〉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경남 하동군)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먼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이웃친구	37(14.8)	37(14.8)	34						
			3	2	1	0	0	0	0
친인척	151(60.4)	107(42.8)	105						
			2	0	0	0	0	2	0
보건소	7(2.8)	6(2.4)	2						
			4	2	1	0	1	0	0
병원	17(6.8)	37(14.8)	9						
			28	6	1	9	9	3	0
산후 조리원	27(10.8)	48(19.2)	22						
			26	0	1	21	4	0	0
사회 복지기관	1(0.4)	3(1.2)	0						
			3	3	0	0	0	0	0
대중매체	10(4.0)	12(4.8)	8						
			4	0	0	0	1	3	0
소계	250(100.0)	250(100.0)	250 (100.0)						
			13	4	30	14	8	0	

〈부표 3-4〉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영유아 보육(서울시 성동구)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 가 먼	정원 마감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64(39.5)	79(48.8)	56							
			23	12	0	0	1	0	6	4
친인척	7(4.3)	9(5.6)	3							
			6	3	1	0	2	0	0	0
유치원	34(21.0)	29(17.9)	26							
			3	0	0	3	0	0	0	0
어린이 집	41(25.3)	35(21.6)	29							
			6	0	2	4	0	0	0	0
학원	12(7.4)	7(4.3)	5							
			2	0	0	1	0	1	0	0
보육도 우미	3(1.9)	2(1.2)	1							
			1	0	0	1	0	0	0	0
방과후 교실	0(0)	1(0.6)	0							
			1	0	0	0	0	0	0	0
기타	1(0.6)	0(0)	0							
			0	0	0	0	0	0	0	0
소계	162(100.0)	162(100.0)	162 (100.0)							
			16	3	9	3	1	6	4	

〈부표 3-5〉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영유아 보육(강원도 강릉시)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 가 멀	정원 마감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53(36.1)	79(53.7)	36							
			43	30	1	1	0	0	0	6
친인척	15(10.2)	12(8.2)	2							
			10	3	0	2	3	0	1	1
유치원	23(15.6)	26(17.7)	13							
			13	1	0	5	2	0	3	2
어린이집	45(30.6)	20(13.6)	11							
			9	0	0	6	0	1	0	2
학원	7(4.8)	3(2.0)	1							
			2	0	0	1	0	0	0	1
보육 도우미	3(2.0)	6(4.1)	0							
			6	0	2	3	0	1	0	0
방과후 교실	1(0.7)	1(0.7)	0							
			1	0	0	0	0	0	1	0
소계	147(100.0)	147(100.0)		34	3	18	5	2	11	11

〈부표 3-6〉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영유아 보육(경남 하동군)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 가 멀	정원 마감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69(47.9)	102(70.8)	68							
			34	23	0	1	0	0	9	1
친인척	8(5.6)	5(3.5)	4							
			1	0	0	0	1	0	0	0
유치원	4(2.8)	2(1.4)	1							
			1	0	1	0	0	0	0	0
어린이집	63(43.8)	34(23.6)	34							
			0	0	0	0	0	0	0	0
보육 도우미	0(0)	1(0.7)	0							
			1	0	0	1	0	0	0	0
소계	144(100.0)	144(100.0)								
				23	1	2	1	0	9	1

〈부표 3-7〉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서울시 성동구)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먼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16(15.5)	25(24.3)	14						
			11	9	0	0	0	0	2
친인척	1(1.0)	6(5.8)	0						
			6	1	1	0	3	0	1
지역 아동센터	3(2.9)	3(2.9)	2						
			1	0	1	0	0	0	0
학원	78(75.7)	58(56.3)	56						
			2	0	0	2	0	0	0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3(2.9)	8(7.8)	2						
			6	3	0	0	0	2	1
보육 도우미	2(1.9)	3(2.9)	0						
			3	0	2	1	0	0	0
소계	103(100.0)	103(100.0)							
				13	4	4	3	2	4

〈부표 3-8〉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강원도 강릉시)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먼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21(19.8)	40(37.7)	11						
			29	12	1	3	0	4	9
친인척	2(1.9)	8(7.5)	1						
			7	2	0	1	2	0	2
학원	82(77.4)	31(29.2)	25						
			6	1	0	3	0	2	0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1(0.9)	18(17.0)	0						
			18	2	3	4	0	3	6
보육 도우미	0(0)	6(5.7)	0						
			6	3	0	3	0	0	0
지역 아동센터	0(0)	3(2.8)	0						
			3	0	3	0	0	0	0
소계	106(100.0)	106(100.0)							
				20	7	14	2	9	17

〈부표 3-9〉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경남 하동군)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멀	시간 맞지 않음	기타
본인	41(47.1)	48(55.2)	38						
			10	5	0	0	0	5	0
친인척	6(6.9)	4(4.6)	3						
			1	1	0	0	0	0	0
학원	38(43.7)	29(33.3)	28						
			1	1	0	0	0	0	0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0(0)	5(5.7)	0						
			5	5	0	0	0	0	0
지역 아동센터	0(0)	1(1.1)	0						
			1	1	0	0	0	0	0
기타 (방치됨)	2(2.3)	0(0)	2						
			0	0	0	0	0	0	0
소계	87(100.0)	87(100.0)		13	0	0	0	5	0

〈부표 3-10〉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가족생활관련 교육 및 상담(서울시 성동구)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가 멈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친인척	37(14.8)	26(10.4)	23						
			3	0	0	0	2	1	0
이웃 친구	152(60.8)	91(36.4)	86						
			5	1	0	0	0	3	1
육아지원 시설	18(7.2)	24(9.6)	13						
			11	2	6	1	0	1	1
전문상담 기관	2(0.8)	41(16.4)	2						
			39	2	20	8	4	4	1
사회복지 기관	2(0.8)	13(5.2)	0						
			13	4	4	1	0	0	4
대중매체	31(12.4)	17(6.8)	16						
			1	1	0	0	0	0	0
종교단체	7(2.8)	8(3.2)	6						
			2	1	0	0	0	1	0
교육기관	1(0.4)	22(8.8)	1						
			21	6	11	2	0	2	0
여성단체	0(0)	6(2.4)	0						
			6	0	4	0	2	0	0
아동청소 년단체	0(0)	1(0.4)	0						
			1	0	0	0	0	1	0
부녀회	0(0)	1(0.4)	0						
			1	1	0	0	0	0	0
소계	250(100.0)	250(100.0)		18	46	12	8	13	2

〈부표 3-11〉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가족생활관련 교육 및 상담(강원도 강릉시)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 가 멀	정원 마감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친인척	32(12.8)	4(1.6)	3							
			1	0	1	0	0	0	0	0
이웃 친구	119(47.6)	12(4.8)	10							
			2	0	1	0	1	0	0	0
육아지원 시설	6(2.4)	12(4.8)	2							
			10	3	1	4	0	0	2	0
전문상담 기관	1(0.4)	156(62.4)	0							
			156	33	95	14	0	0	11	3
교육기관	0(0)	41(16.4)	0							
			41	6	28	2	0	3	2	0
여성단체	4(1.6)	7(2.8)	2							
			5	0	5	0	0	0	0	0
아동 청소년 단체	0(0)	3(1.2)	0							
			3	0	3	0	0	0	0	0
사회 복지기관	0(0)	6(2.4)	0							
			6	0	4	0	0	0	0	2
대중매체	83(33.2)	9(3.6)	4							
			5	0	3	0	1	0	1	0
종교단체	5(2.0)	0(0)	0							
			0	0	0	0	0	0	0	0
소계	250(100.0)	250(100.0)		42	141	20	2	3	16	5

〈부표 3-12〉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가족생활관련 교육 및 상담(경남 하동군)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서비스 제공 않음	정보 모름	비용 과도	거리 가 멀	정원 마감	시간 맞지 않음	기타	
친인척	45(18.0)	30(12.0)	29								
			1	0	0	0	0	0	0	1	
이웃 친구	150(60.0)	93(37.2)	91								
			2	1	0	0	0	0	0	1	
육아 지원시설	24(9.6)	20(8.6)	19								
			1	0	0	0	0	0	1	0	
전문 상담기관	2(0.8)	49(19.6)	2								
			47	19	18	4	5	0	1	0	
교육기관	4(1.6)	31(12.4)	4								
			27	10	9	0	1	0	7	0	
여성단체	1(0.4)	6(2.4)	0								
			6	5	0	0	0	0	0	1	
사회 복지기관	1(0.4)	6(2.4)	0								
			6	3	1	0	1	0	1	0	
대중매체	23(9.2)	15(6.0)	11								
			4	1	1	0	0	0	2	0	
소계	250(100.0)	250(100.0)									
				39	29	4	7	0	12	3	

〈부표 3-13〉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직업관련 교육·훈련(서울시 성동구)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 않은 이유		
			이용않음	정보모름	정원마감	기타
공공기관	3	5	2	0	2	1
			3			
교육기관	1	1	1	0	0	0
			0			
여성단체	3	0	0	0	0	0
			0			
사회복지기관	1	0	0	0	0	0
			0			
직업훈련기관	0	2	0	1	0	1
			2			
계	8	8				

〈부표 3-14〉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직업관련 교육·훈련(강원도 강릉시)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 않은 이유				
			이용않음	서비스제 공않음	정보모름	비용과도	정원마감	시간맞 지않음
공공기관	16	20	8	0	6	1	2	3
			12					
직업훈련기관	8	10	2	1	5	0	1	1
			8					
교육기관	11	7	5	0	1	0	0	1
			2					
여성단체	7	3	2	0	1	0	0	0
			1					
사회복지기관	0	3	0	0	2	1	0	0
			3					
기타	1	0	0	0	0	0	0	0
			0					
계	43	43						

〈부표 3-15〉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한 곳: 직업관련 교육·훈련(경남 하동군)
(단위: 명, %)

구분	서비스를 받았음	적절하다고 생각함	이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용 않는 이유	
			이용 않음	정보 모름	시간 맞지않음
공공기관	2	1	1		
			0	0	0
교육기관	4	4	3		
			1	0	1
사회복지기관	1	1	1		
			0	0	0
종교단체	0	1	0		
			0	1	0
계	7	7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터넷 조사 결과

〈부표 4-1〉 인터넷 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구분		내용	
서울 성동구	옥수 종합 사회 복지관	건강지원사업	- 건강관리 보건진료, 물리치료, 이료서비스, 한방진료 서비스
		선재 방과후 교실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 교육비: 수급권가정, 한부모가정 (무료), 저소득가정, 실직가정 (감면) 일반아동 (월 60,000원) - 운영시간: 월~금 (학기중 12:30~19:00) (방학중 9:00~19:00) - 주요 프로그램 시간표 (학기중) · 방과후~13:00: 입실 및 양치 지도 · 13:00~14:00: 과제물지도 및 자율학습 · 14:00~15:00: 특별 수업 (문화유산해설, 영어, 집단활동, 다도, 종이접기) · 15:00~16:00: 간식 및 휴식시간 · 16:00~16:30: 과제물 및 개별학습 · 16:30~17:30: 독서지도 · 17:30~19:00: 하루정리 및 귀가지도 - 주요 프로그램 시간표 (방학중) · 9:00~10:00: 한문예절교실 · 10:00~11:00: 오전간식 및 자유놀이 · 11:00~12:00: 독서지도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자유놀이 · 14:00~15:00: 특별수업 (문화유산해설, 영어, 집단활동, 다도, 종이접기) · 15:00~16:00: 간식 및 휴식시간 · 16:30~17:30: 학습지도 · 17:30~19:00: 하루정리 및 귀가지도
		문수방과후교실	- 대상: 저소득 및 수급권 가정 초등학교 1~4학년 - 교육비: 수급권가정, 한부모가정 (무료), 저소득가정, 실직가정 (감면), 일반아동 (학기중 월 79,000원) - 운영시간: 월~금 (학기중 12:30~18:00) (방학중 9:00~18:00)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 시간표 (학기중) · 12:00~13:30: 입실 및 자유시간 · 13:30~15:00: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15:00~15:30: 간식지도 및 자유시간(컴퓨터활용시간) · 15:30~17:00: 특별수업 : (자유놀이, 독서교실, 특별활동, 영어, 음악활동, 타자교실)
문수방과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0~18:00: 저녁식사 및 귀가지도 - 주요 프로그램 시간표 (방학중) · 9:00~9:30: 입실 및 오전 간식 · 9:30~11:00: 학습지도 · 11:00~12:00: 특별수업 I (체육활동, 한문예절교실, 미술교실, 한문예절교실, 받아쓰기) · 12:00~13:3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 13:30~15:00: 방학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15:00~15:30: 간식지도 및 자유시간 · 15:30~17:00: 특별수업 II (음악교실, 타자연습, 독서교실, 특별활동, 영어교실, 비디오시청, 자유놀이(금)) · 17:00~18:00: 저녁식사 및 귀가지도 - 기타 프로그램 · 특별활동: 어린이학급회의, 요리실습, 현장학습, 생일잔치, 절기행사, 캠프 · 매달 목욕 서비스 및 무료이미용서비스 실시 · 안전교육실시: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교통안전교육
자람 방과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특수학교,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 1학년~4학년(만 7세~만10세) 정신지체, 정서 및 행동 장애, 자폐아동 15명 (선착순으로 접수) · 수급권대상 아동, 저소득 가정, 일반가정 아동 · 시각, 청각장애, 중증의 지체장애 아동 제외 - 운영시간 · 월~금 오후 1:30~6:30 (5:30 송영서비스) · 최대 2년 이용 · 보육료: 수급권 가정, 한부모 가정 (무료), 저소득 가정, 실직가정 (월 40,000원), 일반아동 (학기중 월 80,000원) - 프로그램 내용 · 13:30~14:00: 입실 및 자유놀이 · 14:00~15:00: 개별학습지도 I

구분	내용	
자람 방과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15:30: 간식 지도 · 15:30~16:30: 특별수업 	
	<p>(특수체육, 종이접기, 음악치료, 무용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훈련, 일상생활훈련, 특수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0~17:30: 개별학습지도 II · 17:30~18:30: 송영서비스 <p>- 기타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에 한번 통합 생일잔치, 통합현장학습실시 · 아동별 개별교육 실시, 사회적응훈련실시, 개별운동실시 · 분기별 좋은 부모 되기 모임 실시, 연말에 가족송년잔치 실시 · 수급권대상 아동, 저소득 가정, 일반가정 아동 · 시각, 청각장애, 중증의 지체장애 아동 제외 <p>- 운영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오후 1:30~6:30 (5:30 송영서비스) · 최대 2년 이용 · 보육료: 수급권 가정, 한부모 가정 (무료), 저소득 가정, 실직가정 (월 40,000원), 일반아동 (학기중 월 80,000원) <p>- 프로그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30~14:00: 입실 및 자유놀이 · 14:00~15:00: 개별학습지도 I · 15:00~15:30: 간식 지도 · 15:30~16:30: 특별수업 	
	아동교육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미술교실, 뮤지컬영어, 동화랑 스피치랑, 수리영재주산교실, 유아체육교실, 교과체험교실, 한문급수반, 한문예절교실, 현장학습
	가족종합상담	- 가족문제상담, 법률지식 및 정보제공을 통한 법률상담
연화아동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치료: 주1회 (아동 40분, 부모 10분), 필요한 경우 주2회 치료 가능, 치료비: 1회 30,000원 - 언어치료: 주2회 (아동 40분, 부모 10분), 사정에 따라 주 1회 치료 가능, 치료비: 1회 25,000원 - 미술치료: 주1회 (아동 40분, 부모 5분), 필요한 경우 주2회 치료 가능, 치료비: 1회 25,000원 - 인지치료: 주2회 (아동 40분, 부모 10분), 사정에 따라 주 1회도 가능, 치료비: 1회 25,000원 - 성인상담: 성인일반 대상,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을 가 	

구분	내용
	진 사람, 불면, 불안, 우울, 적응장애 등
연화아동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상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동 양육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람, 주 1회 1시간 진행, 치료비: 1회 30,000원 -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검사: 인성검사(BGT, HTP, KFD, SCT, CAT), 지능검사(KEDI-WISC, 그림지능검사) · 성인대상검사: 인성검사(MMPI, SCT, Rorschach), 지능검사(K/WAIS) - 집단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중에는 주2회, 학기중에는 주1회로 진행 · 총 10회 과정/1시간 30분 · 정원: 미취학반 (4명 내외), 1,2학년반 (6명 내외), 3,4학년반(6명 내외), 5,6학년반(6명내외) · 비용: 총 10회 150,000원 (사전 심리검사 실시 시 검사비용 100,000원은 별도)
보리수향북카페	- 도서대여 및 인터넷 사용 등 지역주민 정보 제공 및 문화공간 마련
성인교육문화사업	- 피아노, 컴퓨터, 에어로빅, 찌개와 밑반찬, 미술, 신나는 가요 세상, 예쁜손글씨
자활지원 및 근로자위탁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창업 교육 실시를 통한 자활을 통한 안정적 생활 유도 - 근로자위탁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대상 · 직무능력 개발교육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일정액의 교육비 환급을 통한 저렴한 가격
지역주민교육 및 조직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교양함양 및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주민역량강화, 주민통합, 지역사회복지인프라구축, 지역사회조직연대 - 주민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 홍보 및 출판 사업 - 지역사회주민을 활용한 후원활동 - 지역사회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 방과후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도 및 특별 활동 보조 프로그램 보조 * 북카페 관리: 도서 정리 및 북카페 관리

구분	내용
방과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정원 : 해맑은교실 15명(초등부), 늘푸른교실 20명 (초등1~3학년), 장애이통합교육 - 교육비: 수급권가정(무료), 저소득층(감면) - 보육시간: 학기중(월~금, 방과후~18:00), 방학중(월~금, 9:30~17:00) - 일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13:20 등원 및 생활지도 · 13:20~14:10 자유영역놀이 · 14:10~14:50 특별활동 I (한자, 영어, 수학, 글쓰기, 컴퓨터, 이야기주머니, 마음소리교실 등) · 14:50~15:50 특별활동 II (미술, 공예, 체육, 표현예술 활동, NIE활동, TP를 결합한 집단활동, 학급회의 등) · 15:50~16:20 간식 및 휴식 · 16:20~17:30 숙제 및 개별학습지도 · 17:30~18:00 생활 및 귀가지도 - 체험학습 월 1회/방학중에는 주 1회, 캠프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활동 참여
아동 절기행사 및 방학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행사, 여름캠프(1박2일), 가족여행, 눈썰매여행 - 방학특강: 방학기간 중 4주 동안 진행
상담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취학 혹은 취학아동 · 상담시간: 치료40분, 부모상담 10분 · 상담료: 2만원 - 전화상담, 개인상담(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지역복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문제종합상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능력증진 및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계 지원 - 자활관련사업: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의 지고취, 업그레йд자활사업, 지역봉사사업 -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조직화 사업 및 연계 사업
사회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과정: 케어복지사 교육과정, 미술치료사 교육과정 - 취미및여가프로그램: 에어로빅, 꽃집운영, 영어회화, 성인피아노, 서예

구분		내용	
강원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가족관계증진사업	- 좋은친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긍정적 미래설계 프로그램 - 사이버상담실 - 엄마와 함께 문화체험교실
		가족기능보완사업	- 청소년공부방 · 이용시간: 월~금 (18:00~22:00), 토일(10:00~18:00) · 청소년공부방컴퓨터교실, 도서관 운영 - 청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자원봉사계절학교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 학교부적응학생교육 · 4박5일 일정, 상담, 성교육, 금연교육, MBTI검사 - 복교생적응훈련프로그램 · 연2회 실시, 인성강화, 공동체놀이 등 - 새터민 및 사회봉사명령자 관리
		교육문화사업	- 성인컴퓨터교실, 한자교실 등
	강릉시	강릉지역자활센터	- 사회적일자리형사업, 시장진입형사업, 자활공동체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기타사업 (급식, 지역복지협의체, 방과후공부방네트워크, 보건소등의 연대사업)
	강릉자비원	- 청소년 그룹홈 운영 (바라밀의 집, 선재의 집) - 아동입양위탁소 운영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 아동 공부방 운영(우리샘 공부방) - 노인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정서함양프로그램 운영 - 모범 봉사마을 만들기, 전문봉사단 및 가족봉사단 운영 - 지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화, 지역자치봉사활동강화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경남 하동군	하동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추진 · 케어복지: 저소득간병 수혜자의 케어복지, 저소득여성의 일자리 창출 · 봉제 전문 기술 교육 제공 (양재, 흠패션) · 자원재활용, 학교청소, 농촌일손돕기, 푸른 영농사업, 집수리 도우미 등 - 기타 후원 사업: 가사간병, 이동목욕차, 실버일구미(노인일자리), 행복보급자리(노인일자리),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	

[부록 4]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수요자 욕구
조사 설문지

부록 289	부록 290	부록 291	부록 292
부록 293	부록 294	부록 295	부록 296
부록 297			

